

Understanding ASEAN through Its Great Leaders



위대한
지도자를 통한
아세안의
이해



FRONT

Sukarno

Tunku Abdul Rahman

Omar Ali Saifuddin III

Chao Anouvong

Norodom Sihanouk

REAR

Bogyoke Aung San

Jose Rizal

Chulalongkhorn

Lee Kuan Yew

Ho Chi Minh

Understanding ASEAN through Its Great Leaders

위대한 지도자를 통한 아세안의 이해

저자 김동엽 김영선
박광우 박장식
배양수 신재혁
안종량 이미지
정연식 홍석준
감수 김희숙



ASEAN-KOREA CENTRE



동남아지역원
INSTITUTE FOR www.iseas.br
SOUTHEAST ASIAN STUDIES

Contents

- 4 Foreword
발간사
- 10 Omar Ali Saifuddin III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
브루나이 '근대 왕실의 설립자'
박광우, 부산외국어대학교
- 24 Norodom Sihanouk
시하누크
왕위를 버리고 운명에 맞서다
정연식, 창원대학교
- 42 Sukarno
수카르노
인도네시아의 국부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 60 Chao Anouvong
짜오아누웁
라오스 위양짚의 마지막 국왕,
태국과의 독립항쟁의 영웅
안종량, 부산외국어대학교
- 78 Tunku Abdul Rahman
툰쿠 압둘 라만
말레이시아 독립의 영웅,
건국의 아버지
홍석준, 국립목포대학교
- 90 Bogyoke Aung San
아웅산
혜성 같았던 미얀마의
민족주의자, 독립의 영웅
박장식, 부산외국어대학교
- 108 Jose Rizal
호세 리살
필리핀 국민 영웅,
아시아 민족주의 선구자
김동엽, 부산외국어대학교
- 126 Lee Kuan Yew
리관유
냉철한 현실 감각과 예지력을 갖춘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신재혁, 고려대학교
- 142 King Chulalongkhorn the Great
쭈라롱껀
태국인의 민족적 자긍심, 그 원천
이미지, 부산외국어대학교
- 160 Ho Chi Minh
호찌민
평범함 속의 비범함
배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 180 Reference
참고문헌

Foreword

The year 2017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ASEAN-ROK Cultural Exchange Year. In this momentous year for ASEAN and ASEAN-Korea relations, I am delighted to present this book, *Understanding ASEAN through its Great Leaders*.

ASEAN is a huge market, with a population of 640 million, and a GDP of US\$2.6 trillion. With the world's youngest population of the average age of 28, and expected annual growth rate of 5-6% by 2022, ASEAN is emerging as the growth engine of the world economy. ASEAN-Korea relations has also developed along with the growth of ASEAN. ASEAN is currently one of Korea's key economic partners, being Korea'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and investment destination.

With the importance of ASEAN-Korea relations increasing, what should we do to develop it into a genuine and long-lasting partnership? There is an Indonesian saying that goes 'If you do not know a person, you cannot love that person (tak kenal maka tak cinta)'. The same applies to ASEAN-Korea relations. Only when we know ASEAN well, will we be able to love ASEAN and solidify the relationship. The ASEAN-Korea Centre has continuously made efforts to increase awareness on ASEAN by publishing a variety of books on ASEAN. Starting with *Understanding ASEAN Economic Community through Economic Giants in Southeast Asia*, we also published *Korean Business Venturing into new Opportunities in ASEAN*, and *Industry 4.0 and ASEAN Market*, looking into the ASEAN economy, its various industries, and new opportunities in these industries. Books such as *Puzzle of ASEAN Culture and Arts: Diversity vs. Unity*, *Exploring Southeast Asia Through Its Religions*, and *A Journey into Southeast Asian Culture through the World Cultural Heritage* explored the diverse yet unified culture of ASEAN through religion and World Cultural Heritage in ASEAN. Other books such as *ASEAN Community at the Heart of Asia and Understanding ASEAN through 4Cs* also delved into ASEAN and ASEAN Community, ASEAN's goals, and what ASEAN aims for.

It is the 'people' that make economic developments and cultural achievements. Therefore, to take a step closer to ASEAN, we aim to focus on 'people'. As the first stepping stone to understanding ASEAN 'people',

we have shed light on the great figures of ASEAN, and hence present to you *Understanding ASEAN through Its Great Leaders*.

I also participated as a co-author of this book, writing the chapter on the Indonesian leader Sukarno. Being the former Ambassador to Indonesia, I considered myself as a person who knows Indonesia inside out. However, through writing about Sukarno, I was able to fully understand the modern history of Indonesia and once again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independence. Studying about Sukarno's life gave me a chance to review the long colonization period of Indonesia and explore the country's progress towards independence. Based on this, I also deepened my understanding on the country's cultu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diverse religion, language, and ethnic groups.

President Moon Jae-in announced his 'New Southern Policy', one that is aimed to make efforts to increase the volume of trade with ASEAN to US\$200 billion by 2020, and to bring relations with ASEAN equivalent to the level of those with the four major powers. For these policies not to remain just as words but to make them into reality, the peoples of ASEAN and Korea should gain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which will lead to establishing a long-lasting and genuine partnership with ASEAN. I hope this book can serve as a milestone and a guide in strengthening the future ASEAN-Korea relations through understanding ASEAN through its people, great leaders, and history.

The publication of *Understanding ASEAN through Its Great Leaders* was only possible with the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of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would like to particularly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Director Park Jang-sik, who planned and arranged the process of publishing this book, to Professor Kim Hee-suk, who spent a great deal of time to edit and refine the chapters of this book, as well as to the staff of ASEAN-Korea Centre's Information and Data Unit.

Kim Young-sun

Secretary General of ASEAN-Korea Centre

발간사

2017년은 아세안 창설 50주년 및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를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아세안, 그리고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 기념비적인 해인 올해, <위대한 지도자를 통한 아세안의 이해>를 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세안은 인구 6억 4천만, 국민총생산 2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 시장입니다. 평균 연령 28세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졌으며, 2022년까지 연평균 5~6%대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어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성장과 함께 한-아세안 관계 또한 발전하였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 2대 교역대상이자 해외투자지역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잡았습니다.

점차 중대해지고 있는 한-아세안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진정한 관계로의 도약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도네시아 속담에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세안을 잘 알아야, 아세안을 사랑하고 아세안과의 진정한 관계를 다질 수 있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아세안센터는 아세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그간 다수의 서적을 출간하여 왔습니다. <동남아 경제 거인들의 어깨에서 아세안 경제를 보다>를 시작으로 <기회의 땅, 아세안 경제를 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아세안 시장> 등의 서적을 통해 아세안의 경제와 다양한 산업분야, 진출 기회를 훑어봤습니다. 또한 <동남아 문화 예술의 수수께끼: 다양성 vs 통일성>, <동남아시아 종교 깊게 보기>, <동남아시아 문화 깊게 보기: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등을 통해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는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종교, 세계문화유산 등을 통해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의 꿈, 아세안 공동체를 말하다>, <4C로 이해하는 아세안> 등의 서적을 통해 아세안과 아세안 공동체, 아세안이 목표하는 바와 지향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이룩해온 주체는 사람입니다. 한-아세안센터는 아세안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사람’에 주목해보고자 했습니다. 아세안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로, 아세안의 위인들을 조명, <위대한 지도자를 통한 아세안의 이해>를 펴냅니다.

저 또한 <위대한 지도자를 통한 아세안의 이해>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편의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해 제법 안다고 치부했지만, 이번 집필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더 다양한 면모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수카르노의 생애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오랜 식민지배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다양한 종교와 인종, 언어 등을 어떻게 통합하여 건국을 이루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이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新남방정책’을 천명,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을 2000억불 규모로 확대하고, 한-아세안 협력을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포부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깊이하고, 이를 통해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서적이, 사람, 위인, 역사를 통해 아세안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를 다지는 초석이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통한 아세안의 이해> 출간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본 서적을 기획하고 정리 해주신 동남아지역원 박장식 원장님, 감수에 힘 써 주신 김희숙 박사님, 그리고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김영선

BRUNEI
Omar Ali Saifuddin III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
브루나이 '근대 왕실의 설립자'
박광우, 부산외국어대학교

CAMBODIA
Norodom Sihanouk

시하누크, 왕위를 버리고 운명에 맞서다
정연식, 창원대학교

INDONESIA
Sukarno

수카르노
인도네시아의 국부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LAO PDR
Chao Anouvong

짜오아누웁
라오스 위양짠의 마지막 국왕,
태국과의 독립항쟁의 영웅
안종량, 부산외국어대학교

MALAYSIA
Tunku Abdul Rahman

툰쿠 압둘 라만
말레이시아 독립의 영웅, 건국의 아버지
홍석준, 국립목포대학교

MYANMAR
Bogyoke Aung San

아웅산
혜성 같았던 미얀마의 민족주의자, 독립의 영웅
박장식, 부산외국어대학교

PHILIPPINES
Jose Rizal

호세 리살
필리핀 국민 영웅, 아시아 민족주의 선구자
김동엽, 부산외국어대학교

SINGAPORE
Lee Kuan Yew

리관유
냉철한 현실 감각과 예지력을 갖춘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신재혁, 고려대학교

THAILAND
King Chulalongkorn
the Great

쭈라롱껀
태국인의 민족적 자긍심, 그 원천
이미지, 부산외국어대학교

VIETNAM
Ho Chi Minh

호찌민, 평범함 속의 비범함
배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Omar Ali Saifuddin III

23 September 1914 - 7 September 1986

OMAR ALI SAIFUDDIN III

Architect of Modern Brunei Darussalam

PARK Kwangwoo,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ultan Omar Ali Saifuddin III *reigned from 1950 to 1967* was Brunei's twenty-eighth(28th) ruler. He is well known as 'Architect of Modern Brunei Darussalam for his great achievement in transforming Brunei from backwater country to modern state. Omar Ali Saifuddin III inherited the kingdom which was a British protected state. In addition, the kingdom suffered from various challenges after World War II. There was an internal political rebellion and interference in the domestic affairs of powerful neighbors. In this unfavorable and difficult atmosphere, Sultan Omar Ali Saifuddin III endeavored to not only protect his dynastic interests but also to pursue interests of Brunei based on his own political agenda. His efforts enabled Hassanal Bolkiah who is currently the Sultan of Brunei to revive Brunei's past glories as an independent existing state through forging traditional Malay Islamic Monarchy.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 브루나이 ‘근대 왕실의 설립자’

박광우, 부산외국어대학교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Omar Ali Saifuddin III)는 1914년 9월 23일, 영국의 보호령인 브루나이의 술탄 라마현 반다르스리브가완(Bandar Seri Begawan)에서 26대 술탄인 무하마드 자마를 알람 2세(Muhammad Jamalul Alam II)의 10자녀 중 7번째로 태어났다. 브루나이의 28대 술탄으로 17년간 재임(1950년-1967년)한 그는 임기 동안 탁월한 국정운영능력을 보여 ‘근대 브루나이 왕국의 설립자’로 칭송받고 있다. 이에 이 글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브루나이 왕국을 오늘날까지 건재할 수 있게 만든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왕자’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

• 이슬람 율법과 말레이 전통을 가슴에 품은 왕자

유년시절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은 왕실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전통적인 이슬람식 교육을 받았다. 그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고 암기했으며, 공부에 큰 열의를 보였다. 그 모습을 눈여겨보던 그의 외할머니는 당시 술탄 라마 지역에서 명성을 떨치던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사이푸딘을 위한 개인 교습을 부탁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받은 이슬람식 교육은 그를 종교적 의무에 충실한 모범적인 무슬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종교 공부뿐만 아니라 말레이 고전 문학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그는 이 속에 담긴 교훈과 고대 왕국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로부터 항상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마음속에 싹틔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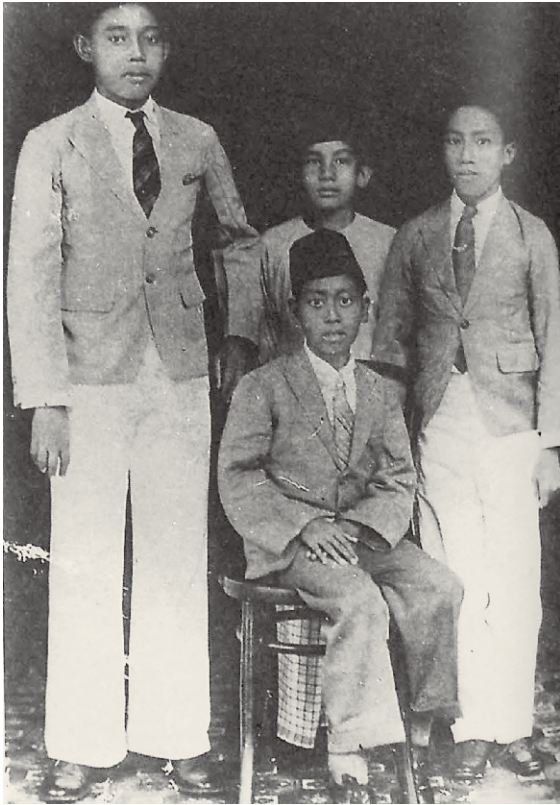
어린 시절부터 이슬람 사상과 국가의 전통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은 과거에 영화를 누렸던 이슬람 왕국인 브루나이를 재건

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이처럼 브루나이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브루나이 왕가가 이어져 오는 동안 성지순례를 떠났던 술탄이 단 두 명에 불과하다는 것과 영국의 점령이 시작된 18세기 이래 술탄들 그 누구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독실한 무슬림 신자로 자란 사이푸딘은 이를 늘 의아하게 생각했으며, 이런 이유에서 그는 성지순례를 이행하여 이슬람 왕국의 전통을 세우는 것을 장차 그가 풀어야 할 오랜 숙원 중 하나로 간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슬람 왕국의 술탄으로서 바람직한 종교적 실천이요 의무라고 그가 믿었던 성지순례의 숙원을 실현하는 일은, 그가 술탄의 지위에 오르기 전까진 그리 녹록치 않았다.

1951년 정식으로 술탄에 취임한 사이푸딘은 술탄으로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임무를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성지순례로 정했고, 1951년 9월 마침내 메카를 향한 성지순례의 길에 발을 디뎠다. 이는 장차 브루나이 왕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징적으로 만천하에 보여준 행위였으며, 이후 이슬람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거침없이 이어졌다.

• 다양한 경험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의 술탄

정통 이슬람 교육을 받는 한편 말레이 고전 문학에 심취해 유년 시절을 보내던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은 19세가 되던 1932년,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떠났다. 그가 학창시절을 보낸 쿠알라 캉사르 칼리지 *Kuala Kangsar College*는 1905년 영국식 교육제도를 본떠 설립된 학교였다. 이러한 학교 전통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영국식 매너를 익히고 서구 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유학한 경험을 높이 산 영국 상주주재관 *British Resident* 턴볼 *Turnbull*은 그가 브루나이로 돌아오자마자 영국 식민정부의 관료로 일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제안을 받아들인 그는 쿠알라 블라이트 *Kuala Belait*에 위치한 산림청 행정 후보생으로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후 그는 사법부의 행정 후보생을 거쳐, 1941년에는 브루나이 영국 주재 행정관으로 발탁되어 한층 더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갔다.



[사진 1]
말레이시아 유학시절의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오른쪽)
출처: Hussainmiya 1995

유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이 보여준 인상적인 면모는 사람들과 능숙히 소통하는 모습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던 그의 원만한 성격은 말레이시아 유학 시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축구를 통해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을 배웠고, 저녁이 되면 기숙사를 빠져나와 골목길 가판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들과 신뢰를 쌓았다. 사람들을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은 브루나이로 돌아와서도 변함없었다. 산림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의 업무 중 하나는 정글에 사는 주민들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벽촌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가 목격한 주민들의 삶은 그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 참담할 정도의 지경이었다. 이를 측은히 여긴 사이푸딘은 이후 정글에서 1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아픔을 공유하였다. 이처럼 진심을 다하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훗날 그가 브루나이 사람으로부터 얻게 된 절대적인 지지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사이푸딘은 전임 술탄들이 보였던 행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왕실 자손으로서 처음으로 서구식 근대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으며, 그가 영국 식민 정부의 여러 부서와 왕실에서 쌓은 경험은 새로운 시대의 국정 운영에 필요한 능력들을 신장시켜 주었다. 특히 그가 유년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했던 말레이 역사와 전통적 가치는 유학생들과 식민 정부의 관료로서 경험하며 체득했던 서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 근대적 이슬람 왕국의 술탄으로서 그의 큰 자산이 되었다. 이런 능력이 십분 발휘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그가 총리에 오르고 난 후부터였다. 국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술탄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 형을 대신하여 그는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국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술탄에게 전달하는 한편, 때론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 주재관에게 도움을 청하기까지 하였다. 국민들은 이처럼 적극적인 그의 행보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를 주목하던 영국 식민 정부는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찾던, 자신들과 지역 주민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왕족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른다.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

• 1959년 헌법 공포와 자치권 획득

1950년 6월 4일, 술탄으로 재임 중이던 그의 형 아흐마드 타주딘 2세 **Ahmad Tajuddin II**가 급서하였다. 이틀 뒤인 1950년 6월 6일,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는 영국의 동의를 얻어 왕위를 계승하고, 이듬해인 1951년 공식적으로 술탄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 그는 서서히 영국에게 빼앗긴 브루나이 왕실의 권한을 찾기 위한 시도에 착수하였다.

브루나이 술탄으로서 사이푸딘의 자립 시도는 여러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취임 직후 그는 영국 식민관리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자치권 확보를 위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던 그는 1953년 7월, 7인회 **Tujuh Serangkai**라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직접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브루나이 헌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듬해인 1954년, 술탄 오마르 알리 사히푸딘은 영국 주재관과 고등 판무관 **High Commissioner**을 만나 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였고,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1959년 3월, 영국 정부는 술탄이 제안한 헌법 조항들을 승인하였다. 같은 해 9월, 현 브루나이의 수도인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오마르 알리 사히푸딘은 영국의 동남아시아 식민지 총책임자였던 로버트 스콧 **Robert Scott**을 만나 헌법 선포와 관련한 최종합의에 이른다. 이 헌법에 따라 그는 국방과 외교 분야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영국으로부터 되찾았다.

독자적인 헌법 선포는 술탄에게 절대적인 권력과 더불어 국가 자산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게 해주었는데, 이는 이후 브루나이 절대 왕권 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첫째, 술탄은 영국으로부터 되찾은 권한을 바탕으로 플라유 이슬람 왕정 **Melayu Islam Beraja**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독실한 무슬림 신자였던 사이푸딘은 국가 전반에 걸쳐 이슬람주의의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이 같은 그의 정책 방향에 따라 브루나이는 1959년 공포된 헌법을 통하여 ‘이슬람 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독립을 쟁취한 1984년 이후로는 플라유인을



위 [사진 2]

1951년 5월 31일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의 대관식에서 영국의 동남아 총감 말콤 맥도날드가 축사하는 모습. 오른쪽이 술탄 사이푸딘
출처: Hussainmiya 1995

아래 [사진 3]

1959년 9월 29일 영국과 브루나이의 협정 조인식에서 서명 중인 로버트 스콧과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출처: Hussainmiya 1995

중심으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며 왕정을 국가 통치체제로 하는, 이른바 ‘믈라유 이슬람 왕정’이 국가 건국이념으로서 확립되었다. 이는 현재 브루나이 술탄의 절대 권력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둘째, 술탄 정부의 막강한 경제적 능력은 브루나이 절대왕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20년대 세리아Seria 지역에서 발견된 유전과, 1950년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한 석유산업에 힘입어 브루나이 경제상황은 크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9년 국가 자산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영국으로부터 되찾은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은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석유, 가스 산업 및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교육, 건강 등과 같은 국민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유가 폭등으로 맞이한 경제 호황 덕분에 브루나이 술탄은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일게 되었고, 이렇게 확보된 국가 재정능력은 국민들에게 술탄이 베푸는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술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공된 국민 복지가 다시 브루나이 절대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1962년 위기와 말레이시아와의 합방 기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동남아시아에 불어온 탈식민지화와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브루나이 주변 국가들은 속속 독립을 쟁취해갔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브루나이 역시 1959년 자치정부 설립을 위한 헌법을 선포하고 자치권을 획득하였다. 동시에 사이푸딘은 다른 말레이 술탄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싱가포르Singapore, 사라왁Sarawak, 사바Sabah와 함께 말레이 연방 창설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술탄 사이푸딘의 이 같은 의도가 불씨가 되어 브루나이는 정치적 격동기를 맞이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브루나이에서는 브루나이 믈라유연합Kesatuan Malay-Brunei과 브루나이 청년전선Barisan Pemuda Brunei의 주도 아래 왕국 수호를 위한 민족주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Sukarno의 지휘 아래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의 영웅으로 떠오른 아자

하리 Azahari가 1950년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브루나이 국내 상황은 급변하였다. 1956년, 아자하리를 중심으로 브루나이의 첫 번째 정당인 브루나이 인민당(Patri Rakyat Brunei)이 설립되었고, 1962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총선거¹에서 아자하리의 브루나이 인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후 아자하리는 말레이 연방에 가입하려는 국왕과 이를 강요하는 영국의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는 반영(反英)·반(反)술탄 체제를 주창하며 입헌군주제 하의 민주주의 정착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그는 사라왁, 사바, 브루나이를 연합하는 북보르네오 연합의 창설을 요구하였다. 사이푸딘 술탄은 절대왕정 체제에서 자신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아자하리의 주장을 거절하며 입법 위원회를 연기하였다. 체제 전복이 힘들다고 판단한 아자하리의 브루나이 인민당 의원들은 그들을 따르는 북갈리만탄 무장세력(Tentera Nasional Kalimantan Utara)을 동원해 반란을 일으켰다. 사이푸딘은 영국의 개입을 요청하였고, 결국 반란은 영국의 구르카(Gurka) 용병부대에 의해 수일 내에 진압되었으며 총선 결과 또한 무효화되었다.

반란을 제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63년 7월 초, 사이푸딘은 말레이시아 연방 합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 런던으로 향하였다. 그에게 런던회의는 연방에 합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나, 뜻밖에도 사이푸딘은 연방 참여에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만약 연방에 합류하지 못할 시 브루나이와 술탄 자신의 안위를 보전하기 힘들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이푸딘이 왜 브루나이의 연방 참여 반대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여러 추측들이 제기된다.²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부 반란의 충격을 겪은 그가 당시로서는 영국의 철수를 원치 않았으리라는 추측이다. 그에게 있어 브루나이의 생존 문제란 영국이 철수할 경우 독립국으로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말레이시아라는 보다 더 큰 단위에 통합될 것인가의 문제였다.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1 1959년 헌법의 공포와 함께 영국은 브루나이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가까운 장래에 총선을 실시할 것을 술탄에게 약속받았다.

2 당시 말레이시아의 총리였던 툰구 압둘 라만(Tunku Abdul Raman)과 브루나이의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 간에 석유수입세, 연방 술탄들 간의 서열문제 등과 같은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있었고, 이것이 브루나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 참여를 거부하게 된 원인이 되었으리라는 추측도 그가운데 하나이다.

말레이 연방 합류를 위한 회유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이푸딘은 통합을 거부하였다. 어쩌면 그로서는 영국의 보호령으로 남아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브루나이에 더 이로울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즉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완전한 독립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떠한 형태의 통합도 거부하는 것-아마도 이것이 미래 브루나이의 운명을 건 선택 앞에서 술탄인 그가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다시 시작되는 절대왕권 국가

1967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는 일방적으로 그의 장남 하사날 볼키아 [Hassanal Bolkiah](#)에게 왕위를 승계하였다. 당시 영국은 총선거를 통해 브루나에서 민주적 정치체제가 정착되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1962년 브루나이 인민당의 반란을 경험한 술탄은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절대왕정체제를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같은 이유로 입법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왕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그의 의도를 내비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왕위를 그의 장남에게 물려준 것이다.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룬 1984년, 브루나에서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는 더 이상 술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근대 브루나이 왕실의 설립자’로서 브루나이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그는 영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주권을 이양 받고 브루나이의 독립을 위한 길을 열었으며, 술탄이 입헌군주제 하의 상징적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브루나이 인민당 반란 사건을 진압함으로써 왕실을 존폐의 위기에서 구하였다. 특히 외세의 간섭을 뒤로하고 말레이 연방 참여를 거부한 결정은 오늘날 절대왕정국가로서 브루나이를 존속케 한 그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브루나이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절대왕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18세기부터 시작된 ‘왕국의 몰락’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고대왕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5대 술탄 하사날 볼키아^{1485-1524년} 시대의 영광을 그의 장남인 29대 술탄 하사날 볼키아의 시대³로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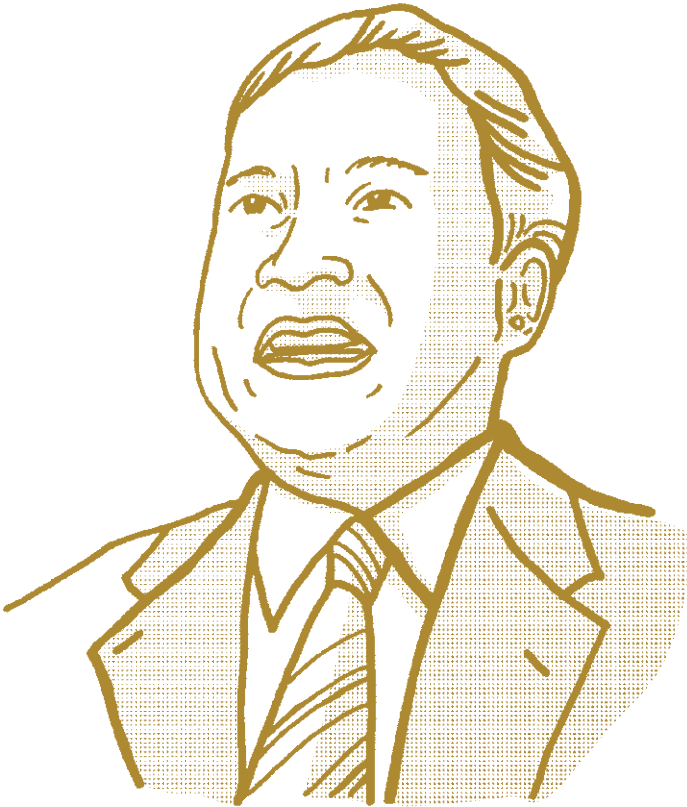


[사진 4]
1984년 1월 1일 독립 선언 중인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
출처: Hussainmiya 1995

- 3 브루나이의 5대 국왕으로 재임했던 하사날 볼키아(1485-1524)는 해상무역을 활성화하여 브루나이를 동남아시아 최고의 무역항으로 만들었으며 영토를 북부 보르네오 전역과 필리핀 군도의 일부까지 확장하였다.

주요 연표

- 1914년 9월 23일 영국 보호령 브루나이 술탄 라마에서 태어남
- 1932년 말레이 쿠알라 캉사르 칼리지 입학
- 1936년 브루나이로 귀환 후 산림청 행정 후보관으로 근무
- 1941년 영국 주재관에 합류하여 행정관으로 취임
브루나이 주재 일본 총독부 근무
- 1947년 브루나이 총리 취임
- 1950년 6월 4일 술탄 아흐마드 타주딘 2세 사망
6월 6일 차기 술탄으로 추대됨
- 1951년 5월 31일 술탄으로 정식 취임
- 1953년 7월 브루나이 헌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 1959년 9월 브루나이 헌법 선포
- 1963년 브루나이 인민당 반란 진압 후 말레이시아 연방 가입 요구 철회
- 1967년 왕위를 장남 하사날 볼키아에게 양위
- 1984년 1월 1일 영국으로부터 브루나이 독립
- 1986년 9월 7일 사망



Norodom Sihanouk

31 October 1922 - 15 October 2012

NORODOM SIHANOUK

A King Who Abdicated for His Mother Country

JEONG Yeon Sik,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1941 a surprise notice caught a young man studying at Lycée Chasseloup Laubat in Saigon. The young man named Norodom Sihanouk hurried back to Phnom Penh, Cambodia to be enthroned. Least expected and therefore hardly prepared to become a king, the 18-year-old king knew little about how to rule the kingdom under the French colonial occupation. It did not take long, however, to understand the duties his destiny placed on him. He listed independence and the preservation of territory on top of his agenda without knowing that his life-long dedication would be required. King Sihanouk first launched the ‘royal crusade’ for independence in February 1953 traversing three continents and pulled it out against all odds. Then he faced threats coming from in and outside that put the newly independent Cambodia in peril. He struggled to secure internal stability out of two hostile political factions. With hostile and avaricious neighbors around, King Sihanouk had to find a way that would provide protection to his fragile kingdom. A bigger challenge was to prevent Cambodia from being dragged into a war of magnitude unprecedented in war history. King Sihanouk did everything he could to find solutions to these enigmatic challenges. But nothing he did satisfied his opponents, one of whom staged a coup in 1970 and ousted the king into exile. The utterly incompetent Khmer Republic existed only to turn the country into the hands of extremely radical communists who ruined the country to a degree unknown in human history. King Sihanouk fought back and refused to forgo even when a slightest chance was not in sight. And yet he was ready to make a ‘pact with devils’ who massacred innocent people including his own children as long as it was necessary to

end the Vietnamese occupation of his motherland. More often than not his strenuous efforts turned out less than success as it is often said. Considering the harshest circumstances that encircled Cambodia, however, it can be said that King Sihanouk managed with least resources at hand to yield outcomes best possible in reality. It was King Sihanouk who earned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to Cambodia. It was his strategies that brought the civil war to an end and Cambodia back to a normal and peaceful state. King Sihanouk passed away on 15 October 2012 and closed the cardinal chapter of Cambodia's tumultuous modern history. Rest in Peace, His Majesty Norodom Sihanouk, Samdech Euv.

시하누크: 왕위를 버리고 운명에 맞서다

정연식, 창원대학교

1922년 10월 3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다. 부모는 당시 캄보디아의 국왕이었던 무니봉 **Monivong** 왕(재위 1927-1941)의 딸 꼬사막 **Kossamak** 공주와 노로돔 **Norodom** 왕(재위 1860-1904)의 손자 수라마릿 **Suramarit** 왕자였다. 할아버지 수타롯 **Sutharot**은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는 뜻으로 손자에게 시하누크 **Sihanouk**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시하누크 왕자가 태어나던 날 궁정의 점성술사는 이 어린 왕자가 장차 수많은 적들을 제압하고 훗날 캄보디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점성술사가 또한 조언하기를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만 어릴 때 죽을 운을 피할 수 있다 하여 왕자의 부모는 외증조모에게 양육을 맡겼다. 외증조모가 운명한 뒤 어린 왕자는 할아버지인 수타롯의 집으로 가서 불교에 조예가 깊었던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시하누크 왕자는 에꼴 프랑수아 보두앙 **Ecole François Baudoin**에서 교육 받았다. 호기심 많고 재능도 많았던 그는 공부를 잘했고, 평민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는 특히 연극과 운동을 좋아하여 연극단과 축구팀을 만들어 이끌기도 하였다. 연극에 대한 관심은 곧 영화로 옮겨가 토요일만 되면 그는 영화관을 찾곤 했다. 사실 영화에 대한 시하누크 왕자의 남다른 열정은 평생토록 식지 않았으며, 때로 그 열정이 지나쳐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1936년 초등교육을 마친 시하누크 왕자는 사이공 **Saigon**에 위치한 리쎬 샹스루 로바 **Lycée Chasseloup Laubat**에 입학하였다. 기숙사 침대와 급식은 형편없었지만 인도 차이나 전역에서 모여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이곳에서 시하누크 왕자는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졸업 후 프놈펜으로 돌아가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꿈을 품었다고 한다.



[사진 1]

1941년 프랑스 정부의
지명으로 국왕이 된 시하누크

출처: BBC News(www.bbc.com)

하지만 1941년 무니봉 국왕이 서거하면서 시하누크 왕자의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만다. 뜻밖에도 프랑스 식민정부가 시하누크 왕자를 국왕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프랑스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이 제기된다. 노로돔 가문과 시소왓(Sisowath) 가문 사이에서 태어난 시하누크 왕자가 두 가문 사이의 오랜 경쟁을 종식시킬 적임자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고, 나이가 어린 만큼 프랑스 식민정부의 지시에 고분고분 잘 따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1941년 5월 3일 18세의 시하누크 왕자는 캄보디아 국왕이 되었다. 시하누크 국왕은 왕실이 제공하는 안락한 삶을 즐길 뿐 국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보였다. 사실 당시 그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국왕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도 밟지 못했던 터였다. 하지만 시하누크는 심지가 굳고 영민한 청년이었다. 전국을 순회하며 만난 농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캄보디아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결혼과 관련해 프랑스 당국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거부하였고, 이어 왕족과 고관대작들에 대한 아편 공급을 금지시켰다. 노로돔 국왕 시절부터 프랑스의 후원으로 시작된 아편 공급을 중단시킨 것은 왕실을 정화하는 작업인 동시에 프랑스에 대한 작은 도전이었다. 뿐만 아니라 시하누크는 크메르어의 로마자 표기 정책 도입에도 반대하여, 만일 프랑스 식민당국이 이를 강행할 시 퇴위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히 맞섰다. 어리고 철없어 보이던 시하누크는 어느덧 캄보디아의 국왕으로 성숙해가고 있었다. 프랑스 식민정부의 지시와 명령을 고분고분 따를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시하누크를 선택한 이유였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다.

1945년 3월 9일,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프랑스 군대를 무장해제하자 시하누크 국왕은 나흘 뒤 캄보디아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비록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긴 하였으나, 캄보디아가 이를 기회로 삼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독립국가 캄보디아의 국왕 겸 총리로서, 시하누크는 가장 먼저 프랑스가 강제했던 크메르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폐기하고 크메르

문자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독립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다. 일본은 패전했고, 10월에는 프랑스 군대가 다시 돌아왔다. 당시의 캄보디아로서는 프랑스를 몰아낼 만한 힘을 갖지 못했기에 시하누크는 캄보디아가 이미 독립을 선포한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프랑스에 협상을 요구했다. 양측은 1946년 1월 잠정협정에 합의했는데, 그 내용은 캄보디아를 다시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되돌리되 국정 일부에 대해서는 자치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시하누크는 이 협상 결과에 만족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보호국으로 회귀한다는 사실이 불만이었고, 프랑스 측이 허용한 자치권이란 재정, 국방, 사법 등 국가 운영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진 껍데기나 다를 바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당시 태국이 점유하고 있던 캄보디아 영토—바뎀방 Battambang, 시엠리엵 Siem Reap, 캄땡툼 Kampong Thom, 스통뜨렝 Stung Treng 일대—의 반환을 요구하여 성사시킨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 할 수 있다.

1946년 말 태국이 영토를 반환할 즈음 시하누크는 돌연 프랑스를 방문했다. 직접 지배국가의 심장부로 들어가 완전한 독립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식민지 유지를 위해 베트남과 전쟁 중이었던 프랑스는 시하누크의 요구를 묵살했다. 같은 목적으로 그는 1949년에 다시 프랑스를 방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1953년 2월, 시하누크는 3년 내에 캄보디아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독립을 위한 ‘왕의 원정’을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프랑스로 가 프랑스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어 독립을 요구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시하누크는 캐나다와 미국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캐나다 국영 라디오 방송 CBC, 미국의 뉴욕타임즈 New York Times를 통해 캄보디아의 독립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꿈쩍도 않던 프랑스가 협상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속셈을 간파한 시하누크는 협상을 거부하고 전면 저항을 선언하였고, 프랑스에 맞서 싸우자는 국왕의 호소에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지원하여 군대가 조직되었다. 프랑스의 지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갖게 된 자체 군사력이었다. 한 달 뒤 프랑스는 독립을 공

개적으로 약속하였고, 이후 몇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53년 11월 9일, 시하누크는 마침내 캄보디아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국왕으로 즉위한 지 13년, 이제 갓 서른을 넘긴 청년 시하누크가 캄보디아의 독립을 이끌어냈다. 혹자는 이 같은 성과가 장기간에 걸친 베트남과의 전쟁에 지친 프랑스가 이미 인도차이나를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과 교전 중이던 프랑스가 당시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었다고 진단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그간 시하누크가 프랑스를 상대로 쏟았던 끈질긴 노력을 고려한다면 독립과 식민 지배의 종식이라는 위대한 승리는 마땅히, 그리고 온전히 시하누크의 공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독립국가 캄보디아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는 국가 건설이었다. 프랑스 주도 아래 1946년 제정된 자치헌법에는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국왕이었다. 물론 의회는 정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불신임 권한을 갖지만, 국왕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국왕과 의회 간의 상호견제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국왕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을 부여하는 권력구조지만, 실상 이는 국왕에 대한 통제만으로 식민 지배 체제를 쉽게 유지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 정치는 독립 이전부터 출구 없는 갈등구조 속에 갇히고 말았다. 가령 1946년 첫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국왕이 구성한 내각을 해산하면 시하누크 국왕은 내각을 다시 구성하거나 의회를 해산하였고, 민주당은 다시 치러진 선거에 승리하여 국왕에 대립하는 것과 같은 양상의 갈등이 반복되었다. 잦은 내각 교체와 공백으로 인해 사실상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시하누크 국왕은 프랑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않고는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년 이내에 독립을 성취하겠다고 선언한 후 그가 프랑스로 떠났던 것은 이런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독립 후에도 권력구조를 둘러싼 시하누크 왕과 민주당의 대립은 계속되었고, 그 결과 개헌은 마냥 지연되었다.

1995년, 시하누크는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독립 영웅에게 보내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반대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9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대는 꺾이지 않았다. 이에 시하누크는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승부수를 던졌다. 퇴위였다. 왕좌에서 내려와 일반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것이며, 향후 다시 왕위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선거에서 직접 경쟁을 통해 반대세력을 누르고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시하누크는 3월, 자신의 개혁 구상을 담아 상쿰인민공동체, Sangkum Reastr Niyum을 조직하였고, 6개월 뒤 총선에 참여하였다. 시하누크는 전국을 순회하며 특유의 열정적인 웅변술로 상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상쿰은 시하누크 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91석 전체를 석권하였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으로 상쿰 1당 지배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퇴보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하누크의 과단성과 돌파력 덕분에 정치적 안정이 달성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왕에서 총리로 변신한 시하누크 앞에는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만연해 있는 사회 부조리 문제 또한 척결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냉전체제 아래 주변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하누크 한 사람의 힘만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했다. 오랜 식민 지배로 인해 경제는 망가져 있었고 축적된 자본이나 자원도 없었다. 또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관료의 수도 턱없이 부족했다. 사실 이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대다수 신생독립국들이 처해 있던 현실이기도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은 시하누크 정부를 집요하게 공격하였다. 결국 시하누크는 총리직을 사임하고는 프놈폴렌 Phnom Kulen 산으로 들어갔다. 캄보디아에서 프놈폴렌은 앙코르 제국의 발원지인 동시에 왕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시바 신의 신성이 깃든 산으로 알려져 있다. 위기에 직면할 때면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부각시키는 시하누크 특유의

대응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하누크의 자리를 노리는 적은 늘 많았지만,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프놈폴렌 산을 나와 프놈펜으로 돌아온 시하누크는 민주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하였다. 왕궁에서 열린 토론에 삭발한 모습으로 등장한 시하누크는 참석자들을 일방적으로 제압하였고, 뒤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상쿰은 다시 89%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석권하였다. 총리로 복귀한 시하누크는 국민의 압도적 재신임과 넘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작은 마을들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가는 곳마다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실제 시하누크가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이루어낸 성과는 그에게 적대적인 비판자들까지도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1955년 30만 정도에 불과했던 초등학교생의 수는 1968년이 되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중등학교생의 수는 5천에서 100만으로 증가하였다. 1955년에 하나도 없었던 대학은 1968년이 되자 9개 대학, 1만 명 이상이 재학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보건의료 시설 또한 비슷한 추세로 확충되었다. 시하누크가 이끄는 캄보디아의 1960년대 초반은 명백히 번영과 안정의 시대였다. 하지만 이 번영과 안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963년 11월 시하누크 정부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시장은 크게 위축되었고,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악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원조를 거부함에 따라 이미 취약해진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미국이 제공해온 원조액이 국가 전체 세입의 14%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시하누크 정부는 왜 이처럼 급격한 정책 전환을 선택했던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당시의 국내외 정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상쿰은 정당이라기보다는 좌우 세력 모두를 아우르는 일종의 연합전선으로서, 거국내각 구성을 목표로 세워진 정치조직이었다. 실제로 시하누크는 우파뿐 아니라 좌파 인사들까지 포함하여 내각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었다. 기존 정당들을 무력화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은 이를 수 있었지만 정책적 일관성을 담보할 순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좌우 모두 불만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하누크는 좌파 경제학의 논리를 받아들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현재시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이는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를 경제에 대한 시하누크의 무지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개발 신생독립국들의 경제발전전략을 두고 좌우 두 가지 이론이 경쟁하던 시대에 한 국가의 지도자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로 인한 실패는 단순히 두 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초래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정책 전환 이후 캄보디아 경제는 더욱 침체되었고 시하누크에 대한 우파의 반감과 공격 또한 강도를 더해갔다.

미국의 원조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캄보디아를 둘러싸고 신타래처럼 얽혀 있던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는 독립 후 줄곧 중립외교노선을 표방해 왔다. 강국들에 둘러싸인 약소국 캄보디아에게 중립은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약소국의 중립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캄보디아의 서쪽과 동쪽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캄보디아의 영토를 탐내고, 때로 유린하기까지 했던 태국과 베트남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베트남의 경우 남북-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과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캄보디아로서는 양쪽 모두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대였다. 실제로 1958년, 태국은 **쁘레아비헤어** *Preah Vihear* 지역을 침범해 점유하였고, 남베트남은 **스퉁뜨렝** *Stung Treng* 지방을 침범하였다. 게다가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태국과 남베트남을, 중국은 북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다. 만약 전쟁이 터지더라도 한다면, 캄보디아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에 휩쓸리거나 전쟁터가 될 터였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영토를 보전하고 안전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하누크가 선택한 해법은 인접국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시하누크는 1956년 중국을 방문하여 북베트남의 위협에 대한 중국의 보호를

약속 받았고, 1958년에는 중국과 미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양국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두 강대국이 시하누크 국왕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달랐다. 중국은 늘 적극적인 태도로 지원을 약속했던 반면, 미국은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가입을 거부한 채 비동맹운동에 참여하여 공산국가들과 교류하는 시하누크가 못마땅했다. 태국과 남베트남은 시하누크를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기 까지 했는데, 실제로 태국의 경우 ‘방콕 계획’으로 알려진 시하누크 암살 작전을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남베트남의 정보기관은 쿠데타를 사주하다 발각되었다. 폭발물이 왕궁으로 배달되어 폭발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 역시 남베트남의 소행으로 추정되었다. 시하누크는 이 일련의 사건 모두가 미국의 사주 아래 이루어진 일로 의심하였다. 미국의 원조 거부는 이러한 정황으로부터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1965년 시하누크는 미국과의 외교관계까지 완전히 단절하였다.

미국의 원조 중단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캄보디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국방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던 군사원조가 중단되자 군부가 크게 반발한 것이다. 그간 좌우 동거에 불만을 품어 왔던 보수 우익 세력은 시하누크가 완전히 좌파로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시하누크의 권력에 도전하였다.

시하누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쩌면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인지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는 1966년 선거를 앞두고 이전과 달리 상쿰의 후보를 직접 선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상쿰에 대한 그의 장악력은 크게 약화되고 말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하누크는 정치 일선에서 한 발 물러선 듯 보였다. 목표로 삼았던 독립과 정치 안정을 이루었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모두 완수했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장기간의 격무에 지친 그는 당시 건강마저 그리 썩 좋지 않았다.

그러나 곧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여 시하누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농민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론놀^{Lon Nol} 정부가 이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경제적 불평등 또한 심화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축적되어 갔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소위 ‘베트콩’으로 알려진 베트남민족해방전선 전사들이 캄보디아 영토로 넘어왔다. 문화혁명 이후 중국과의 관계도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시하누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캄보디아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는 베트콩 부대를 몰아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3만 명에 불과한 캄보디아 군 병력을 전원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베트남 전사들을 몰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차라리 이를 묵인함으로써 북베트남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라도 더 낫다는 것이 시하누크의 판단이었다. 사실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베트남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친미 우익 세력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도록 시하누크에게 압력을 가했다. 중국의 원조가 중단된 상태에서 미국의 원조 재개 외에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시하누크는 다시 한 번 과감하게 모두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 즉 미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그 대가로 미군의 폭격과 민족해방전선 군대를 추격하여 미군이 캄보디아 영토로 진입하는 것을 용인키로 한 것이다. 시하누크가 내린 이 두 가지 상반된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 위험한 줄타기 외교, 국가적 신뢰를 파괴한 오락가락 외교라는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각도를 달리하여 당시 캄보디아가 처한 상황에서 보자면 이 이상 최선의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베트남전쟁의 양상으로 보았을 때 북베트남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곧 동맹을 의미하게 되어, 자칫 캄보디아 전체를 전쟁 속으로 끌고 들어갈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해 시하누크는 좌익과 우익 모두로부터 공격 받았고, 결국 1970년 3월 18일 쿠데타가 발발하였다. 론놀 총리와 시소왕 가문의 시릭 마따(Sirik Matak) 왕자는 의회를 소집하여 시하누크를 국가원수에서 해임하고 모든 권한을 박탈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이 소식을 접한 시하누크는 베이징으로 간 후 다시 한 번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로

망명하여 안락한 여생을 보내는 대신 론놀 정권에 맞서기로 선택한 것이다. 시하누크는 민족연합전선(FUNK, National United Front of Kampuchea) 결성을 공포하고 망명정부(GRUNK, Royal Government of the National Union of Kampuchea)를 수립한 뒤 론놀 정권에 대한 거국적 저항을 호소하였다. 그동안 비밀조직으로 움직이던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군대를 조직하여 무력 저항에 돌입하였다.

1973년 3월 시하누크는 국내 저항조직이 민족연합전선의 일원임을 널리 알리고, 이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방구를 방문기로 결심한다. 베트남에서 출발하여 8일간 호치민 루트를 따라 밀림 속을 이동하는, 그야말로 죽음을 담보로 한 여정이었지만 누구도 시하누크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해방구를 방문하고 난 후 베이징으로 돌아온 시하누크는 뉴욕 타임즈 인터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론놀 정권은 저항군을 소탕하는 데 전력을 집중했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의 폭정과 실정은 오히려 공산주의 세력의 힘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1975년 4월 17일, 결국 론놀의 크메르공화국은 무너지고 민주캄뿌져어(Democratic Kampuchea)가 수립되었다. ‘크메르루즈(Khmer Rouge)’로 알려진 공산주의 정권이다.

크메르루즈는 시하누크를 국가원수에 임명하였다. 그것이 자신의 지명도를 이용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하누크는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국내에서 크메르루즈가 벌이고 있던 광란에 가까운 파괴와 학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하누크는 귀국을 결심한다. 망명이라는 손쉽고 안전한 선택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조국을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자신의 운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 12월 31일 프놈펜에 도착한 시하누크는, 그러나 그 일말의 가능성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크메르루즈는 시하누크를 홍보용 꼭두각시로 이용할 뿐이었고, 그마저도 필요 없다고 판단되자 그를 왕궁에 가둬 버렸다. 시하누크는 그렇게 3년을 연금 상태로 지내다 1979년 1월 프놈펜이 베트남군에게 함락되기 직전에야 풀려나 중국으로 갈 수 있었다.



[사진 2]
시하누크(1983년)
출처: Wikipedia Commons



[사진 3]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시하누크의 동상
출처: [https://opendevelopmentcambodia.net/
topics/government/](https://opendevelopmentcambodia.net/topics/government/)

베트남은 크메르루즈의 학정으로부터 캄보디아를 구해 낸 해방군인 동시에 캄보디아 영토를 침략한 침략군이자 점령군이었다. 시하누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를 받아들였다. 캄보디아의 독립과 영토를 복원하는 일이었다. 1981년 연합전선 혼신뵙(FUNCINPEC)을 결성하여 세력을 결집한 시하누크는, 이듬해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까지 죽인 크메르루즈와 제휴하였다. 크메르루즈가 유엔(UN)에서 회원국 자격으로 캄보디아를 대표하고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크메르루즈를 지원하고 있던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로서는 영토 수복과 주권 회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를 두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지만,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뚜렷한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캄보디아의 독립과 영토 보전이라는 운명적 과제에 대한 헌신이다.

베트남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북베트남의 승리를 예견했던 시하누크의 탁월한 국제정치 감각과 판단력은 이번에도 정확하게 작동했다. 협상 외엔 베트남군을 철수시킬 방법이 없다는 판단 아래 시하누크는 끈질기게 베트남 측에 협상을 요구하였다. 1987년이 되자 꿈쩍도 않던 베트남이 협상에 응하였고, 마침내 1989년 베트남 군대는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시하누크는 이로부터 더 나아가 1991년, 내전을 종식하고 선거를 통해 캄보디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평화협정을 이끌어냈다. 같은 해 11월 시하누크는 12년간의 망명을 끝내고 귀국하였다. 돌아온 그는 협정에 의해 유일한 합법적 국가기구로 인정된 국가최고회의 의장으로서 1993년까지 캄보디아를 대표하였다. 1993년 총선을 거쳐 구성된 의회는 입헌군주제 헌법을 선택하고 시하누크를 국왕으로 추대하였다. 1941년 국왕으로 즉위한 지 53년,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 정치가로 변신한 지 39년 만에 시하누크는 다시 캄보디아 국왕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 후에도 시하누크는 상징적 국왕의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적 갈등과 파행을 봉합하는 중재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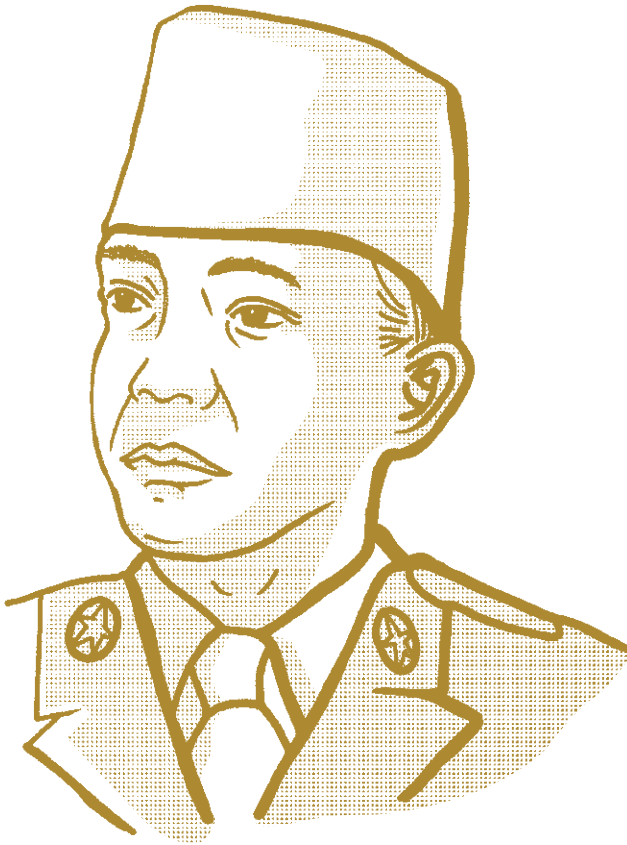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시하누크의 삶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부정적인 평가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경제 성장과 사회개혁에 실패했으며, 가장 엄중한 시기에 영화제작에 몰두하고 국가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 외교를 했다는 등의 비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이 전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 캄보디아가 처했던 현실—식민지배 하에서 피폐해진 경제와 왜곡된 사회구조, 강대국들에게 포위된 약소국의 한계, 누구도 결말을 예측할 수 없었던 베트남전쟁이 국경 너머에서 10년간 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하누크가 아닌 그 누구인들 그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시하누크의 선택이 항상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직면해야 했던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 모든 선택이 극히 제한된 여건 속에서 그가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캄보디아의 독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는 사실이다.

시하누크는 2004년 퇴위한 뒤 2012년 10월 15일, 휴양 차 방문했던 베이징에서 심장마비로 운명했다. 캄보디아 현대사를 써내려갔던 시하누크의 긴 여정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프놈펜 중심부 독립기념탑 옆에 세워진 시하누크 동상은 그가 바로 캄보디아 독립의 영웅임을 웅변하고 있다.

주요 연표

- 1922년 10월 31일 출생
- 1936년 리쎬 샤희루 로바(Lycée Chasseloup Laubat) 입학
- 1941년 5월 3일 국왕 즉위
- 1945년 3월 13일 독립 선포
- 1946년 1월 프랑스와 잠정협정 체결
- 1953년 2월 독립을 위한 ‘왕의 원정’ 시작
- 1953년 11월 9일 독립 선포
- 1955년 3월 2일 퇴위
- 1955년 4월 상쿰(Sangkum Reastr Niyum) 창설
- 1955년 총리 역임(-1960년)
- 1960년 국가원수 역임(-1970년)
- 1970년 3월 18일 쿠데타에 의한 실각
- 1970년 3월 23일 민족연합전선(FUNK) 결성
- 1970년 5월 5일 망명정부(GRUNK) 수립
- 1973년 2월 해방구 방문
- 1975년 4월 17일 크메르루즈 프놈펜 입성
- 1975년 12월 31일 귀국
- 1978년 12월 25일 베트남 침공
- 1979년 1월 6일 중국으로 망명
- 1981년 3월 연합전선(FUNCINPEC) 결성
- 1982년 6월 망명정부 수립
- 1991년 7월 국가최고회의 의장 취임
- 1991년 10월 23일 파리평화협정 체결
- 1991년 11월 4일 귀국
- 1993년 6월 14일 국왕 즉위
- 2004년 7월 6일 퇴위
- 2012년 10월 15일 사망



Sukarno

6 June 1901 - 21 July 1970

SUKARNO

Father of the Nation

KIM Young-sun, ASEAN-Korea Centre

Indonesia is a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260 million and a vast archipelago composed of 17,500 islands, which is equivalent to the size 9 times that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the world's largest Islamic country, but also Hinduism, Buddhism, Catholicism, Protestantism and Confucianism are recognized as official religions. On top of this, Indonesia is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with over 300 ethnic groups and over 600 local languages. The word 'diversity' indeed best describes its rich nature and it almost seems like a mystery that all these differences have been united as one nation.

Indonesia's independence came about after 350 years of Dutch colonial rule, three and a half years of Japanese occupation, and four years of devastating War of Independence. In this turmoil, the role and existence of Sukarno, who is regarded as the Father of the Nation, was absolute. As a nationalist, he struggled to gain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of Indonesia while uniting a nation. Every time Indonesia was stuck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licts, he was the only person that could overcome these situations. As a leader of the nation, Sukarno has founded 'Pancasila', the basic political ideology of Indonesia, and unified a country to gain independence. He also laid the foundation of 'free and active' foreign policy amid the Cold War.

As many leaders of the turbulent times did, Sukarno too met an unfortunate end leaving both achievements and controversies. However, the myth of Sukarno as a great leader of Indonesian independence will re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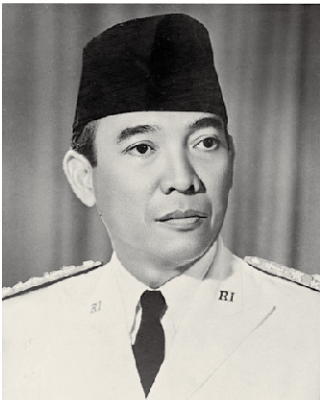
수카르노, 인도네시아의 국부(國父)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건국

인구 2억 6천만 명, 한반도 크기의 9배나 되는 광활한 영토가 17,5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국가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이면서도 힌두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유교 등 6개 종교를 공식종교로 인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300여개의 종족과 600여개의 지방언어가 존재하는, 그야말로 다종교·다종족·다문화 사회다. 이처럼 다양성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사회인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을 이루고 발전해 온 과정은 거의 불가사의에 가깝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은 350년간의 네덜란드 식민지배와 3년 반 동안의 일본 점령, 그리고 4년간의 처절한 독립전쟁을 거친 끝에 이루어졌다. 이 지난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국부 *Father of the Nation* 로서 추앙받는 수카르노의 역할과 존재는 절대적이었다.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던 그는 혼란과 격동의



[사진 1]
수카르노의 초상(1949년)
출처: Wikipedia Commons

시대 환경 속에서 국내의 통합을 기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자주를 쟁취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대결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기본 이념인 **판짜실라(Pancasila)**를 제창, 수립하였고, 오늘날의 영토 위에 하나로 통일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 또한 그는 전후 동서냉전의 격랑 속에서 ‘자주와 능동’이라는 인도네시아 대외정책의 방향과 기틀을 닦았다.

성장배경

수카르노는 1901년 6월 6일 동부 자바 수라바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자바 출신의 이슬람 신자였으나 어머니는 발리 출신의 힌두교 신자였다. 그의 원래 이름은 쿠스노 소스로드하르요 **Koesno Sosrodihardjo**이었으나, 어린 시절 질병을 이겨내면 개명하는 자바의 관습에 따라 수카르노로 이름을 바꾸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던 덕에 수카르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식 교육을 받은 그는 당시 아버지의 친구였던 이슬람연합 **Sarekat Islam** 지도자이자 민족주의자인 쪽로아미노또 **Tjokroaminoto**의 집에 거처하면서 그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았다. 이후 수카르노는 1920년, 그의 딸 씨티 우타리 **Siti Oetari**와 결혼함으로써 신분상승을 추구한다. 특히 그는 쪽로아미노또와 같은 정치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의 반식민주의적 입장은 이러한 성장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수카르노는 어릴 적부터 어학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 달변가였다. 기억력이 비상하여 네덜란드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독어, 영어, 아랍어, 일본어를 구사했으며, 인도네시아어 이외에 지역 토착어인 자바어, 순다어, 발리어까지 말할 수 있었다.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카르노는 서부자바 반둥공과대학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건축학을 공부하였다. 1926년에 학업을 마친 그는 건축사무소를 설립하여 건축설계 등의 사업 활동에 활발히 뛰어들기도 했다

만, 그에게는 정치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렬했다.

네덜란드 식민지배에 대한 독립투쟁과 유배생활

이미 어린 시절 족로아미노또를 통해 민족주의 이념을 접한 수카르노는 대학시절 인도네시아적 사회주의 정치이념을 구상하고 인도네시아인 학우들과 스터디클럽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1927년 7월 수카르노는 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국민당 *Partai Nasional Indonesia, PNI*을 창당하여 당의 지도자 자리를 맡았다. 당시는 인도네시아공산당 *Partai Komunis Indonesia, PKI*의 폭동이 진압되고 이슬람운동이 정치적으로 무력화되는 등, 네덜란드의 식민통치가 보다 강압적으로 치달던 상황이었다.

PNI는 인도네시아의 독립 쟁취를 목표로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세속주의를 주장하고 인도네시아의 자주성과 통합을 강조하였다. 1929년 말 PNI는 자바의 주요도시와 수마트라 빨렘방에 지부를 갖출 만큼 성장하였다. 수카르노의 뛰어난 연설과 지도력에 힘입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회원이 모임에 따라 PNI는 강력한 민족주의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은 수카르노의 반식민주의 활동과 세력 확장은 급기야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신경을 건드렸다. 결국 수카르노는 체포되었고, 1930년 12월, 4년형을 받고 투옥되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일련의 연설들이 인도네시아 국민은 물론 네덜란드와 네덜란드 식민정부 내 자유주의 세력들로부터도 큰 반향을 일으킴에 따라 수카르노는 1년 만에 석방되었다. 이후 수카르노는 전국적인 지도자로 부상하기에 이른다.

이 무렵 수카르노는 건축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민족주의 세력의 규합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그는 당 기관지에 많은 글을 기고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하여 *To Attain Independent Indonesia*”라는 제목의 기고문 시리즈는 네덜란드 식민정부를 몹시 자극했다. 결국 수카르노는 또다시 체포되어 1934년, 외판שמ인 플로레스섬의 엔데 *Ende*로 가족과 함께 유배생활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플로레스섬에 말라리아가 창궐하자 수카르노는 1938년 2월 수마트라섬 서부의 벵꾸루 *Bengkulu*



[사진 2]
수카르노와 팻트마와띠(1952년)
앞줄 수카르노의 왼쪽이 훗날
대통령이 된 망딸 메가와티
출처: Wikipedia Commons

로 보내졌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수카르노는 무함마디아(Muhammadiyah)의 지역 지도자인 하싼 딘(Hassan Din)을 알게 되었다. 그는 무함마디아의 종교클래스에서 강의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이때 하싼 딘의 15살 된 딸 팻트마와띠(Fatmawati)와 사랑에 빠졌다. 수카르노는 세 번째 부인이 된 팻트마와띠와 1943년에 결혼했는데, 둘 사이에 태어난 딸 메가와티(Megawati)는 2001년 제5대 대통령이 되었다.

일본의 점령과 인도네시아 독립선언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동남아 침공에 착수하였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는 서구 열강의 식민통치로부터 아시아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식민통치지역의 민족주의자들은 의구심 속에서도 일본에 커다란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1942년 3월 네덜란드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혁명 기운을 통제하면서 일본의 전쟁수행 정책에 대한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자와 이슬람 세력을 교묘히 이용하고자 했다. 인도네시아 민중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 민족주의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중의 지도자가 필요했고, 이에 일본은 수카르노에 주목했다.

한편, 수카르노는 일본에 대항하기보다는 일본을 이용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쟁취하는 데 유익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카르노는 일본의 전쟁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노무자의 강제징용과 농작물의 징발에 협조하는 등 일본의 점령정책에 적극 협력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할 것을 일본 측에 계속 요구하였다.

1945년 3월, 수카르노 등 온건한 중도 민족주의자들이 주축이 된 인도네시아독립준비조사위원회(BPUPKI)가 구성되었다. 6월 1일 행한 역사적 연설에서 그는 향후 독립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이 될 5개 원칙인 뽀짜실라를

제창하였다. 뻘짜실라—최고신에 대한 믿음, 인도주의, 인도네시아의 통합, 민주주의 및 사회정의—는 6월 22일 자카르타 헌장 *Piagam Jakarta*에 포함되어 국내외에 선포되었고, 8월 17일 독립 선언 후 공포된 45년헌법 *UUD-45*의 전문에도 수록되었다.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발표했지만 아직 연합군이 들어오지 않은 인도네시아에는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였다. 혼란과 충돌을 두려워한 수카르노가 주저하고 있는 사이, 즉각적인 독립 선포를 원하는 젊은 세대 지도자들이 수카르노와 핫타 *Muhammad Hatta*, 훗날 부통령이 될 납치하여 독립선포를 강요하였다. 마침내 수카르노는 8월 17일 아침 자택에서 핫타가 동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

네덜란드의 재점령 기도와 독립전쟁

수카르노와 핫타를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가 출범했으나 인도네시아가 완전한 독립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더 험난하고 처절한 투쟁의 기간을 거쳐야 했다.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는 모두가 조속한 독립을 희구했지만 각기 다른 이념과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350년의 옛 영광을 회복하려는 네덜란드의 재점령 기도를 어떻게 분쇄할 것인지는 지난한 과제였다. 이러한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수카르노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할 때마다 갈등과 대결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다.

수카르노는 급진적인 혁명보다는 국제적인 인정과 지지 하에 질서 있는 독립을 완수하고자 했다. 일본 점령 시 일본에 협력했던 전력이 있고 국내 다양한 세력의 강렬한 욕구들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수카르노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혁명세력을 대표하는 사흐리르 *Sjahrir* 총리를 내세우는 전략을 취했다. 당시 수카르노 공화국정부는 국내적으로 급진 혁명세력, 이슬람세력, 지역세력 등의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 확고한 통치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영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 역시 미온적이고 극히 한정적이었다.



[사진 3]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
독립 선언(1945년 8월 17일)
출처: Wikipedia Commons



[사진 4]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수카르노(1956년)
출처: Wikipedia Commons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합군의 점령책임은 영국이 맡게 되었다. 1945년 9월 중순이후 영국군이 속속 진주하게 되는데 곳곳에서 인도네시아 혁명군과의 무력충돌이 점점 확산되어 양측에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했다. 이에 영국군은 인도네시아에서 점차적으로 철수했고, 반면 네덜란드의 점령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네덜란드인에 의한 사흐리르 총리 암살 기도 등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수카르노는 1946년 1월 자카르타를 떠나 족자카르타로 피신한다. 이후 족자카르타는 1949년 12월 독립전쟁이 종료되어 수카르노가 자카르타로 귀환할 때까지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남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지배를 위해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 구성을 집요하게 밀어붙였다. 이에 양측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정부는 자바, 수마트라, 마두라 등 세 지역에서만 실질적 정부가 되고, 공화국정부가 연방의 하나의 주(州)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합중국을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에 합의한다. 하지만 이 협정안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비준 전망은 희박했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는 공화국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1947년 7월 대대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고, 유엔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 협상에 의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네덜란드는 공화국정부가 혼란에 처해 있는 사이 점령지역에서 연방 결성계획을 추진해갔다. 족자카르타 지역을 인도네시아공화국으로 하고, 6개의 자치국과 9개의 자치지역으로 하는 연방안을 제시했다. 1948년 3월, 네덜란드 대표인 반 목 *van Mook*은 인도네시아 연방 준비를 위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임시정부의 탄생을 공표하였다. 그의 목표는 1948년 말까지 인도네시아합중국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인구팽창과 식량부족, 인플레이션 등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이슬람세력들은 공화국정부에 반발하여 이슬람국가 건설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소비에트식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공산당 *PKI* 세력들은 공화국정부군과 전면전을 불사했다. 수카르노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공산당의 마디온 *Madiun* 반란은 공산당 최고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1949년 9월 진압되었다.

마디운사건은 인도네시아 혁명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군부는 강화되었고, 군부와 공산당^{PKI}사이에는 적대감이 형성되었다. 특히 미국은, 당시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공화국정부가 공산당 반란을 진압한 이 사건을, 공화국 정부가 반공세력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연방제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자 네덜란드는 1948년 12월, 공화국정부에 대한 최후의 군사공세를 감행하여 족자카르타를 비롯하여 자바와 수마트라의 주요도시들을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카르노와 핫타 등 지도자들이 대거 체포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유엔과 미국은 단호하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유엔안보리는 네덜란드에 대해 인도네시아에 주권을 완전히 반환토록 요구했고, 미국은 네덜란드에 대한 마샬플랜^{Marshall Plan} 원조를 중단하겠다고까지 압박했다.

결국 네덜란드는 이에 굴복, 1949년 12월 27일 이리안 자야^{Irian Jaya}, 서파푸아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대한 주권을 인도네시아에 공식 이양하였다. 이날 수카르노는 족자카르타에서 자카르타로 귀환하여, 네덜란드 총독 관저에서 하나로 통일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으로서 연설을 하였다. 총독관저는 즉각 독립궁^{Merdeka Palace}으로 개칭되었다.

의회민주주의의 경험과 교도민주주의

독립을 선언한 수카르노 대통령은 공화국잠정헌법^{UUDS-50}을 통해 의원내각제를 도입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다당제 의회제도를 그대로 이식한 것이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정치적 토양이나 경험이 갖추어져 있지 못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1957년까지 7년간 6개의 내각을 거치며 대립과 혼란으로 점철된 의회민주주의를 경험하였다.

헌법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카르노는 실질적으로 독자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혼란의 위기 때마다 그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여갔다. 수카르노는 제반 정치세력들을 교묘하게 조정했고, 상징 조작에 능숙하여 대중적 영향력이 대단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인에게 국가의 자주성과 존엄, 믿음과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이런 이유로 수카르노의 경쟁자들마저도 수세에 몰리면 수카르노에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립 후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난립하였다. 제각기 불만과 욕구를 분출하는 정당들의 난립으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특히 이슬람,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급진 민족주의 세력들 간에는 쉽게 타협하거나 양보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들이 내재해 있었다. 이에 더하여 군부와 지역토착세력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1955년 9월, 28개 정당이 참여하여 실시된 인도네시아 최초의 총선거에서 어느 정당도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카르노는 1956년 3월, 의회 개원 연설에서 교도민주주의 *Guided Democracy*를 제창하였다. 서구식 의회민주제도는 인도네시아에 맞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전통방식인 ‘고똥로용’ *gotong-royong*, 상부상조와 ‘무샤와랏’ *musyawarat*, 협의를 통한 합의에 근거하여 지도자의 교도에 따르는 방식의 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수카르노는 정당제도의 폐지를 원하였다. 이에 수카르노와 입장이 어긋나기 시작한 핫타는 1956년 12월, 부통령직을 사임하고 만다.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와 정당 해산 주장은 인도네시아 정국을 더욱 혼란으로 몰아갔고, 결국 수카르노는 1957년 3월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처럼 혼미한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1958년 2월,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에 반대하여 이슬람세력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란군정부 *인도네시아 공화국 혁명정부, PRRI*가 수마트라에 수립됐다. 이들은 수카르노의 친 공산당 노선의 종식과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요구하였다. 반란군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등 미국이 반란군정부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결국 PRRI의 반란은 군부에 의해 단호하게 진압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계엄령하의 군부는 더욱 강력해졌다. 이처럼 군부가 급부상함에 따라 수카르노로서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공산당 *PKI*과의 연대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수카르노는 교도민주주의의 구축을 위해 1959년 7월 대통령령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45년헌법을 복원시켰다. 이어 교도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정치선언 **Manipol**에 수카르노의 5개 국정목표—45년헌법, 인도네시아 사회주의, 교도민주주의, 계획경제, 인도네시아의 주체성—를 포함시킨 **Manipu-USDEK**를 새로운 혁명을 위한 국가이념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그는 교도민주주의의 통치체제로서 **나사콤** **NASAKOM**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민족주의 및 이슬람, 공산주의 세력 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동 비동맹회의와 반제국주의 자주외교

치열한 독립전쟁과 투쟁을 통해 독립을 이룩한 수카르노는 ‘반제국주의’와 ‘독립과 능동’이란 기본원칙에 따라 외교정책을 수행하였다. 당시 동서 냉전체제하에서 ‘독립과 능동’이란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국내의 지지기반을 어느 정도 다진 수카르노는 국제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공세적이고 때론 공격적인 반제국주의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이러한 강경한 대외정책은 국제무대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성과 존엄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동시에 국내 각 세력들을 통합하고 국민경제를 보호하려는 국가적 목표와도 긴밀히 연계되는 것이었다. 수카르노가 의회 민주주의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교도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수카르노의 국내외 정책들은 급진화하기 시작했다.

수카르노는 1955년 4월 반동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29개국의 최고 위급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동맹운동의 초석이 된 제 1회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카르노는 기존 국제정치질서에 대하여 신생국가들 **New Emerging Forces**이 중추를 이루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1961년 수카르노는 이집트의 나세르, 인도의 네루,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등과 함께 비동맹운동 **Non-Aligned Movement, NAM**을 창설하였다. 이어 1965년 8월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수카르노는 반제국주의 공동전선을 위한 ‘자카르타-프놈펜-하노이-베이징-평양’을 잇는 축선을 구축할 것을 제창하였다.

한편, 네덜란드가 1960년 초 이리안 자야에 독립정부를 세우려 기도하자, 수카르노는 1960년 8월 네덜란드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이리안 자야 해방투쟁을 선언하였다. 수카르노에게 이리안 자야 해방은 반식민주의 투쟁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목표였다.

수카르노는 당시 동서 양 진영의 각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중국과 소련에 접근하여 막대한 지원을 받았고, 인도네시아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 정부도 인도네시아에 원조를 제공했다. 수카르노는 1956년 방미 시 미국 상하 양원 합동위에서 연설하는 등 환대를 받기도 했다.

인도네시아가 이리안 자야 해방을 위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1961년 유엔은 네덜란드의 이리안 자야 양도를 결정하고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였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적극 중재에 나서, 1963년 5월 이리안 자야는 마침내 인도네시아에 공식 반환되었다. 이리안 자야 해방은 하나로 통일된 인도네시아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에 수카르노의 지도력은 한층 더 부각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된 수카르노의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된다.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안이 제시되자 수카르노는 이를 영국의 신식민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였고, 인도네시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피선되자 인도네시아는 1965년 유엔에서 탈퇴하였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인터폴(Interpol) 등으로부터도 탈퇴하였다. 수카르노의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 강경노선은 이처럼 인도네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9.30 사태와 수카르노의 종말

수카르노가 도입한 교도민주주의의 나사콤 체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정치구조였다. 교도민주주의를 뒷받침한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더욱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고, 이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수카르노는 공산당에 크게 의존하였다. 수카르노의 후원 아래 공산당은 더욱 기세를 떨쳐, 급기야 급격한 토지개혁과 아울러 노동자와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제5군의 창설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군부와 공산당의 대결은 더욱 극심해졌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에 더하여 당시 인도네시아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또한 수카르노의 반제국주의 정책이 극에 달하면서 정치·경제적 혼란과 외교적 고립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5년 10월 1일 새벽, 수카르노를 지지하는 소수의 장교들이 육군총장을 포함 군 고위인사 6명을 납치, 살해하는 쿠데타를 시도하였다. 군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공산당 세력들이 수카르노의 후계를 군부가 주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쿠데타는 당시 전략군 사령관이었던 수하르토 **Suharto** 소장에 의해 하루 만에 전격 진압되었다.

수카르노는 재기를 위해 군 인사 및 내각 개편을 시도하였으나 대학생들의 격렬한 데모가 이어지는 등 성난 민심은 수카르노에게서 등을 돌렸다. 결국 1966년 3월 11일, 수카르노는 수하르토에게 전권을 이양하였고, 수하르토는 45년헌법과 건국이념인 **빠짜실라**를 기반으로 한 신질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천명하였다. 또한 수하르토는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9.30 사태에의 개입과 관련 1967년 8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수카르노는 1970년 6월 21일, 69년간의 격랑의 생을 마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 수카르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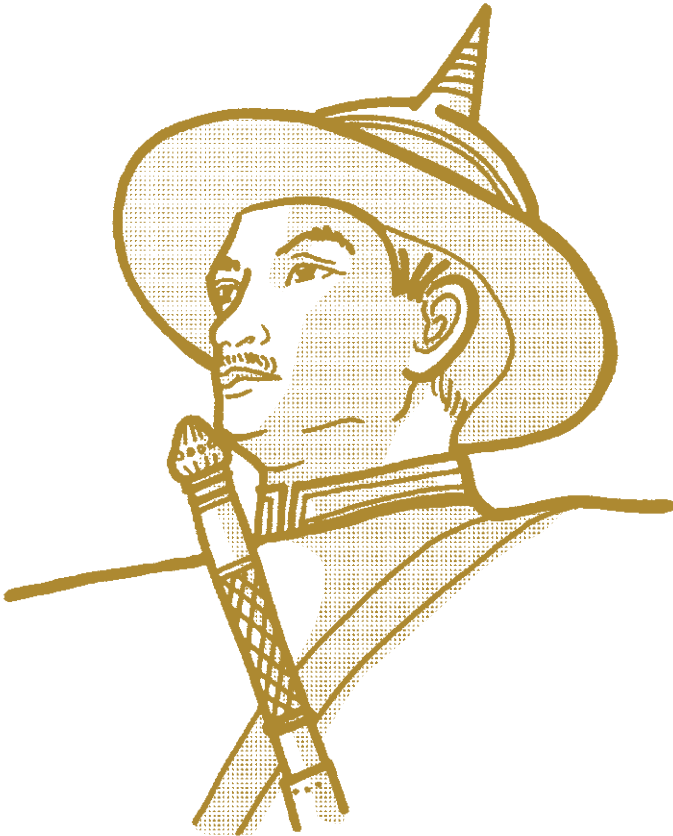
수카르노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배와 일본의 점령에 대항하여 반식민주의와 반제국주의, 민족주의를 고양함으로써 오늘날의 영토위에 하나로 된 국가, 정부 그리고 국민의식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그가 제창한 **빠짜실라**는 헌법 전문에 수록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가이념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격동기의 여러 지도자들이 그러하

였듯이 수카르노는 많은 공과 아울러 과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통합과 독립을 이룬 건국의 아버지, 민족의 지도자로서 수카르노의 신화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주요 연표

- 1901년 6월 6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출생
- 1926년 반둥공과대학(Technical Institute of Bandung) 졸업(건축학)
- 1927년 7월 인도네시아국민당(Partai Nasional Indonesia, PNI) 결성
- 1928년 10월 28일 청년의 맹세(Sumpah Pemuda)
- 1942년 3월 일본, 인도네시아 점령
- 1945년 6월 1일 수카르노, 뽀짜실라(Pancasila) 제창
- 1945년 6월 22일 뽀짜실라, 자카르타현장(Piagam Jakarta)의 국가기본이념으로 채택
-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선언
- 1945년 8월 18일 45년헌법(UUD-45) 공포
- 1947년 7월 네덜란드의 1차 군사행동
- 1948년 9월 공산당의 마디운(Madiun) 반란
- 1948년 12월 네덜란드의 2차 군사행동
- 1949년 12월 27일 네덜란드, 주권 공식이양.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취임
- 1950년 8월 17일 공화국 잠정헌법(UUD-45), 의회민주주의 도입
- 1955년 4월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동회의)
- 1955년 9월 의회 총선거
- 1956년 3월 수카르노, 의회 개원연설에서 교도민주주의(Guided Democracy) 주장
- 1956년 12월 핫타 부통령, 교도민주주의에 반발 사임
- 1957년 3월 계엄령 발령(-1963년)
- 1958년 2월 수마트라 반정부세력(PRRI) 반란
- 1959년 9월 45년헌법으로 복귀, 국회해산
- 1960년 나사콤(NASAKOM) 체제 주장
- 1960년 8월 네덜란드와 단교
- 1963년 수카르노 종신대통령 추대
- 1963년 1월 말레이시아연방 창설 반대

- 1963년 5월 1일 네덜란드, 이리안 자야 인도네시아에 반환
- 1965년 1월 유엔 탈퇴
- 1965년 8월 '자카르타-프놈펜-하노이-베이징-평양' 축선 구축 선언
- 1965년 9월 30일 9.30 사태 (30 September Movement)
- 1966년 3월 11일 수하르토 장군에게 권력이양
- 1967년 3월 12일 수카르노, 보고르 대통령궁에 연금
수하르토 대통령 대행 임명
- 1970년 6월 21일 수카르노, 육군병원에서 서거



Chao Anouvong

7 February 1805 - 12 November 1828

CHAO ANOUVONG

A National Hero, The Last King of Vientiane, of the Resistance Movement against Thai Rule

AHN Jong Yang,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ao Anouvong¹⁷⁶⁷⁻¹⁸²⁹, led the Lao rebellion¹⁸²⁶⁻²⁸ as the last monarch of the Kingdom of Vientiane. Anouvong succeeded to the throne in 1805 upon the death his brother, Chao Inthavong, who had succeeded their father, Phrachao Siribounyasan.

In 1779, following the fall of Vientiane to the army of Taksin of the Thonburi Kingdom, the city was looted but was spared destruction. However, the Emerald Buddha and several other important Buddha images were taken to Thonburi, and the sons and daughter of King Siribunyasan were taken as hostages, along with several thousand Lao families, who were resettled in Saraburi, north of the Thai capital. Siribunyasan had three sons, who were all to succeed him as king of Vientiane – Nanthasen, Inthavong, and Anouvong.

Inthavong died in 1804, and Anouvong succeeded him as the ruler of Vientiane. However, by 1813 he had begun a series of religious and symbolic acts which remain highly controversial. Anouvong called a great council of the sangha, only the third ever held in Laotian history, and it was decided that a new Emerald Buddha would be carved. Anouvong ordered repairs on the Ho Phra Kèò, and also ordered several new temples to be established and dedicated to the Emerald Buddha.

In 1819 Anouvong rushed to suppress a rebellion in the Kingdom of Champasak. Anouvong's son Nyô led an army south from Vientiane and easily suppressed the uprising. Rama II of Siam appointed Nyô the new ruler of Champasak. Anouvong had succeeded in uniting two of the three Lao kingdoms under his control.

By 1826 Anouvong was actively making military preparations

for rebellion against Siam's rule. In December 1826, Anouvong's rebellion began with an army of 10,000 men. However, his most serious miscalculation was in the disparity of military power between Siam and Laos. Siamese strength and modern arms were greater than Anouvong had imagined, and his armies continued to march towards Vientiane. They defended the city for five days, as Anouvong fled his life towards the border with Vietnam. But he was betrayed and handed over to the Siamese. He was executed in 1828.

Modern Lao nationalist movements have turned Anouvong into a hero, even though his rebellion caused the end of the kingdom of Lan Xang, the destruction of Vientiane, and a permanent division of the Lao people between the country of Laos and the Lao-speaking provinces of northeastern Thailand. Nevertheless, his rebellion is regarded as the point at which Lao nationality and identity solidified.

짜오아누웁: 라오스 위양짠의 마지막 국왕, 태국과의 독립항쟁의 영웅

안종량, 부산외국어대학교

생애

아누웁 Anouvong의 공식 호칭은 ‘통치자’라는 뜻의 <짜오>를 더하여 ‘짜오아누웁 라오어: ເຈົ້າອານຸວົງ, Chao Anouvong’으로 칭한다. ‘짜오아누 Chao Anou’라고도 불린 그의 비문에는 싸이아 쎄타티랏 5세¹ 1767년-1828년, 재위 1805년-1828년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비문에 새겨진 짜오아누웁의 호칭은 위양짠 Vientien이 사실상 식민지의 위치에 있었으며 명목상이나마 독립 왕국의 왕도로서 지위를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비문에는 아누웁의 이름이 8가지로 새겨져 있다.

아누웁은 라오스 위양짠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태국 싸얌 Siam 왕국¹의 라오스 지배에 대항한 아누 전쟁 혹은 아누 반란^{1826년-1828년}을 이끈 지도자이다.

라오스는 종족, 언어, 문화, 풍습 등 여러 면에서 태국과 비슷한 나라이다. 하지만 자주독립 국가에 대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했던 라오스는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끼인 채 끊임없이 안위를 위협 받아왔다. 이에 라오스는 태국과 비슷한 제3의 세력을 찾아 의지하고 태국과 세력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1779년, 태국 툰부리 왕국의 딱싌 Taksin 1767년-1782년 왕은 짜오프라야 짜끄리에게 라오스 위양짠을 정벌케 하여 속국으로 만들었다.² 라오스 왕도 위양짠은 툰부리 군대에 함락되었고, 에메랄드 불상을 비롯한 중요 보물들이 약탈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씨리분야짠 싸이아 쎄타티랏 3세 왕의 아들과

1 태국은 국호를 라마 4세(1851년-1868년) 때부터 싸얌(시암, Siam)으로 부르다가 피분송크람 정부인 1939. 6. 24에 태국(쁘라뎃 타이)으로 바꾸었다.

2 딱싌 왕의 부하였던 짜오프라야 짜끄리는 1782년 툰부리 왕국의 딱싌 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즉위하여 라마 1세라 칭하고 랫따나꼬싌 왕조를 세우고 왕궁을 툰부리에서 방콕으로 천도하였다. 그래서 그의 성을 따서 짜끄리 왕조, 혹은 왕궁이 방콕에 있어 방콕 왕조라고 칭하기도 한다. 짜오프라야는 귀족 중 가장 높은 직책에 해당하는 호칭이다. 현재 짜끄리 왕조는 라마 10세(2016년-현재)가 즉위하고 있다.



[사진 1]
짜오아누웁 공원에 세워진
짜오아누웁 동상(저자 촬영)

딸을 비롯한 수천 명의 라오인들이 태국에 인질로 잡혀갔는데, 이렇게 잡혀간 라오인들은 수도 톤부리의 북쪽에 있는 싸라부리에 강제로 이주되었다.

씨리분야싼 왕은 슬하에 세 명의 아들—난타센 Nanthasen, 인타웁 Inthavong, 아누웁 Anuvong—을 두었다. 이들 세 왕자는 모두 씨리분야싼 왕의 뒤를 이어 위양잔의 왕이 되었다. 1781년 아누웁의 부친인 씨리분야싼 왕이 서거하자, 태국 짝끄리 왕조 꺏따나꼬썌 왕조 혹은 방콕 왕조, 1782년~현재를 세운 라마 1세 1782년-1809년 통치는 회유책으로서 자신의 반대세력인 줄 알면서도 씨리분야싼 왕의 장자인 난타센 왕자를 방콕에서 위양잔으로 보내어 위양잔 왕으로 즉위시켜 왕위 계승을 인정하고 루엡파방을 통치하게 하였다.

짝끄리 왕조의 라마 1세 시기, 라오스 루엡파방의 왕은 버마 현 미얀마와 손잡고 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도모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짝끄리 왕조의 여러 왕들은 주변의 강대 세력이 라오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혹은 라오스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라오스에서 태국 짝끄리 왕조에 우호적인 왕이 통치하기를 희망하였다. 실례로 씨리분야싼 왕의 아들 3명이 모두 태국의 후원으로 위양잔의 왕이 되었고 에머랄드 불상이 위양잔에 다시 반환되었으며, 라오스의 왕족이 방콕에서 양자로 양육된 사실 등을 통해 라오스에 대한 짝끄리 왕조의 친 꺏 태국화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방콕에 있을 당시 아누웁의 심정과 지위는 태국 아유타야 시대 나레쑤원 왕이 왕자 시절 버마의 왕도 흥사와디에서 인질로 지냈던 처지와 같았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다.

후에 난타센 왕이 베트남의 띠이썌 Tay Son과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 나컨파놈의 라오 통치자와 반란을 모의하고 있음을 눈치 챈 라마 1세는 1794년 그를 체포하여 처형하였는데, 난타센 왕의 반란 모의에도 불구하고 라마 1세는 1794년 그의 동생인 인타웁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인타웁 왕이 서거하자 태국은 다시 그의 마지막 동생인 아누웁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라오스 위양잔 왕조와 태국 짝끄리 왕조의 관계는 짝끄리 왕조의 라마 2세 1809년-1824년 때 라오스에서 반란이 일어나 짹빠썌가 공격당하고 아누웁이 라마 2세의 군대를 도와 이를 공동 진압하기 전까지는 원만하게 유지되었다.

1805년, 형인 싸이아 쎄타티랏 4세 짜오인타웁, Chao Inthavong가 서거하자

당시 위양짠 왕국의 부왕으로 있던 아누윙은 짝끄리 왕조의 라마 2세^{1809년-1824년}의 도움으로 왕위를 이어받아 위양짠 왕국의 왕이 되었다. 당시 라오스의 란쌍 왕국은 세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중부의 위양짠^{란쌍 위양짠, 현재의 위양짠} 왕국 외에도 북부의 루엡파방^{란쌍 루엡파방} 왕국³, 남부의 째빠짜^{란쌍 째빠짜} 왕국 등, 각자의 통치체계를 갖춘 세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당시의 란쌍 왕국은 지배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짝끄리 왕조는 이들 간의 상호 반목을 조장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모두가 태국에 충성하게끔 하는 전형적인 ‘분할통치 *divide and rule*’ 정책을 통해 라오스를 지배하였다 (Wenk 1968: 94-100).

아누윙은 형 인타윙을 따라 방콕에 머무는 동안 버마와의 전투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그는 인타윙이 서거한 후 태국에 의해 왕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아누윙은 분열되어 있던 란쌍 왕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 란쌍 지역의 재통합 계획에 착수하였다.

활동

아누윙이 왕으로 즉위할 당시 위양짠 왕국은 태국의 짝끄리 왕조와 베트남의 응우옌^{Nguyen, 1802년-1945년} 왕조⁴ 모두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신세였다. 18세기 말에 이미 태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긴 했으나 위양짠과 베트남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중에 베트남 응우옌 왕조의 초대 황제 ^{재위: 1802년-1820년}가 된 응우옌푹아잉^{Nguyễn Phúc Ánh, 1762년 출생, 1820년 서거}이 방콕에 망명해 있을 당시 캄보디아의 왕을 그곳에서 만나

3 라오어에서 ‘란쌍(Lan Xang)’은 “백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의미로 태국어와 같은 의미이지만 태국어에서는 ‘란창(Lan Chang)’으로 발음한다. 즉 태국어의 [ch] 소리가 라오어에서는 [s] 소리값으로 발음되는 차이가 있다. 태국어에서 이중자음을 사용하나 라오어에서는 이중자음을 사용하지 않기에 ‘루엡프라방’은 태국어의 ‘프라(pha)’가 라오어에서는 ‘파(pha)’로 표기되고 발음되는 차이에 따라 라오어에서는 ‘루엡파방(Luang Phabang)’으로 읽는다. 안종량 2017, 기초라오어(디지탈교재),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청의용합학부 <http://edu.dseas.kr>

이 글에서 라오어, 태국어, 베트남어의 한글표기는 현지 표준어의 발음에 따른다.

4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이다. 떠이썬 왕조에 의해 멸망당한 광남 응우옌씨 중 응우옌푹아잉이 살아 남아 떠이썬 왕조를 타도하고 건국하였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쌓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태국의 지명으로 즉위한 위양짚의 왕 인타웁 Inthavong 또는 인타 왕 역시 1786년 방콕을 방문했을 당시 응우옌푹아잉을 만나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고 전해진다(최병욱 2007: 240).

홀 Hall에 따르면, 인타웁이 방콕에 갔던 것은 태국을 도와 버마와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였다(Hall 1958: 381). 응우옌푹아잉 역시 방콕 망명 중이던 시기 버마와의 전쟁에 수차례 참여했으나, 그렇다면 두 사람은 아마도 같은 전장을 누빈 동료로서 교분을 나누었을 것이다. 당시 응우옌푹아잉은 사이공에 근거지를 마련한 후 위양짚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위양짚은 이에 응하여 떠이썬 왕조 1778년-1802년의 배후였던 응에안 Nghê An 지역을 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의 내전 기간 내내 응우옌푹아잉의 군대를 지원하였다(최병욱 2007: 241).

일견 양국의 지도자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실상은 위양짚과 떠이썬의 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떠이썬은 위양짚에 조공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병력을 동원하여 위양짚을 공격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공격으로 위양짚은 함락되었고 약탈이 이어졌다. 이에 라오스 군대는 반격을 취하여 떠이썬의 군대를 물리쳤다(최병욱 2015: 236). 이때 포로가 된 떠이썬 군인들 대부분은 태국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이들 중의 일부는 다시 응우옌푹아잉의 병력으로 충원되었다.

이처럼 위양짚의 입장에서는 떠이썬에 적대적 감정을 가질 이유가 충분했고, 베트남 응우옌 왕조의 입장에서는 위양짚이 고마운 존재였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후 응우옌 왕조가 건국되고 난 후인 1819년, 베트남과 라오스 사이에는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베트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위양짚은 3년에 한 번씩 조공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나마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아누윙 왕이었다. 아누윙 왕은 통상 ‘짜오아누윙’ 왕이라 지칭되고 베트남 측 기록에도 ‘소아노 召阿努’라고 적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베트남 기록에서 ‘소 召’는 ‘짜오’에 해당하는 말로, 태국에서 ‘짜오’는 통일되기 전 각 지역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최병욱 2007: 241). 이러한 호칭의

변화는 18세기 말 태국의 지배를 받아 란쌍 왕국이 분열된 이래 위양짠의 통치자가 한 지역의 통치자인 ‘짜오’의 지위로 격하되었음을 말해 준다.

태국 짝끄리 왕조의 지원을 받아 왕위에 오른 까담에 집권 초기 아누윙은 친태국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한 한편으로 그는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태국을 견제하는 외교적 수완도 보였다. 그 결과 위양짠 왕국은 남부의 짬빠삭 왕국 지역을 재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부웬 고원 지역에서 태국 싸얌에 대항하여 반란이 일어났을 때 위양짠 군은 싸얌 군과 공동으로 이를 진압하였다. 라마 2세는 반란을 진압한 대가로 아누윙의 아들 ‘라차붓 요요왕자’를 짬빠삭 왕으로 즉위시켰는데, 이후부터 양국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아누윙의 아들이 짬빠삭을 지배하게 되면서 분리된 라오스의 세 왕국이 아누윙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건들을 통해 태국의 지배력이 약화되어감에 따라 라오스가 독립할 수 있는 조건은 무르익어 갔다.

아누윙은 이처럼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꾸준히 군비를 확충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마침 1824년부터 1826년까지 이어진 제1차 영국-버마 전쟁의 결과 전통적으로 버마의 태국 진출로였던 테나세림이 영국의 관할 아래 편입되고, 1826년 6월 20일 싸얌과 영국이 체결한 싸얌-영국 우호통상조약—버니 조약(Burney Treaty)—으로 이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던 싸얌이 상대적인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⁵ 아누윙은 이와 같은 당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정세를 이용하여 구 란쌍 지역의 완전한 자주독립 달성을 시도하였고, 1826년 마침내 짬빠삭과 함께 태국 짝끄리 왕조에 대항하는 전면전에 돌입하였다.

1827년, 아누윙은 싸얌령인 코랏분지 지역으로 진격하여 싸얌 동부/북동부의 주요 도시 나컨라차씨마를 점령하고, 이어 수도 방콕에서 108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중부의 싸라부리까지 진격해 들어갔다. 하지만 이 진격은 잠시에 그친 채 아누윙은 곧 물러서야 했다. 아누윙의 빠른 진격에 당황한 싸얌 군이 전열을 정비하여 대대적인 반란 진압—싸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나섰고, 결국 군사력의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한 위양짠 군은 싸얌 북동부에 위치한 우던타니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대패하여 와해되고

말았던 것이다. 기세에 힘입은 싸얌 군은 역으로 위양짠까지 진격하였고, 도시는 초토화되었다. 아누윙은 일단 베트남으로 도망쳤다.

위양짠이 점령되고 초토화되었지만 아누윙은 물러서지 않고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 다시 한 번 싸얌에 대한 반격을 계획하였다. 이 반격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아누윙이 이끄는 군대는 싸얌 군에 점령당한 수도 위양짠을 일시 탈환하였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위양짠은 싸얌 군의 재공격으로 다시 함락되고 말았다. 전쟁에서 패한 아누윙은 란쌍 지역 내 씨앙쿠앙 왕국(위양짠 왕국과 베트남 경계 지역에 존재했던 위양짠 왕국과 베트남의 속국)에 잠시 몸을 의탁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씨앙쿠앙 왕의 배반으로 아누윙은 싸얌 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포로의 몸이 된 아누윙은 방콕으로 끌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태국 싸얌 군의 목표는 16세기부터 라오스의 왕도였던 위양짠⁶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이었다. 위양짠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태국으로 강제 이주 당했다. 위양짠의 도시 지위는 4등급으로 격하되어 태국의 하위직 관료에 의해 통치되었다. 대신 위양짠에서 25km 거리에 있는 태국 북동부 지방도시 넝카이를 1등급 도시로 승격시켜 위양짠을 이에 편입시켰다(조홍국 2012: 421-422, <https://th.wikipedia.org/“เจ้าอนุวงศ์”>). 라마 1세가 돌려주었던 에머랄드 불상은 다시 방콕으로 옮겨졌다.

가장 많은 수의 라오인들을 식민 植民한 곳은 위양짠에서 남쪽으로 419km 거리, 방콕에서는 동쪽으로 261km 거리에 있는 메콩 서안의 코랏 고원 지대였다. 태국은 위양짠보다 방콕에서 더 가까운 이곳에 라오인들을 옮겨 관리하였다. 이는 동시에 인구가 희박하고 삼림이 우거진 이 지대를 개간하기 위한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코랏고원 지대에는 라오인들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었고, 타의에 의한 것이긴 했으며 그 결과로서 라오인들의 활동 범위는 급속도로 확대되었다.⁷ 이반스는 이를 ‘코랏고

5 1826년 버니 조약(Burney Treaty)을 시작으로 1855년에 태국이 외국과의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싸얌-영국 간 바우링조약(the Bowring Treaty)을 체결한다. 이 글에서 라오어, 태국어, 베트남어의 한글표기는 현지 표준어의 발음에 따른다.

6 위양짠은 1563년 미얀마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최초로 라오스의 수도가 되었다. 프랑스의 통치 기간 동안 위양짠은 행정구역상의 수도뿐만 아니라 독립 후 경제적 수도가 되었다.

원의 라오화(Laoisation'라 표현하기도 한다(Evans 2002: 30).

이 전쟁으로 인해 싸얌에 맞섰던 위양짠 왕국은 패망하여 싸얌에 편입되었고, 째빠씩 또한 사실상 싸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아누웁의 반란에 대항하여 싸얌에 협력하였던 루엡파방 왕국만이, 현실적으로는 싸얌과 베트남의 이중 속국의 지위에 있었지만, 라오 지역의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되었다. 태국과 치러진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라오스 전역은 라마 5세 1868년-1910년)가 프랑스에게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넘기기 전까지 태국의 속국으로서 지배당했다.⁸

태국으로부터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누웁이 군사력을 가다듬기 시작한 것은 1826년이였다. 당시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 아누웁이 태국을 공격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 당시의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누웁은 재위 초기부터 라오스의 통일과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누웁은 태국을 도와 여러 차례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발판으로 라마 1세부터 라마 3세 1824년-1851년)의 치세까지 신임을 얻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둘째, 아누웁은 라마 2세가 즉위한 후 발발한 버마와의 전쟁으로 인해 태국이 크메르에 베트남 세력이 미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⁹ 1813년, 베트남 군대의 크메르 주둔을 태국이 묵인하자, 이 사실을 안 아누웁은 태국의 세력이 약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주변 강대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가 위양짠 왕으로 책봉된 시기 베트남에 도움을 청하는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7 당시 태국의 북동부 지역(이싼)에 강제로 이주시킨 라오인의 수가 현재 1,9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7월 현재 라오스 인구는 7,126,706명이다.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119rank.html>

8 1899년 라오스가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면서 라오스에 대한 태국의 지배권이 프랑스로 넘어갔다.

9 라마1세의 도움으로 떠이썬(Tay-Son) 반란군으로부터 사이공을 탈환한 응우옌(Nguyen) 왕조의 응우옌푹아잉(Nguyen Phuc Anh, 1802년-1820년)은 라마 1세에게 조공을 보내어 속국의 예를 하였으나, 베트남을 통일하고 왕으로 즉위한 뒤 라마 2세 때부터는 태국의 속국인 크메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력으로 크메르의 도시를 점령했으며, 태국이 점령하고 있는 도시를 베트남에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라마 3세는 버마와의 전쟁이 평정되고 국가가 안정되자 그는 베트남 축출 정책으로 돌아서서 1833년-1847년 간 베트남과 오랜 전쟁을 감행하여 크메르에서 베트남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셋째, 아누웁은 방콕에서 본 태국군의 지휘관들이 아직 젊어 충분한 전쟁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태국 군대의 힘이 약하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당시 태국은 영국과 알력관계에 있어, 조만간 영국이 방콕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다섯째, 아누웁이 라마 2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위양잔에 돌아가기 전 라마 3세에게 과거 톤부리시대 때 태국 땅으로 강제 이주당한 라오인들과 궁중연극인들을 라오스로 데리고 가는 것을 요청하였으나 태국이 이를 거절당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었으리라는 점을 그 이유 중 한 가지로 들 수 있다.

베트남 측 기록에 따르면, 아누웁은 딸을 태국 왕에게 시집보낸 바 있고,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태국의 왕위 계승권자가 되었으나, 이후 태국 왕과 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한 왕자의 음모로 자신의 딸과 외손자가 살해된 데 대한 복수로서 전쟁을 결심하였다고도 한다. 이에 덧붙여 베트남 측 기록은 태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위양잔의 노력을 들고 있기도 하다. 태국 왕이 자신의 신하 한 사람을 아누웁의 지배 아래 있는 지역의 수장으로 봉했으나 아누웁이 그의 지위를 박탈한 일로 갈등이 불거졌을 때, 아누웁이 동원하고자 했던 휘하의 일곱 지역 통치자들이 이반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 내분에 태국이 개입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주장도 있다(최병욱 2015: 237). 두 가지 이유 모두 태국에 대한 반감과 관련되어 있다.

홀Hall은 태국이 영국을 자극하는 바람에 영국 함대가 곧 방콕을 공격할 것이라는 잘못된 보고가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한다(Hall 1958: 382). 이외에도 태국이 라오스에 군대를 출동시키면 이미 태국의 배후인 버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영국이 간섭할 것으로 기대했으리라는 주장도 있다(Stuart-Fox, Martin 1997: 15). 아누웁의 군대가 태국군 주둔지를 공격하여 5백여 명을 살해하자 태국에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1만여 명의 병사를 동원하여 위양잔을 공격하였다. 이 일로 아누웁은 베트남으로 망명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베트남 응우옌 왕조의 제2대 밍망 황제Minh M ng, 1820년-1841년)는 이에 응하여 아누웁에게 대군을 지원하였다.

베트남 군대와 함께 라오스로 돌아온 아누웁은 위양잔을 탈환하였으

나, 승리에 대한 아누웁의 욕심은 과했던 것 같다. 아누웁은 베트남군과의 충돌을 피해 메콩 너머로 퇴각해 있던 태국군을 단독으로 공격하였고, 일시 승리를 거두는 듯하였다. 하지만 전열을 가다듬은 태국군의 반격과, 또한 무력 충돌보다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베트남 측은 아누웁의 무모함에 염증을 느껴 지원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베트남 측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아누웁이 민심을 크게 잃어가고 있었던 것도 베트남이 이 전쟁으로부터 철군을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아누웁에 대한 지원을 끊은 베트남 측의 핑계일 수도 있겠으나, 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아누웁의 분투 흔적은 베트남 측의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평가

무모하게 태국에 저항하다 잡혀 죽임을 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라오스인들에게 아누웁은 태국의 지배에 저항한 위대한 지도자로서 칭송받고 있다. 베트남 측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태국뿐 아니라 베트남과의 관계 속에서도 왕국의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었다. 그는 선대로부터 시작된 베트남과의 우호적 관계를 그대로 계승한 위에, 최소 3년에 한 번씩 양측 사신이 왕래하는 것을 정례화하였다. 물론, 이는 태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동시대 캄보디아의 앙짠Ang Chan(출생 1792, 통치 1806-1834) 왕처럼 양국으로부터 동시에 왕으로서 책봉 받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라오스에 대한 방콕의 영향력을 제어하는데 있어 베트남의 후원은 불가결하면서도 충분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15세기에 베트남에 빼앗겼던 쩐닝Tran Ninh, 鎮寧 지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베트남 측에 계속 요구하기도 하였다. 난처해진 베트남 조정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며 이 요구를 회피하여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아누웁의 돋보이는 외교적 수완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루엡파방 및 치앙마이와 연계하여 태국에 대항하는 연합 전선을 구축한 시도 역시 비록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아올러 아누엣은 민심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한 왕으로서도 알려져 있다. 그의 재위 시기 건축된 왓싸깨(Wat Sisaket)은 ‘후기 라오 건축의 보석’으로 일컬어진다(Stuart-Fox, Martin 1997: 15). 아누엣은 동남아시아에서 약소국으로 전락한 라오스의 자주권 회복을 위해 분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정신적 토대로서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도자였다.

태국과의 전쟁에서 아누엣이 결국 실패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그가 베트남의 지원에 대해 지나치게 큰 기대를 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아누엣의 그러한 기대는 필시 베트남이 중요한 조공국 하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을 터이다. 그러나 이 시기 베트남의 명망 황제는 조공국보다는 영토 확장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아누엣을 버리면 조공국 하나를 잃게 되지만, 대신 쩐닝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면 이 손실을 만회하면서 부가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당시 명망 황제의 계산이었을 것이다. 아누엣을 돕는 대신 쩐닝을 다시 얻게 된 명망 황제가 “화살 한 개도 잃지 않고 쩐닝을 얻었다.”고 기뻐하였다는 ‘열전’의 기록을 통해(최병욱 2015: 238) 당시 베트남 측의 정세판단을 엿볼 수 있다.

베트남 측에서는 아누엣에 대한 지원으로 만약 라오스가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면 필시 그가 쩐닝의 반환을 요구하리라는 점을 계산했을 것이다. 아누엣은 강력하고 대담한 군사 지도자였으며, 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명망 황제는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아누엣은 태국 군과 싸우다 쩐닝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베트남의 지원을 호소하였으나 결국 실패한 채 1828년, 쩐닝의 라오 지배자인 너이(Noi)의 배신으로 붙잡혀 방콕으로 넘겨졌다. 방콕에서 그는 쇠창살로 된 우리에 갇혀 지내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진다. 베트남 측 기록에 따르면 아누엣의 서거 후 란쌍 왕국은 곧 멸망하고 말았다. 명망 황제는 배신자 너이를 사로잡아 수도로 끌고가 처형함으로써 아누엣에 대한 의리를 지킨 듯하였다. 실제로는 의리에서였다기보다는 쩐닝을 확실히 지배하기 위해 토착인 라오 지배자를 제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태국의 기록에서는 아누엣의 장례식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지만, 라오스 문헌에서는 태국에서 그의 장례가 장엄하게 치러졌다는 기록이



[사진 2]
왓씨삭켓(Wat Sisaket)
(사진 출처 참고문헌에 별기)



[사진 3]
빠뚜싸이-승리의 문.
프랑스 식민통치시기 개선문을
모방하여 건립(저자 촬영)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왕이 서거하면 탑을 지어서 유골을 모시는 것과 달리 태국은 아누웁에게는 탑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의 유골이 <왓아룬라차와라 람> 사원 계단 밑에 안치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다. 위양짠의 민속문학 자료에서는 그가 왕비에게 독약을 가져오게 하여 마시고 죽음을 맞았다고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그 후 라마 4세는 란쌍 위양짠 왕조를 복위시키기 위해 아누웁의 후손(여성)을 왕궁의 고위 후궁으로 임명하고, 다른 두 명의 남성을 북동부의 목다한과 우본라차타니를 다스리는 직급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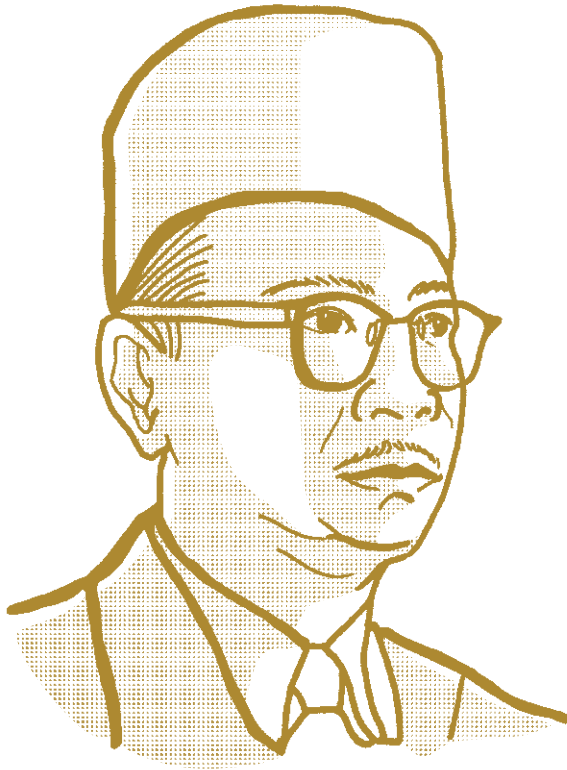
과괴된 루엡파방은 1899년 태국이 프랑스에게 라오스의 지배권을 넘긴 후 프랑스 지배 때 수도로 복구되지만, 전쟁의 결과로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는 태국 북동부 지역(이짠)으로 강제 이주된 라오인의 숫자가 현재 약 1,900만명에 달한다. 이 숫자는 2017년 7월 현재 라오스 인구가 7,126,706명인 것임을 감안할 때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누웁의 독립 전쟁에 대한 논의는 북동부 라오인들 중에서도 태국을 좋아하는 그룹과 라오스를 좋아하는 그룹 간에 알력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태국과 라오스 간의 관계를 민감하게 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2010년 라오스 정부는 위양짠 탄생 450주년 기념식에 맞추어 아누웁의 치적을 기리는 아누웁공원 [Chao Anouvong Memorial Park](#) 을 조성하고 동상을 세웠다. 아누웁이 독립을 위해 태국과 전쟁을 감행하고,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위양짠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대해, 라오스인들에게 아누웁이 태국과의 독립 항쟁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하더라도, 라오스 스스로 힘을 키우지 못하고 주변 상황이나 외세에 의존하여 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겠다.

주요 연표

- 1767년 짜오아누웁 출생
- 1778년 베트남 떠이썬 왕조(Tay Son, 1778년-1802년) 건국
- 1779년 태국 툰부리 왕국의 딱싌(Taksin 1767년-1782년) 왕
라오스 위양짠 정벌
- 1781년 아누웁의 부친 씨리분야썬 왕싸이야 쎄타티랏 3세 서거
큰 형인 난타썬(Nanthasen) 왕자가 위양짠(Vientien) 왕으로 즉위
- 1782년 태국 툰부리 왕조 멸망 후
짜끄리 왕조(랏따나꼬썬 왕조, 방콕 왕조, 1782년-현재) 건국
짜끄리 왕조 라마 1세(1782년-1809년) 즉위
- 1794년 난타썬 왕 반란 모의로 처형됨
- 1795년 난타썬 왕의 동생 인타웁(Inthavong, 1795년-1805년)이 왕으로 즉위
- 1802년 베트남 떠이썬 왕조 멸망 후,
응우옌 왕조(Nguyen, 1802년-1945년) 건국
응우옌푹아잉(Nguyễn Phúc Ánh, 1802년-1820년) 초대왕 즉위
- 1805년 둘째 형인 짜오인타웁(Chao Inthavong, 싸이야 쎄타티랏 4세)의 서거
짜오아누웁이 싸이야쎄타티랏5세로 즉위
- 1809년 짜끄리 왕조 라마 2세(1809년-1824년) 즉위
- 1819년 위양짠 왕국과 베트남 응우옌 왕조 외교관계 수립
- 1820년 응우옌 왕조의 제2대 밍망 황제(Minh Mạng, 1820년-1841년) 즉위
- 1824년 제1차 영국-버마 전쟁(1824년-1826년)
- 1824년 짜끄리 왕조 라마 2세 서거, 라마 3세(1824년-1851년) 즉위
- 1826년 싸얌-영국 우호통상조약, 버니 조약(Burney Treaty) 체결
짜오아누웁이 아들인 째빠썬 왕과 함께 짜끄리 왕조
상대로 독립전쟁 시작
- 1828년 짜오아누웁 전쟁 패배 후 포로로 잡혀서 처형됨
- 1833년 라마 3세 베트남과 전쟁(1833년-1847년)으로 크메르에서
베트남 세력 제거

1899년 라오스가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됨
라마 5세(1868년-1910년)는 라오스에 대한 지배권을
프랑스에 넘김



Tunku Abdul Rahman

8 February 1903 - 6 December 1990

TUNKU ABDUL RAHMAN

The Founding Father of Malaysia

HONG Seok-Joon, Mokpo National University

Tunku Abdul Rahman was chief minister of the Federation of Malaya(1955–1957), the first prime minister of an independent Malaya(1957–1963), and the prime minister of Malaysia(1963–1970).

A Malayan governmental figure since graduating from college, Tunku Abdul Rahman became his country's first prime minister and foreign minister after it gained its independence, continuing in that post when the federation of Malaysia was formed in 1963.

Tunku Abdul Rahman was born February 8, 1903, in Alor Setar, Kedah, in Malaya, a country then under British control. He was the twentieth child of Sultan Abdul Hamid Halim Shah and Che Manjalara, the sultan's fourth wife. In 1913, he went to study at Debsurin School in Bangkok, and in 1919, he was awarded a scholarship to further his studies at Cambridge University. After a lengthy trip from Singapore aboard a cargo ship, during which he contracted malaria, Tunku disembarked in the village of Little Stukeley, England. He graduated from Cambridge in 1925 and returned in 1926 for an honors degree in law. He sat for the bar exam in 1930 but failed to complete a section of the test and therefore did not pass on this first try.

In 1931, Tunku Abdul Rahman received an appointment as a cadet to the Kedah civil service and was later an assistant district officer in Kulim. In 1933, he passed the cadet's law exam on his first attempt, and finally, in 1939, he retook the English bar exam he had failed nine years before and passed. In 1949, he was called to the bar and was then named deputy public prosecutor in the Malayan Federal Legal Department, a position he left in 1951 to embark upon a political career.

Abdul Rahman became president of the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UMNO) and spearheaded the alliance between the

UMNO and the Malayan Chinese Association(1951) and that of the UMNO and the Malayan Indian Congress(1955). His Alliance Party won a sweeping majority in the election of 1955, and Abdul Rahman became the first chief minister of Malaya. In August, he used his first broadcast as chief minister to declare his determination in seeking independence from Britain without bloodshed.

In January 1956, Abdul Rahman led a mission to London to negotiate for Malayan independence, in the end securing immediate self-government for Malaya and the promise of independence by August 1957. That promise was kept, and Abdul Rahman became independent Malaya's first prime minister (a post he would retain when the Federation of Malaysia, which consolidated the countries of Malaya, Singapore, Sabah, and Sarawak under one umbrella, was formed in 1963). At midnight on August 30, he stood at the flagpole in Merdeka Square, in Kuala Lumpur, when the Union Jack was lowered for the last time and the new Federation flag was raised.

In September 1970, with his power slipping and Singapore gone from the Federation for five years, Abdul Rahman relinquished his post as prime minister. He died in 1990 at the age of 87.

툰쿠 압둘 라만: 말레이시아 독립의 영웅, 건국의 아버지

홍석준, 국립목포대학교

생애

툰쿠 압둘 라만(Tunku Abdul Rahman)은 말레이시아의 초대 총리이다. 본명은 툰쿠 압둘 라만 푸트라 알 하지 이브니 알마르hum 술탄 압둘 하미드 할림 샤 Tunku Abdul Rahman Putra Al-Haj ibni Almarhum Sultan Abdul Hamid Halim Shah이지만, 통상 약칭인 ‘툰쿠’로 불린다. 말레이시아가 독립한 직후 집권한 그의 이름 앞에는 종종 말레이시아 독립의 아버지 Bapak Kemerdekaan 또는 말레이시아의 아버지 Bapak Malaysia라는 수식어구가 붙곤 한다. 툰쿠 압둘 라만은 말레이시아가 독립한 1957년 초대 총리로 취임하였으며, 1970년까지 직을 유지하였다.

툰쿠 압둘 라만은 1903년 2월 8일, 당시 영국령이던 말라야(Malaya) 끄다(Kedah)주의 알로르 스파르(Alor Setar)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압둘 하미드 할림 샤(Abdul Hamid Halim Shah)는 끄다주의 제25대 술탄이었으며, 그의 어머니 체만잘라라(Che Manjalara)는 태국계로, 아버지 압둘의 네 번째 부인이었다. 툰쿠 압둘 라만은 두 사람 사이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7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툰쿠 압둘 라만은 16세의 나이에 영국으로 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하지만 졸업 후 영국에서 취직하는 데 계속 실패하자 말라야(Malaya)로 돌아왔다. 말라야로 돌아와 말레이시아의 농촌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던 그는 당시 농민들이 직면해 있던 문제들을 알게 되었다.

영국 식민지배 하에 있던 말레이시아에서 그는 유일한 말레이인 관료였다. 당시 말레이인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그는 종종 영국 관료들과 다툴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하에서 자신의 뜻대로 일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에 따라 다시 모국으로 돌아온 그는 말라야의 독립을 위한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하였다. 일본 점령시기에도 그는



[사진 1]
툰쿠 압둘 라만
(1960년)



[사진 2]
1957년 8월 31일, 머르데카 광장에서 "Merdeka!"을 외치는 툰쿠 압둘 라만의 모습.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장면 중 하나로 유명한데, 이 자리에서 툰쿠 압둘 라만은 "Merdeka!"를 무려 7번이나 외쳤다고 한다.

일제에 대항하여 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종전 후 툰쿠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완수한 후 말라야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을 당시 말라야에서는 민족주의 움직임이 왕성하게 일어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중심에 다토 온 자파르 Dato Onn Ja'afar가 이끌던 통일말레이국민조직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이하 UMNO이 있었다. 1950년대 초 툰쿠는 UMNO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이후 UMNO의 끄다주 지부장 직을 거쳐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1954년 툰쿠는 평화적 독립을 위한 협상을 위해 영국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방문에서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왔다. 하지만 이듬해 치러진 총선에서 UMNO가 승리하여 초대 총리로 선출된 툰쿠는 같은 해 협상을 위해 사절단을 이끌고 런던을 재방문하였다. 이 방문에서 그는 마침내 말라야 자치를 보장하고 1957년 8월까지 독립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영국으로부터 받아내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957년 8월 31일, 말라야의 독립이 선언되었다.

오랜 식민통치 끝에 마침내 유니언 잭 Union Jack, 영국 국기이 내려지고 잘루르 거밀랑 Jalur Gemilang, 말레이시아 국기이 올려졌다. 툰쿠 압둘 라만은 머르데까 Merdeka 광장에 모인 군중 속에서 머르데까 Merdeka, 독립!를 외쳤다. 이후 머르데까 광장은 말레이시아 독립의 상징이 되었다.

툰쿠 압둘 라만은 독립 말라야 연방의 초대 총리로 취임하였다. 이어 1959년 총선 독립국가로서 첫 총선과 1964년 총선에서 UMNO가 압승을 거둠에 따라 툰쿠는 장기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1961년 말레이시아 연방국 계획을 제안한 툰쿠는 1963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라왁 Sarawak, 사바 Sabah, 싱가포르 Singapore, 1965년 탈퇴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를 건국하였다. 또한 그는 1967년 아세안을 결성하기도 했다.

1970년 총리직을 사임한 후 다시 정계에 복귀하지 않고 지내던 그는 1990년 향년 87세를 일기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주요 활동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낸 툰쿠 압둘 라만은 말레이시아 ‘건국의 아버지’, ‘독립의 영웅’으로서 독립 말라야의 초대 총리가 되었다. 독립 초기 툰쿠 압둘 라만이 해결해야 했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민족 간 충돌과 대립이었다. 그의 정치 노선은 말레이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세 민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툰쿠는 자신이 이끄는 통일 말레이국민조직 UMNO와 말레이시아화인협회 Malaysian Chinese Association, MCA, 그리고 말레이시아인도인의회 Malaysian Indian Congress, MIC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전선 Barisan Nasional’을 제안, “정치는 말레이인, 경제는 화인”이라는 원칙하에 연립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당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Mahathir bin Mohamad를 비롯한 젊은 말레이 정치인들은 이러한 민족화합정책에 불만을 가졌다. 툰쿠의 원칙대로라면 경제적으로는 말레이인들이 화인들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말레이인들의 나라에서 정작 말레이인들은 빈곤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미뿌뜨라 정책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1970년부터 추진해 온 말레이인 우대정책이다. 부미뿌뜨라는 말레이어로 부미 bumi 땅, 대지, 토지와 뿌뜨라 putra 자손, 후손, 아들이 합성된 용어로 <땅의 자손> 또는 <대지의 후손> 등을 의미한다. 즉 말레이시아의 토착민 또는 원주민을 지칭하는 말이다. 말레이인은 말레이시아 총인구의 55%를 점하고 있지만 경제의 실권은 25%를 점하고 있는 화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 결과 1969년에는 인종폭동^{5-13사건}이 발발, 8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1990년까지 자본, 경영인, 기업종업원의 민족 구성비를 주로 화인인 비말레이인 4, 말레이인 3, 외국인 3의 비율로 재편할 것을 목표로 1970년 이래 부미뿌뜨라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정책은 말레이인으로 대표되는 원주민 우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미뿌뜨라 정책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 바로 툰쿠 압둘 라만

이다. 그는 말레이인과 말레이 무슬림을 옹호하는 민족화합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툰쿠의 민족화합정책은 1970년 이후 부미뿌트라 정책의 기본 토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툰쿠의 민족화합정책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민족 간 갈등은 지속되었다. 1963년에 수립된 말레이시아연방의 일원이 된 싱가포르가 1965년 결국 탈퇴하게 된 중요한 원인 역시 민족 갈등이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민족 구성은 크게 달랐다. 싱가포르만 놓고 보면 화인이 말레이인보다 훨씬 많지만, 말레이시아 전체를 놓고 보면 말레이인이 화인보다 많았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정치 및 군사부문은 대부분 말레이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경제부문은 화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민족 간 대립과 갈등은 매우 컸고, 다수인 말레이인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당시 싱가포르의 지도자였던 리관유 *Lee Kuan Yew* 역시 유사한 불만을 갖고 있던 차였다.

말레이인들 중 극우 성향을 가진 말레이 민족주의자들은 이슬람 명절만 되면 폭동을 일으키곤 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그 결과 두 민족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툰쿠 압둘 라만은 말레이인과 무슬림을 옹호하는 방식의 민족화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리관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화인인 리관유로서는 말레이인들과 무슬림을 옹호하는 툰쿠 압둘 라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리관유는 화인도 말레이 원주민과 같은 말레이인임을 주장하였다. UMNO와 말레이 무슬림을 대표하는 툰쿠의 입장에서 보면, 리관유가 이끄는 인민행동당 *People's Action Party, PAP*은 매우 거북한 존재였다. 하지만 툰쿠 압둘 라만이 3선에 성공한 1964년 총선에서 인민행동당은 1석을 획득하는 데 그쳐 UMNO가 속한 동맹당 *Alliance Party*에 참패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내에서 주요한 정치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갈등은 커져갔고, 툰쿠는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이들과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며 1965년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에서 추방시켰다.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독립이었다.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에서 추방시켰지만, 그것으로 민족 간의 대립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결국 1969년 5월 13일, 극에 달한 민족 간 대립으로 발생한 인종폭동^{ethnic riot, 일명 5-13사건}으로 툰쿠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폭동으로 툰쿠는 국민들의 지지를 잃었고, 이에 더하여 UMNO 내에서조차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툰쿠는 훗날 총리가 된 마하티르를 비롯한 UMNO의 차세대 지도자들로부터 크게 비난받았다. 마하티르는 그에게 당장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기까지 하였다. 이 여파로 UMNO는 1969년 총선에서 의석의 상당수를 잃게 되었고, 툰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70년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후임 총리로는 툰쿠 정권 하에서 부총리를 지낸 압둘 라작 후세인 ^{Abdul Razak Hussein}이 임명되었다.

퇴임 후 툰쿠는 페낭^{Penang}에 거주하며 정계와는 거리를 두며 살았다. 1977년에는 페낭에 본사를 둔 신문사 《더 스타^{The Star}》의 사장직을 맡기도 했는데, “뒤돌아보라^{Look Back}”와 “내가 보건대^{As I See It}” 등과 같은 칼럼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더 스타》는 이와 같은 정부 비판적 논조로 인해 당시 총리였던 마하티르에 의해 정간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툰쿠는 UMNO의 분열 끝에 탄생한 46년정신당^{Semangat 46}을 지지하였고, 1990년 총선 때도 열심히 활동하며 46정신당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이미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상태였던 그는 1990년 12월 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향년 87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시신은 알로르스파라에 있는 랑가르로알모슬레움^{Langgar Royal Mausoleum}이라는 이름의 무슬림 묘지에 매장되었다. 마하티르 총리의 비서실장이었던 툰 아흐마드 사르지^{Tun Ahmad Sarji}가 툰쿠의 임종을 지켜보았고, 마하티르는 사르지에게 툰쿠의 죽음을 전 세계에 알리라고 지시하였다.

평가

툰쿠의 첫 번째 부인은 화인이었지만 이 사실 자체가 그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지는 않다. 집권 후 툰쿠는 말레이인을 우선시하

고 비 말레이인을 차별하는 민족차별 정책을 강행하였다. 말레이인과 화인이 싸울 때마다 그는 말레이인의 편을 들곤 했는데, 문제는 그가 집권한 초기에는 말레이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반을 약간 넘는 정도여서 그와 같은 차별적인 태도가 정치적으로는 그에게 불리했다는 사실이다. 리관유의 연방 참여 제안이 있었을 때 싱가포르 단독이 아닌 사라왁과 사바를 합쳐 말레이시아 결성을 결정한 이유가 말레이인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툰쿠의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문제는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는 화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였다.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는 폭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싱가포르의 총리인 리관유는 민족 차별적인 툰쿠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였고, 결국 술한 대립 끝에 싱가포르는 2년 만에 말레이시아에서 축출되고 만다. 물론 말레이시아에서는 이후로도 폭동이 계속되어 1969년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결국 이 사태로 인해 툰쿠는 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툰쿠는 말레이시아에서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전통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집권 후 그는 자신의 독립운동 치적을 과장하여 스스로를 “말레이시아 독립의 영웅”, “말레이시아 건국의 아버지” 등으로 칭하며 국민들에게 자신을 찬양하도록 교육시켰다. 이후 집권한 총리들 중에는 툰쿠의 전례에 따라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집권 말기 툰쿠는 자신을 비판한 마하티르와 그의 동료들을 결국 당에서 축출하거나 추방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훗날 복권한 마하티르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툰쿠에 대한 격하운동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툰쿠 압둘 라만은 독립운동가와 독재자라는, 서로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말라야 연방의 마지막 총리이자 말레이시아의 초대 총리로서, 영국령 말라야에서 식민통치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말레이 민족주의를 제창하여 다수를 차지하는 토착 말레이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였지만, 집권 후 독재자, 종족주의자 등으로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툰쿠는 말레이시아에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터 “말레이시아 독립의 영웅”, “말레이시아 건국의 아버지”, “말레이시아연방 수립의 영웅”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말라야의 마지막 총리이자 말레이시아연방의 초대 총리로서 그가 말레이시아를 영국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또한 말라야연방에서 말레이시아연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라왁과 사바,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연방을 수립하기 위한 그의 공헌 역시 높이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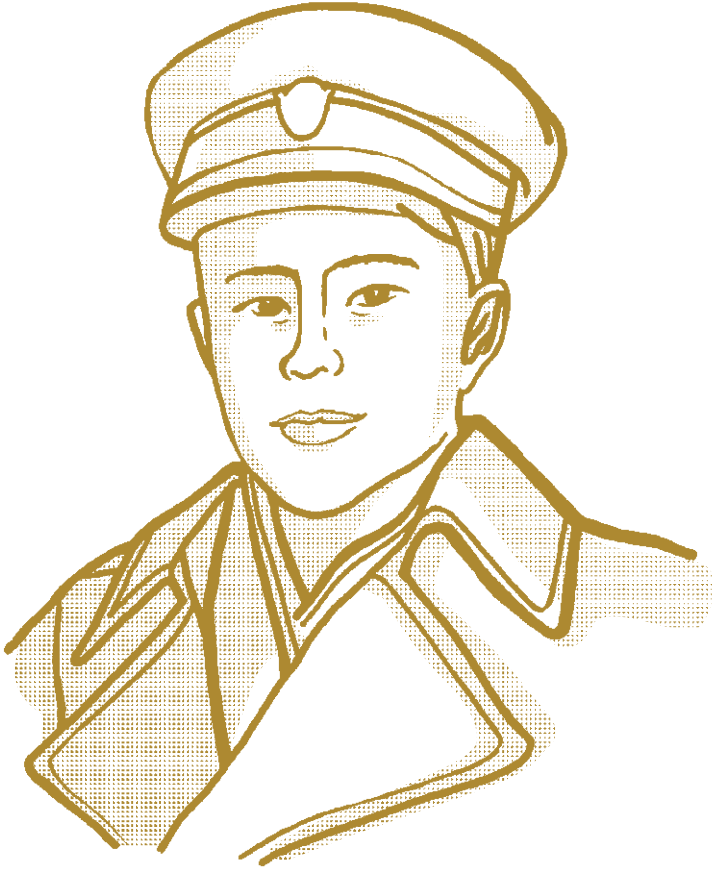
나아가 이후 말레이시아 건국 과정에서, 비록 말레이인과 말레이 무슬림을 옹호하고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족 간 조화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민족통합정책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한편, 대외적으로 튼튼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에서 큰 역할을 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아세안의 결성이다. 그는 1967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5개국이 가입한 ASEAN의 창립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의 5개국으로 창립되었다. 당시 각국의 외무장관이 방콕에 모여 아세안 설립 선언, 이른바 방콕선언을 채택하였다. 아세안의 발족이다. 그런데 아세안의 발족까지는 각국 간의 영토분쟁을 비롯하여 함께 해결해야 할 각종 문제가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를 당시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각국의 지역협력체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아세안의 발족이 성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튼쿠 압둘 라만이다.

주요 연표

- 1903년 출생
- 1957년 말라야 연방 영국으로부터 독립 선언
- 1957년 말라야 연방 초대 총리 취임
- 1959년 총선 승리
- 1963년 말레이시아 출범, 브루나이 독립
- 1964년 총선 승리
- 1965년 싱가포르 독립
- 1967년 아세안(ASEAN) 결성
- 1969년 인종폭동 발생
- 1970년 총리직 사임
- 1970년 제2대 툰 압둘 라작 총리 취임
- 1971년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과
부미뿌뜨라(Bumiputra) 정책 시작
- 1977년 더 스타(The Star) 신문사 창설
- 1987년 마하티르 정부의 탄압으로 더 스타 정간
- 1987년 이에 대한 대항으로 정당 활동 지속.
Semangat46을 지지하지만 실패로 몰락
- 1990년 사망



Aung San

13 February 1915 - 19 July 1947

BOGYOKE AUNG SAN A National Hero of Myanmar Independence like a Com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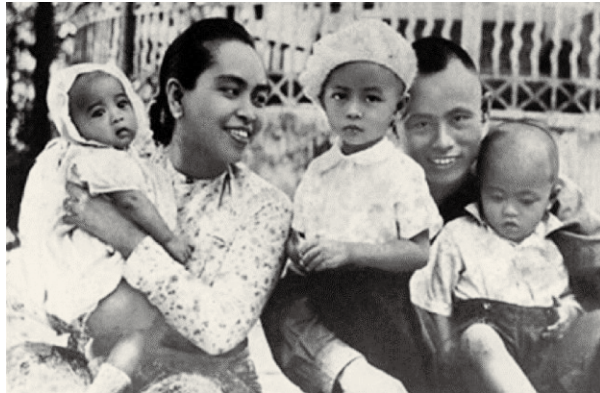
PARK Jang Sik,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ung San(1915-1947), who lived a coarse and short life of 32 years, appeared and vanished like a comet. He was a nationalist and a political leader who defied British and Japanese rules, but his name was mostly followed by the title of general, Bogyoke. Bogyoke Aung San, the founder of the Myanmar army, has been its silent sponsor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in the military regime which took over Myanmar in 1962 as a coup. For that reason, until the 1980s, I could see the portrait of General Aung San everywhere in Myanmar. It was easy to find his figure with uniforms at public offices, hotels, restaurants, and private houses as well as in printed matters such as money, postcards, and calendars. In that respect, Aung San is one of the greatest persons in all Myanmar throughout its history.

From the 90s, however, his appearance suddenly began to disappear from sight. In fact, the task of artificially erasing the existence of General Aung San has been conducted secretly by the military. This is because Aung San Suu Kyi, the daughter of Aung San, suddenly appeared on the political stage in Myanmar. Now Aung San has transformed into a democratic fighter who supports his youngest daughter, a leader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gainst the military rule, not the founder or supporter of the Myanmar army. While the political ideologies of the military and Aung San Suu Kyi are mutually exclusive in Myanmar, it is very interesting that both sides can embrace the character of Aung San.

Aung San has left thick and strong trails for a short period of twelve years, from 1935, when he started his activities at Yangan University, to 1947, when he and colleagues were assassinated by his political opponents. It never seems that there is any great figure

comparable to him throughout the modern history of Myanmar. The absolute respect and support of Myanmar people towards Aung San, who had pursued for Myanmar independence, as a leader of student movement in the British colonial period, a commander of the Burma army during the World War II, and a political leader of the postwar nationalist movement, were requisite for the unstable political world in contemporary Myanmar.



[사진 1]

아웅산 장군의 가족. 왼쪽부터 아웅산수씨,
부인 도수, 장남 아웅산우, 아웅산, 차남 아웅산링
(8세 때에 정월에 있던 연못에서 의사).
출처: 아웅산장군 전기편찬위원회(2013)

아웅산 장군: 혜성 같았던 미얀마의 민족주의자, 독립의 영웅

박장식, 부산외국어대학교

들어가기

32년의 굵고 짧은 삶을 살았던 아웅산(1915-1947)은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졌다. 그는 영국과 일본의 지배에 항거한 민족주의자 이면서 독립을 이끈 정치지도자였지만 보통 ‘장군(보족)’이라는 호칭과 함께 불리곤 한다. 미얀마 국군을 창설한 보족 아웅산은 1962년 쿠데타로 미얀마의 정권을 장악한 군부에게 있어서 반세기가 넘도록 그들의 정통성을 견지하는 무언의 후원자이기도 하였다. 그 때문인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아웅산 장군의 초상화는 미얀마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호텔이나 식당, 그리고 가정집에서나 화폐, 엽서, 달력 같은 인쇄물에서 군복과 군모를 쓴 그의 모습을 찾기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말을 탄 모습의 아웅산 장군의 동상은 미얀마 전역에 걸쳐 도시 입구를 장식하는 역사적 조형물이었다. 그런 점에서 아웅산은 미얀마의 역사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인물, 미얀마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상징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홀연히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무소부재의 아웅산 장군의 존재를 인위적으로 지우려는 작업이 군부에 의해 은밀히 진행되었던 것이다. 아웅산의 딸인 아웅산수찌가 미얀마 정치 무대에 홀연히 등장한 시기와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제 아웅산은 미얀마 군부의 창시자 혹은 그 정신적 지주가 아닌 군부지배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의 기수, 그의 막내딸을 지지하는 민주투사의 모습으로 변신하였다. 양곤 인야호수 주변 대학로에 위치한 아웅산수찌의 자택 정문에는 커다란 아웅산 초상화가 걸렸고, 지난 2015년 11월 총선거에서 승리한 국민민주연합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하 NLD)의 상징으로서도 그의

초상화는 꾸준히 등장하였다. 최근 미얀마중앙은행에서는 지폐에 미얀마의 역사적 인물의 초상을 다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아웅산 장군의 모습이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 있어서 군부와 아웅산수씨의 정치적 이념은 상극이지만, 아웅산이라는 인물을 그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양측 모두가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다.

아웅산은 양곤대학 총학생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1935년에서 그의 정적政敵에 의해 암살된 해인 1947년까지, 12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굵고 강한 흔적을 역사에 남겼다. 미얀마 근대사를 통하여 감히 그와 비견할 만한 인물은 없을 정도이다. 영국 식민지시대 학생운동의 리더로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버마군의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전후 민족주의운동의 정치지도자로서 미얀마 독립을 목표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아웅산을 향한 국민의 절대적인 존경과 지지는 현대 미얀마의 불안정한 정치세계가 안정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요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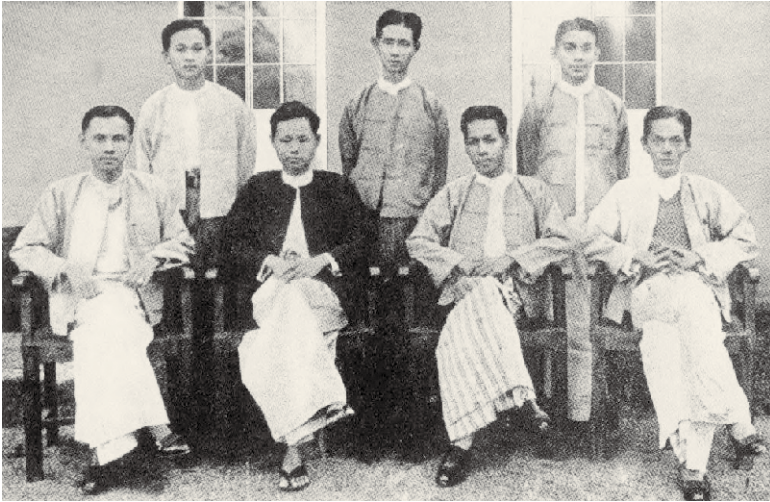
출생과 성장

아웅산은 1915년 2월 13일 머그웨Magwe주 낫마옥Natmauk 마을에서 부친 우파U Pha와 모친 도수Daw Suu 슬하 5남매 중 막내로 출생하였고, 그의 아명은 테인링Htein Lin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애국심이 투철했던 가문이자 관찮게 살았던 시골 유지의 아들”로 묘사하곤 하였다. 아웅산수씨 역시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할머니의 가문은 대대로 높은 벼슬의 관리들을 배출하였고, 특히 아버지의 외삼촌은 영국의 미얀마 점령에 항거한 순국자였다”며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할머니의 가문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아웅산수씨의 이름 가운데 ‘수’는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기도 하다.

머그웨주는 다수종족인 버마족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상부미얀마의 핵심지역—만달레이주, 저가잉주 포함—에 속한다. 따라서 이 지역은 미얀마의 전통시대를 지배해 왔던 버마족의 자부심이 강하여 주변의 소수종족의 거주지에 비해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감이 쉽사리 식지 않았



[사진 2]
1990년 아웅산 장군의 초상을 사용한 1짖 지폐가 발행되었으나, 지폐 디자이너가 의도적으로 왼쪽 위크마크에 아웅산수씨의 초상을 그려 넣었다는 소문이 돌아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출처: BBC News.



[사진 3]
양곤대 학생회 저널 <오웨>의 편집장
시절의 아웅산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출처: Wikimedia Commons

던 곳이다. 아웅산이 가문과 지역의 전통이 강하게 뿌리내린 지역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은 그의 사회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마을의 승원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았고, 교육비가 제법 들 것 같은 중고등학교는 머그웨주의 큰 도시이자 석유 생산으로 산업도시의 특징을 지닌 예난자웅에서 다녔다. 이러한 교육 배경은 대학 입학 이전에 일찍이 아웅산이 미얀마 전통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사고를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교를 졸업하기 직전 ‘학식을 지녔던 과묵한’ 부친이 사망하였지만, 아웅산은 무사히 고교과정을 마치고 곧장 양곤대학교에 진학하였다. 미얀마 문학과 상좌불교의 불경어인 빨리어 전공으로 문학사 학위를 받고 법학도의 꿈을 걷던 아웅산은, 그러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였다. 한 연설문을 통해 “화려한 학술적 이력을 지닌 전도양양한” 학생으로서 자신을 당당히 소개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아웅산은 그러한 학자의 꿈을 접고 말았다.

주요 활동

양곤대학 재학 시절 아웅산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그의 대학생활 대부분을 정치적 활동에 몰두하였다. 1936년 당시 양곤대 총학생회 저널 <오웨이> Oway, ‘공작의 울음’이라는 의미의 편집장을 맡았던 아웅산은 양곤대 행정관리의 부조리를 고발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곧 이 기사의 저자 이름을 밝히려는 대학당국의 엄중한 추궁이 뒤따랐지만 아웅산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내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과 함께 당시 총학생회장 우누 U Nu의 강경발언에 대한 대학당국의 퇴교 처분이 내려지자 아웅산은 이에 대항하는 학생시위를 계획하였고, 이어 양곤대의 기말고사 거부 시위를 주도하면서 그는 총학생회의 학생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급거 부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1938년 아웅산은 양곤대학 총학생회 회장에 선출되었고, 동시에 전국의 대학 학생회를 규합한 버마대학생총연합회를 조직하여 그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버마대학생총연합회 총회의 의장 연설에서 그는 처음으로 미얀마의 독립

쟁취는 무장봉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학생의 지위로는 독립운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이 시절에 깨달았던 듯하다.

그해 10월 아웅산은 미얀마 독립운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양곤대의 학업과 학생회장직을 그만두고는 곧장 1930년 젊은 지성인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독립을 목표로 결성된 도버마어씨어용(Dobama Asiayone, **우리버마협회**)에 가담하여 사무국장직을 맡아 활약하였다. 1939년 1월에 그는 웨더공 파고다에서 무력으로 식민지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했다는 죄목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을 당하기도 하였다. 당시 아웅산은 ‘떠킨아웅산’이라는 이름으로 활약했는데, ‘떠킨’(Thakin, ‘주인’의 의미)이라는 용어는 영국 식민지하에서 영국인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아웅산을 포함한 도버마어씨어용의 회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 앞에 ‘떠킨’을 붙여 사용함으로써 미얀마가 곧 자신들의 나라임을 주지시키고자 하였다.

미얀마의 독립운동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단체의 참여나 결사에도 빠지지 않았다. 1939년 8월 양곤에서 비밀리에 버마공산당(Communist Party of Burma) 창립에 가담하고 서기직을 맡았으며, 보다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우리버마협회를 일본 점령기의 꼭두각시 정권의 수상직을 맡았던 버모(Ba Maw) 박사가 이끌던 싱예다(Sinyetha, **빈곤당**)와 연합하여 버마자유블럭(Burma Freedom Bloc)을 결성하였다. 그 후 자신과 뜻이 맞는 젊은 민족주의자들과 규합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도 하는 등 20대 중반의 혈기 넘치는 아웅산은 누구도 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아웅산의 독립운동 활동 역사에서 1940년은 일대 전환점으로서 기록된다. 영국 식민지하의 인도에서 간디와 네루를 중심으로 독립투쟁을 주도했던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의 총회를 참관하고 미얀마로 돌아온 아웅산은 식민정부의 체포령을 피해 중국으로 피신하였다. 중국 국민당과 접촉을 시도하던 아웅산은 사면(Xiamen, Amoy)에서 당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침략을 위해 사전 준비 중이던 일본의 정보기관 ‘미나미기관’(南機關)의 수장 스즈키 대령을 만나게 된다. 영국에 대항할 수 있는 무력투쟁을 꿈꾸던 아웅산에게 있어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참으로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다.

1941년 한 해 동안 아웅산과 그의 독립투쟁 동지 29명, 이른바 ‘애국지사 30인’은 일본, 대만, 하이난 등지에서 일본 교관에 의해 군사훈련을 받았다. 아웅산이 자유 미얀마에 관한 그의 첫 구상 <버마의 미래 청사진> *Blue Print for Burma*을 저술한 것이 이때의 일로 추정된다. 일본의 주장에 편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청사진이 아웅산의 진본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일본 측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글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만도 하다.

그해 12월 아웅산은 애국지사 29명을 포함, 태국 수도 방콕에서 태국 거주 미얀마인 지원자 약 200명과 함께 버마독립군(BIA)을 창설하였다. 이제 그의 이름은 떠킨아웅산에서 보떼자 *Boteza*, ‘보’는 전사(戰士)의 의미로 개명되었다. 이번 개명은 그의 소원대로 독립 미얀마를 위한 본격적인 대외영국 무력투쟁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적 지도자로서 아웅산이 자신의 경력을 시작한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1942년 일본군이 동남아 공략을 시작하면서 아웅산 지휘하의 버마독립군도 일본의 진군에 앞서 미얀마 출격을 서둘렀다. 그해 3월 일본군은 영국 식민정부의 수도였던 양곤을 점령하고 버마독립군을 버마방위군 *Burma Defence Army*으로 개편, 아웅산 대령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같은 해 9월 아웅산은 일본식 군장을 한 모습으로 도킨찌 *Daw Khin Kyi*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제 미얀마는 아웅산이 기대한 대로 독립국으로 탄생하는 일만 남게 되었다. 아웅산의 장남 아웅산우가 태어난 1943년, 같은 해 8월 1일에 이르러 일본은 미얀마의 독립 *State of Burma*을 선포하는 한편 아웅산을 소장 *Bogyoke*으로 승진시켜 군사령관 및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웅산의 가장 친근한 이름 ‘보족아웅산’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다. 양곤 시내에 자리한 유명한 전통시장 ‘보족제’는 아웅산의 이 새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진정한 의미에서 미얀마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 이를 눈치 챈 아웅산은 일본에 대항할 힘을 비밀리에 결집시켜야 했다. 아웅산은 영국과 접촉하여 일본에 결별을 통보하는 한편 기존의 버마방위군을 개편하여 새롭게 조직한 버마국군^{BNA}과 함께 1945년 3월 27일 반일 항쟁 개시를 선포하였다. 그의 군대는 즉시 마운트배튼경이 최고 사령관으로 활약하던 동남아사령부의 연합군에 소속되어 미얀마 주둔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한 전투에 투입되었다. 아웅산으로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한 여정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6월 15일, 아웅산수찌(그녀의 이름은 아버지 ‘아웅산’, 할머니 ‘수’ 그리고 어머니 ‘찌’를 조합한 것)가 출생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다. 전후 영국은 버마군을 창설하여 이제 애국버마군^{Patriotic Burmese Forces}으로 개명한 버마국군을 편입하고 아웅산에게 준장의 계급과 함께 부사령관의 지위를 제안하였다. 아웅산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군사조직인 국민애국단^{Patriotic Volunteer's Organization}을 창설하여 본격적인 국민지도자의 길을 걷기로 한다. 이윽고 아웅산은 그의 세 번째 정치적 전환점이자 그의 정치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대에 스스로 올랐다. 지난 전쟁의 말기에 버마국군, 인민혁명당, 버마공산당과 함께 비밀리에 결성했던 반파시스트기구^{Anti-Fascist Organization}는 이제 반파시스트국민자유연합^{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이하 AFPFL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1946년 1월 AFPFL의 첫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아웅산은 본격적으로 미얀마 독립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역할을 자임하기에 이른다.

전후 거의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을 포섭한 AFPFL 의장인 아웅산의 앞길은, 그러나 그리 순탄치는 않았다. 독립 후 미얀마의 지도자나 그 미래에 대한 그들 나름의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은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아웅산과 AFPFL를 몹시 견제하였다. 또한 AFPFL 내부에도 아웅산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여러 경쟁자들이 존재하였다. 아웅산으로서는 미얀마 독립에 대한 구상을 실현함과 동시에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영국의 사전 계획을 적절히 저지하는 한편 AFPFL 내부의 반발과 저항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 1946년 중반 영국 미얀마총독이 아웅산에 친화적이었던 허버트 랜스^{Hubert Rance}로 교체되면서 아웅산은 식민행정부의 부의장으로 기용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아웅산은 영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갔다.

하지만 AFPFL 내의 리더십을 둘러싼 갈등은 순조롭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AFPFL 내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였던 아웅산이 식민행정부의 직책을 맡게 되자 오랜 기간 아웅산의 동지였던 공산주의 노선의 사무총장 탄똥^{Than Tun}과 버마공산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자칫 AFPFL이 분열될 수도 있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아웅산은 전격적으로 버마공산당을 AFPFL에서 축출함으로써 내부 갈등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반발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이제 아웅산에게 남은 것은 영국의 정치지도자와 미얀마 독립의 일정과 관련하여 최종 매듭을 짓는 일이었다. 1946년 12월 아웅산은 AFPFL 소속의 정치적 동지들과 함께 영국 런던으로 날아갔다. 당시 영국의 수상은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보수당 진영의 처칠에서 노동당의 아틀리^{Clement Attlee}로 바뀌어 있었다. 오랜 협상 끝에 마침내 1947년 1월 말, 양측은 1년 내에 미얀마 독립을 확정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 합의에 대해 미얀마 국내의 라이벌 정치가들은 큰 반발을 보였지만, 귀국 후 아웅산은 곧장 산주 땡롱^{Panglong}에서 소수민족—산, 꺼친, 친—의 대표들과 연방제 도입을 논의하여 2월 27일, 역사적인 ‘땡롱회담’ 협정을 체결하였다. 민족대표 구성에 문제가 많은데다 반발하는 지역이 많았던 꺼잉(카렌)족이 불참한 것이긴 하나, 영국의 식민정부 하에서 일정한 자치권을 행사해 왔던 소수민족들을 새로운 국가 수립에 동참시키지 못했더라면 미얀마의 완전한 독립은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얀마 독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한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미얀마정부는 이 날을 ‘연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1947년 4월, 드디어 미얀마 최초로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예상대로 AFPFL은 압승을 거두어 의회의 전체의석 210석 중 173석



[사진 4]
1947년 미얀마의 독립 시기를 놓고 협상을
벌였던 아웅산과 당시 영국 수상 아틀리.
출처: 아웅산장군 전기편찬위원회(2013)



[사진 5]
쉐더공 파고다의 북쪽에 위치한
'순국자의 묘역', 북한의 테러에 의해
원래 건물은 폭파되어 사라지고 러시아의
후원으로 붉은 색의 조형물이 조성됨.
출처: 박장식

을 차지하였고, 아웅산은 초대 수상으로 취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FPFL의 내부 반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정치가들이 많았다. 특히 전후 미얀마의 정치상황이 아웅산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반감을 가져왔던 우소^{U Saw}가 그러한 인물 중 하나였다. 결국 우소는 7월 19일, 식민지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기 위해 회의 중이었던 아웅산을 비롯한 6명의 각료들을 암살하고 만다. 아웅산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추진해왔던 미얀마 독립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미얀마 정부는 이 날을 ‘순국자의 날’로 칭하여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사망한 아웅산과 각료들은 쉐더공 파고다의 북쪽에 마련된 ‘순국자의 묘역’에 안치되었지만, 1983년 10월 9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방문 시에 자행했던 북한의 테러로 묘역의 건물은 완전히 없어지고 현재는 붉은 콘크리트 조형물만 남아 있다.

1948년 1월 4일 미얀마는 입헌의회민주제도를 정체로 삼아 아웅산과 함께 양곤대 시절 학생지도자로 활약했던 우누를 초대 수상으로 지명함으로써 사실상 19세기 초반부터 미얀마를 지배해 왔던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였다.

업적의 평가

아웅산이 살았던 시대는 제국주의의 암울한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때로 서로 극한 대립과 갈등을 표출하면서도 동시에 밝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갖고 시대의 어둠을 견디었다. 아웅산은 자기희생을 통하여 타자의 지배에서 온전히 벗어난 미얀마의 밝은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한 꿈을 실현해 왔던 과정에서 아웅산이 남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최근 NLD정부가 수립되면서 미얀마 국내에서 아웅산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관련 서적만도 어림잡아 30권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아웅산에 대한 외부 시각에서의 비평적인 글은 의외로 없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아버지에 대한 향수를 담은 아웅산수씨의 회고록(Aung San Suu Kyi 1984) 외에 달리 눈에 띄는 비평적 저술이 없다. 실버스타인이 아웅산의 연설문과 저작물을 모아 편집한 소책

자(Silverstein 1993)가 그나마 위안이 된다. 아웅산의 자유로운 미얀마의 건설에 대한 생각은 그가 남긴 많은 글과 연설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아웅산의 정치에 대한 접근 방법은 대체로 체계적이지 않을 뿐더러 독창적이지도 않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그가 태어났던 지역 특성과 교육 환경, 당시 시대 상황, 그리고 그의 성격과 개성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곤 한다. 가령, 미얀마의 전통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웅의 등장과 활약을 듣고 배웠던 것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는 등의 주장이 그 예이다. 촌락에서 ‘그런대로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탓에 그가 지주제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웅산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그의 연설이나 글에서 미얀마의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아웅산뿐만 아니라 일반 미얀마인들도 흔히 사용하는 어법이라 할 수 있다.

아웅산에 대한 당시 정치적 라이벌의 쓴 소리를 여기에서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영국의 입장에서 본 아웅산에 대해서는 간략히나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세계대전을 치러야 했던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1940년 이후 아웅산의 행보는 몹시 불스러운 동시에 의혹으로 가득 찬 것이었을 수 있다. 특히, 전쟁 기간 동안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던 집필한 미얀마 미래의 청사진 같은 글 등에서 나타난 아웅산의 향후 미얀마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1943년 이후 일본의 속내를 읽어낸 아웅산이 심경의 변화 끝에 연합군 측으로 다시 돌아온 일 등을 감안하면, 당시 영국 수상 처칠의 말마따나 “변절자”^{traitor}로 비쳤을 소지가 다분하다. 1946년 중반까지 아웅산은 영연방의 미얀마 자치령(Dominion of Burma) 수립을 검토했던 영국의 독자적인 독립 방안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미얀마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는 아웅산은 그 누구보다 신생국 미얀마가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장애들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깊이 있는 성찰과 이해를 보여준 인물이었다. 미얀마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에 속하는 종교와 종족 문제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갖고 접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를 서슴없이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리기에 충분하다.

1930~40년대에 걸쳐 아웅산의 정치적 노선을 변함없이 지지했던 계층에는 불교 승려들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웅산은 신앙의 자유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며 정치가 종교 문제에 절대로 관여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정치와 종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분명한 입장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독립 후 초대 수상이었던 우누가 펼친 불교의 국교화 정책이 불씨가 되어 발발한 내전과 연이은 발생한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 또한 아웅산은 일찌감치 예견했던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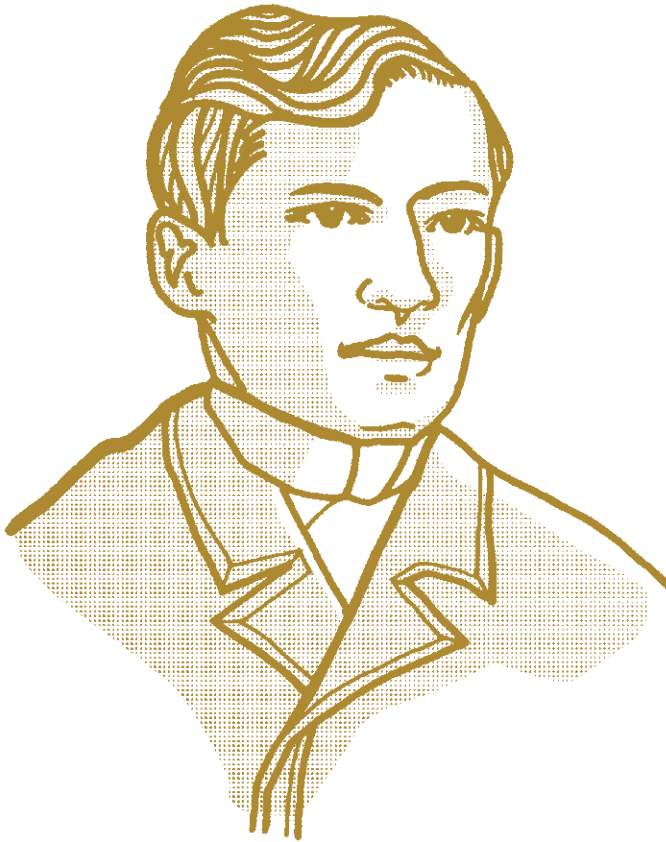
1947년 1월 영국 수상 아틀리와 극적인 독립협상 합의를 이루어낸 아웅산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변방지역의 소수민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얀마의 연방제 국가구조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영국 식민지정부에 의해 ‘분리와 지배’ 방식으로 편성되었던 미얀마의 이중적 통치구조는 전통시대와는 사뭇 다른 종족간의 이질감을 더욱 팽배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이질적 감정은 하나의 국가틀에 가두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연방제 제안에 담긴 아웅산의 진정성은 소수종족 대표들을 설득하는 데 충분했던 것 같다. 아웅산이 빠진 독립 후 미얀마의 리더십은 이 같은 사실을 간과했다. 결국 오늘날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은 형식적 연방제가 야기한 것이라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다.

아웅산을 존경하는 미얀마 국민이 그에 대하여 품고 있는 감정은 대체로 아쉬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 아웅산이었다면 어떻게 다루었을까를 상상해 보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다. 아웅산의 위대함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미얀마의 독립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그의 열정이 한 치의 가공 없이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던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국민들을 향해 글을 쓰거나 그들과 직접 대면하여 설득함으로써 자신이 품은 희망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다. 미얀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간 아웅산은 오늘날까지도 어둠을 몰아내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주요 연표

- 1915년 2월 13일, 머그웨주 낫마웃 마을에서 부친 우파와 모친 도수의 5남매 중 막내로 출생
- 1928년 승원학교에서 초급교육을 받고, 예난자웅(머그웨주의 큰 도시)의 상급학교에 진학
- 1931년 6월, 부친 우파 사망
- 1932년 3월, 예난자웅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6월, 양곤대학교(University College) 입학
- 1935년 양곤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위원
- 1936년 양곤대 총학생회 저널 <오웨이>(Oway)의 편집장으로 활약
2월, 양곤대 학생회장(꼬누)과 함께 저널 기사의 문제로 대학 측의 퇴학 처분에 대해 양곤대학 수업거부 운동
- 1937년 양곤대에서 문학사 학위 취득, 법학과에 진학
미얀마, 영국령 인도의 행정구역에서 분리
- 1938년 양곤대 총학생회 회장과 버마대학생총연합회의 의장으로 선출됨
4월, 제3차 버마대학생총연합회 총회의 의장 연설에서 처음으로 독립 쟁취는 무장봉기로만 가능하다고 언급
10월, 미얀마 독립운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양곤대 학생회장 사임, 도버마어씨어용(DAA)에 참여, 사무국장 띠킨아웅산으로 활약
- 1939년 1월, 웨더공파고다에서 체포되어 15일간 구금
8월, 양곤에서 비밀리에 버마공산당(CPB) 창립에 가담, 서기에 취임
9월, 독립운동 단체를 규합하여 버마자유블럭(BFB)을 결성, 서기를 맡음
11월, 띠킨 마 등 9명과 함께 지하운동을 위한 비밀결사 조직
- 1940년 3~4월, 인도로 건너가 인도국민회의(INC)의 총회 참관
8월, 체포영장 발부로 중국으로 피신
11월, 샤먼에서 일본 공작원 스즈끼 대령을 만나 일본 동경으로 건너감
- 1941년 원본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자유 버마를 위한 청사진>을 일본에서 작성
아웅산을 포함한 이른바 ‘애국지사 30명’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대만, 하이난섬 등지에서 군사훈련

- 12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애국지사 29명, 태국 거주 미얀마인 지원자 약 200명과 함께 버마독립군(BIA) 창설, 이름을 띤킨아웅산에서 보떼자(‘보’는 전사(戰士)의 의미)로 개명
- 1942년 일본의 동남아 공략과 함께 아웅산 지휘 하의 버마독립군의 미얀마 진격
 - 3월 양곤 점령, 버마독립군을 일본군이 버마방위군(BDA)으로 개편, 사령관(아웅산 대령) 임명
 - 9월 6일, 도킨찌와 결혼
- 1943년 6월 13일, 장남 아웅산우 출생
 - 8월 1일, 일본은 미얀마를 독립국(State of Burma)으로 선포하고 아웅산을 소장(보족아웅산)으로 승진시켜 군사령관 및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
 - 9월, 버마방위군을 버마국군(BNA)으로 재편성
- 1944년 인도의 영국정부와 접촉 일본군에 대항할 것임을 알림
- 1945년 3월 27일, 버마국군의 반일 항쟁 개시
 - 6월 15일, 아웅산수찌 출생
 - 8월, 버마국군, 인민혁명당, 버마공산당과 함께 반파시스트기구(AFO)를 결성
 - 일본의 항복 이후 복귀한 영국 식민지정부에 의해 버마국군은 애국버마군(PBF)로 개편
 - 9월, 실론의 깐디에서 연합군 동남아시아사령부의 총사령관 마운트배튼경과 만나 애국버마군의 지위에 관하여 합의
 - 12월, 애국버마군을 떠나 독자적인 국민의용단(PVO)을 결성
 - 12월, 반파시스트기구의 명칭을 반파시스트국민자유연합(AFPFL)으로 개명
- 1946년 1월, AFPFL 첫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
 - 9월, 영국 미얀마총독에 의해 행정부 부의장으로 지명
 - 11월, AFPFL 버마공산당을 축출하며 아웅산의 리더십 공고화
- 1947년 1월 27일, 아웅산과 영국 수상 아틀리는 런던에서 1년 내로 미얀마 독립에 합의
 - 2월 17일, 산주 뵁롱에서 소수민족 대표들과 미얀마 연방제 안에 합의
 - 4월, 미얀마 총선거에서 AFPFL의 압승, 의회 210석 중에서 173석을 차지
 - 7월 19일, 정적 우소가 아웅산을 비롯한 6명의 각료 암살
- 1948년 1월 4일, 미얀마 영국으로부터 독립



Jose Rizal

19 June 1861 - 30 December 1896

* This abstract i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Historical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on 23 October 2017 via the Philippine Embassy to Korea.

JOSE RIZAL*

The Philippine National Hero the Pioneer of Asian Nationalism

KIM Dong-yeob,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ysician, Writer, poet, artist and polymath considered to be the foremost Filipino nationalist of his generation, whose polemical writings and ideas were considered to have instilled a sense of nationhood to the Filipino people and inspired the revolution against colonial oppression by the Spaniards. After completing his medical studies in Madrid, he became actively involved in the Propaganda Movement, a loose collective of Filipinos in Spain advocating for reforms in the Spanish colonial government system. He contributed articles and political commentary in the movements' fortnightly organ *La Solidaridad* and later wrote two novels, *Noli me Tangere* and *El Filibusterismo*, which illustrated the social climate of the Philippines under Spanish rule as well as the abuses committed by colonial officials and members of the religious against the Filipino people. A well-traveled man of letter, he wrote poetry and produced illustrations and sculptures. He returned to Philippines in 1892 and established the *La Liga Filipina*, a patriotic social-civic organization, but was arrested on account of his seditious writings and activities and exiled to Dapitan, then a remote outpost in the southern part of the Philippines, where he busied himself in agriculture, opened a school, and undertook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townsfolk's benefit. In 1896 he applied for and was granted permissions to minister medical aid to the Spanish Army in Cuba, but on the way to Cuba he was arrested and sent back to Manila for complicity in the revolution which broke out in the Philippine. He was tried and sentenced to death the same year. He was executed by musketry on 30 December 1898 at Bagumbayan, an open field outside the walls of the City of Manila which was since repurposed into a national park that bears his name.

호세 리살 필리핀 국민 영웅, 아시아 민족주의 선구자

김동엽, 부산외국어대학교

호세 리살의 생애

호세 리살(José Protasio Rizal)은 1861년 6월 19일, 라구나주 칼람바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서 부친 프란시스코 메르카도(Don Francisco Mercado Rizal)와 모친 테오도라 알론소(Dona Teodora Alonso Realonda)의 2남 9녀 중 7번째로 태어났다. 리살의 아버지는 선대에 중국 푸젠성에서 필리핀으로 이주해 왔으며, 어머니도 외모상 중국인을 많이 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리살은 중국계 혈통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리살(Rizal)이란 이름에는 “쌀의 of rice” 혹은 “녹지의 of green fields”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리살의 아버지는 칼람바 최초로 석조가옥을 소유했고, 제분소와 약국, 잡화상을 운영했다고 전해진다. 리살의 어머니는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이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듯 그의 집 서가에는 수천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어려서부터 리살은 어머니와 삼촌들로부터 언어와 논리,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했으며, 늦은 9세에 시작한 학교 교육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사진 1]
호세 리살

11세가 되던 1871년 리살은 가족의 권유로 형 파시아노 Paciano를 따라 마닐라로 가 레트란 대학 Colegio de San Juan de Letran에 입학하였다. 그러던 중 방학을 보내기 위해 칼람바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의 어머니가 도미니칸 신부와의 분쟁으로 법정 싸움 끝에 투옥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리살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교단 소속인 레트란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1872년, 보다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예수회 소속 아테네오 대학 Ateneo University에 입학하여 5년간 수학한 끝에 1877년 3월 14일 인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어 리살은 1878년 산토 토마스 대학 Santo Thomas University 의과부에 입학하였는데, 당시 그는 의학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탁월한 기량을 나타냈다. 그러나 리살은 스페인 학생과 원주민 학생 간의 차별 대우에 대하여 실망감을 갖게 되었고 교수법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방학이 되어 칼람바에서 지내던 때 그는 스페인 군 장교에게 적절한 예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구타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그는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리살은 형 파시아노에게 스페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털어 놓았고, 파시아노는 356페소를 주어 그가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게 해주었다. 당시 리살의 나이는 21세였으며, 그의 부모는 그가 유학을 떠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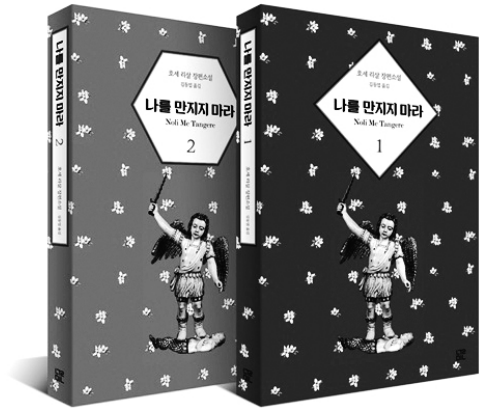
한 달 보름간의 긴 여정 끝에 리살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하였다. 스페인까지 항해하는 동안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행 중 방문한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에 관하여 일기를 썼다. 마드리드에 도착한 그는 곧 센트랄 데 마드리드 대학 Central University of Madrid에 등록하여 의학 공부를 계속하였다. 리살은 의학 외에도 독일어와 영어, 미술, 펜싱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데 흥미를 느꼈다. 당시 형 파시아노는 매달 50페소의 생활비를 그에게 보내 주었지만, 50페소는 스페인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어서 리살은 종종 끼니를 걸러야 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교통비도 없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까지 매일 걸어서 통학해야 했던 리살은 한때 영양실조에 걸려 병상에 누운 적도 있다.

한편 고국에서 진행되는 개혁운동을 돕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에 있던 필리핀 지식인들은 『라 솔리다리다드 La Solidaridad』라는 신문을 창간하였다. 리살을 포함하여 그레시아노 로페즈 제나, 마르셀로 델 피랄, 마리아노 폰스, 안토니오 루나, 그리고 블루멘트리 등이 이 일에 참여하였다. 리살은 필리핀인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한편, 스페인 정부가 필리핀 국민을 스페인 국민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필리핀 국민은 스페인 정부에 독립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리살은 1884년에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1885년 6월에는 철학과 문예 분야에도 수료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는 프랑스 파리로 거처를 옮겨 유명한 안과외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보조의사로 근무했으며, 1886년에는 독일로 가 하이델베르크 대학 University of Heidelberg에서 심리학과 역사가학을 청강하였다. 이때부터 리살은 스페인 신부와 지배자들이 필리핀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소설 『놀리 메 땅에레 Noli Me Tangere』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유명한 병리학자 루돌프 비르초프 Rudolf Virchow의 추천을 받아 베를린 인류학회의 회원이 되었고, 1887년 4월에는 이 학회에서 타갈로그어 구조와 철자법에 관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리살은 의학뿐만 아니라 과학, 미술, 조각, 시, 소설, 연극, 인류학, 역사학, 경제학 등 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그는 소설 『놀리 메 땅에레』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하였다. 출판 비용이 없었던 리살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2,000부를 인쇄하였으며, 빌린 돈은 훗날 형으로부터 받아 갚았다. 『놀리 메 땅에레』는 유럽에서는 널리 읽혀졌지만 필리핀에서는 금서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일부가 밀수입되어 필리핀 내에서도 읽혀지게 되었고, 이후 리살은 스페인 식민당국으로부터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리살의 가족들은 그가 귀국하는 것을 말했다. 하지만 리살은 어머니의 시력이 약화되어 실명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귀국을 결심한다. 1887년 8월 5일 귀국한 리살은 어머니의 눈병을 치료하여 회복시켰고,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병도 치료해 주었다. 칼람바 사람들은 그를 “독일에서 온 의사”라고 불렀다.



[사진 2]
리살의 소설 『놀리 메 땅에레』
원작과 한글번역본

그는 노름과 폐습에 빠져 있는 이웃사람들을 위해 체육관을 만들어 다양한 운동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당시 그 지역의 스페인 신부가 농지 임대료를 계속 인상하여 소작농인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살은 농부들을 선동하여 농지 임대료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런 리살이 스페인 신부들에게는 목에 걸린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고, 이때를 즈음하여 한 스페인 신부가 그의 소설 『놀리 메 땅에레』에 관한 탄원서를 총독에게 제출하였다. 소설의 내용이 너무도 불경하고 이단적이어서 가톨릭 교회는 물론 식민당국에도 위험하다는 청원이었다. 이 일로 리살은 마닐라에 있는 스페인 식민당국의 소환을 받게 되었고, 총독은 그에게 필리핀을 떠나라고 권고하였다. 결국 리살은 입국 6개월 만인 1888년 2월 3일 다시 유럽으로 출국해야 했다. 일본, 홍콩,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던 리살은 영국에 도착하여 정착하였다.

영국에서 리살은 문학과 예술 활동에 몰두하였다. 그는 스페인, 불어, 독일어, 영어, 네덜란드어,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따갈로그어 등 8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12개 언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었을 정도로 언어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영국에 머무는 동안 리살은 그의 형 파시아노와 4명의 매형이 스페인 신부들에게 땅을 빼앗겼고, 수많은 필리핀인들이 스페인 당국에 반대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1891년 그는 영국을 떠났고, 이후 프랑스, 벨기에 등을 떠돌며 힘겹고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다. 같은 해 9월, 리살은 두 번째 소설 『엘 필리부스테리슴』(El Filibusterismo)을 완성하였다. 그는 ‘폭로자’라는 뜻을 가진 이 소설을 스페인 당국에 의해 처형당한 세 명의 필리핀 신부—부르고스, 고메스 그리고 자모라 신부—에게 바쳤다. 이 소설은 리살이 처음 집필한 『놀리 메 땅에레』보다 더 과감한 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

벨기에에서 리살은 더욱 괴로운 고향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의 매형 중 한 명이 사망했는데 교회가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했다는 것과, 그의 형 파시아노를 비롯한 나머지 가족들이 필리핀 남쪽 섬에 유배되

었다는 소식이었다. 스페인 당국이 칼람바 사람들의 집과 농토를 모두 빼앗고 쫓아냈다는 소식,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 레오노르 리베라(Leonor Rivera)가 한 영국인과 결혼했다는 소식은 그를 몹시 괴롭게 하였다. 슬픔에 잠겨 있던 리살은 홍콩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부유한 필리핀인의 도움으로 홍콩으로 이주하였다. 가족과 친지들의 권유에 따라 리살은 홍콩에 머물면서 의사로 일하며 생활하였다.

리살은 칼람바에서 쫓겨난 주민들이 정착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2주 동안 북부 보르네오를 방문했으며, 이곳에서 영국 식민당국으로부터 필리핀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총독의 최종허가를 얻지 못하여 실패하고 만다. 리살은 1892년 6월 26일, 고국에 남아 있는 동포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필리핀으로 돌아온다. 식민당국의 요주의 대상이 된 그에게는 가는 곳마다 철저한 감시와 수색이 따랐다. 그는 몇몇 친한 친구들과 함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 개혁을 이루려는 온건 시민운동 '라리가 필리피나'(La Liga Filipina)를 조직하였다. 한 연설에서 그는 '라리가 필리피나'가 필리핀 국민들을 단합시킬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연설을 한 지 3일 후인 1892년 7월 6일 리살의 집은 수색을 당하였다. 식민당국은 그의 집에서 불온한 서적을 발견했다는 음모를 씌워 그를 체포하였고, 이어 산티아고 요새에 수감시켰다. 폭동 교사 혐의를 받은 리살은 필리핀 남단 민다나오 섬의 잠보앙가(Zamboanga)주 다피탄(Dapitan)으로 추방되었다.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리살은 다피탄에 학교와 병원을 짓고 급수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다. 4년에 이르는 그의 유배기간 동안 예수회 신부들의 구명 운동과 유럽 각지에서 동료 학자들이 보낸 지지 편지가 끊이질 않았다. 리살은 여러 가족과 지인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서른셋이 되던 1895년 2월에는 실명한 양아버지와 함께 그를 찾아온 아일랜드 여성 조세핀 브라킨(Josephine Bracken)과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홍콩으로 돌아간 뒤에도 다피탄에 남아 리살과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리살은 결혼식을 위해 담당 신부와 의논했는데, 신부는 리살의 문학적 명성과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들어 세부(Cebu)주교로부터



[사진 3]
수감 당시 리살의 모습(위, 재현)과,
리살의 처형 장면(아래)

허락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다. 가톨릭교회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식이 아닌 세속혼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다피탄으로 리살을 찾아온 지인 중에는 그에게 다피탄에서 빼내어 싱가포르로 보내 줄 테니 그곳으로 가 자유롭게 살라고 권유한 이도 있었다. 리살은 이를 거절하고, 대신 스페인 군인들이 반군의 공격과 황열병으로 고초를 겪고 있던 쿠바 전선에 의료자원봉사원으로 지원하였다. 그의 지원서는 받아들여져, 1896년 7월 31일 리살은 마닐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리살을 태우고 쿠바로 향하던 선박이 주유를 위해 싱가포르에 정박했을 때에도 그곳에 있던 지인이 리살에게 탈출을 권유했지만, 그는 또 다시 이를 거절하였다. 그렇게 다시 쿠바로 향하여 중동 지역을 지나갈 무렵인 1896년 9월 30일, 리살을 태운 배의 선장은 필리핀으로부터 한 통의 전보를 받았다. 필리핀에서 혁명이 발생했으며, 이에 연루되었을 것이 분명한 리살을 재판정에 세울 것이니 즉각 체포하여 마닐라로 호송하라는 내용이었다. 리살은 체포되었고, 1896년 11월 3일 마닐라로 보내져 인트라무로스 *Intramuro* 내에 있는 산티에고 요새 감옥에 수감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26일 군사재판이 열렸고, 이 재판에서 리살은 반란과 선동, 그리고 불법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리살은 「나의 마지막 안녕 *Mi Ultimo Adios*」이라는 시를 썼다. 그는 자신이 쓰던 알코올램프 속에 이 시를 숨겼다가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그의 누이 트리니다드 *Trinidad*에게 전했다. 그가 처형된 후 공개된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중략)

내 영원히 사랑하고 그리운 나라

필리핀이여

나의 마지막 작별의 말을 들어다오

그대들 모두 두고 나 이제 형장으로 가노라

내 부모, 사랑하던 이들이여

저기 노예도 수탈도 억압도

사형과 처형도 없는 곳
 누구도 나의 믿음과 사랑을 사멸할 수 없는 곳
 하늘나라로 나는 가노라

잘 있거라, 서러움 남아 있는
 나의 조국이여
 사랑하는 여인이여
 어릴 적 친구들이여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안식에
 감사하노라. 잘 있거라
 내게 다정했던 나그네여
 즐거움 함께했던 친구들이여
 잘 있거라 내 사랑하는 이들이여
 아 죽음은 곧 안식이니……

(「Mi Último Adiós」의 일부, 민용태 한국어 번역본에서)

1896년 12월 30일, 리살은 처형장인 바굼바얀(Bagumbayan, 지금의 리살공원) 들판으로 끌려갔다. 처형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사격조는 모두 필리핀인이었으며, 이들 주위로는 다시 무장한 스페인 군인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스페인인의사가 리살의 심장박동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나자 곧 처형이 집행되었다. 처형이 끝난 후, 필리핀 국민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스페인 당국은 비밀리에 그의 시신을 파코(Paco)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누이 나르시사(Narcisa)의 노력 끝에 그가 매장된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 “R. P. J”라는 표시를 해두었다. 리살의 시신은 1898년 8월 그의 가족이 살던 비논도현(China Town)로 옮겨졌으나 최종적으로 오늘날 리살공원으로 조성된 곳, 즉 그가 처형당한 장소에 건립된 리살기념탑 아래 묻혔다.

리살이 죽은 후 그의 정신은 필리핀 독립혁명으로 이어졌으며, 그의 소설은 더욱 더 널리 읽혀 필리핀 민족주의 정신을 길러내는 토양이 되었



[사진 4]
파코 공동묘지에 있던
리살의 무덤(위)과,
오늘날 리살의 시신이
묻혀 있는 리살 기념탑(아래)

다. 필리핀 의회는 1956년 리살법(Rizal Laws, RA 1425)을 발의하여 필리핀 민족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리살의 생애와 그의 저작들에 관한 내용을 각급 학교의 교과과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법제화하였다. 리살법의 목적은 필리핀 국민에게 민족주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활동

호세 리살의 직업은 안과 의사였지만, 그는 문학과 예술, 과학과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드러냈던 인물이었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리살은 필리핀 국민들에 대한 스페인 당국의 부당한 처우를 통렬히 비판하였고, 또한 300여 년 동안 지속된 식민통치로 인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깊숙이 뿌리내린 열등감과 비겁함, 소심함, 그리고 그릇된 오만함 등을 소설로 묘사하였다. 리살은 교육만이 식민지 필리핀의 사회적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1892년 반란음모에 연루되어 민다나오 섬 다 피탄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도 그는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몽활동을 펼침으로써 이러한 신념을 몸소 실천하였다.

유력한 정치인도, 또한 독립운동조직의 지도자도 아니었던 리살이 필리핀의 국가적 영웅으로서 추앙받게 된 데는 그가 남긴 소설 『놀리 메 땅에레』의 영향이 컸다. 1887년 스페인어로 출간된 이 소설은 이후 수십 차례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1889년 최초로 프랑스어로 번역된 이 소설은 이후 영어, 필리핀어, 일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독일어, 한국어 등 전 세계 8개 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또한 이 소설은 필리핀의 주요 지방어로도 번역되었으며, 수차례 만화와 영화 등으로도 제작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다. 『놀리 메 땅에레』는 수백 년간 서구의 식민통치 아래 신음하던 아시아인들에게 민족주의 정신을 일깨워 준 최초의 소설로서 평가되고 있다.

사실 리살은 독립운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무장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스페인 식민통치로 고통 받던 필리핀인들로 하여금 저항의

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독립운동으로까지 나서게 하는 정신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그의 사상은 필리핀의 무장독립 운동가 안드레스 보니파쇼 *Andres Bonifacio, 1863-1897*에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파쇼는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비밀결사 ‘까티푸난 *The Katipunan*’을 결성하였는데, 까티푸난은 리살을 명예 대통령으로 추대하여 그의 이름을 전쟁과 통합, 자유와 동일시하였다. 리살 자신은 무장봉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혁명보다는 인내와 희생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했고, 평화적인 방법이야말로 필리핀 민중을 더 큰 고통으로부터 구해내는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까티푸난이 식민당국에 의해 발각되었고, 리살은 그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처형되었다. 그리고 이는 필리핀에서 무장독립투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리살의 정치사상은 혁명적이기보다는 개혁적이었다. 식민통치 아래 모순덩어리가 되어버린 필리핀 사회에 대한 처방으로 그는 식민통치의 척결보다는 통치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식민지 국민들을 수탈하고 우민화하여 노예로 길들이기보다는 교육과 계몽을 통해 스스로를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식민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하였다. 온건하고 점진적인 리살의 개혁사상은 근대 개혁사상을 대변하는 인도의 간디 *Mohandas Gandhi, 1869-1948*나 타고르 *Rabindranath Tagore, 1861-1941*, 중국의 손문 *孫文, 1866-1925* 등과 사상의 맥을 같이하며, 아시아에서 식민시대를 넘어 새로운 민족국가의 시대를 여는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리살의 생애와 사상은 스페인에 이어 필리핀을 식민통치한 미국의 필리핀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의 주권을 이양받자마자 필리핀 독립군과의 전쟁에 돌입한 미국은 필리핀인을 미개한 인종으로 취급하여 민간인을 포함한 25만여 명의 필리핀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이처럼 필리핀 사람들을 미개하고 야만적인 인종으로만 여겨온 미국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이 리살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리살의 소설 『놀이 메 땅에레』의 영문 번역본인 『독수리 비행』과 그의 시 「나의 마지막 작별」을 읽게 된 당시 미국의 하원의원 쿠퍼 *Henry A. Cooper*가 이에 깊은 감명을 받아 필리핀 역사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 법안을 입안한 것이다. 쿠퍼는 의회 연설에서 필리핀 사람들은 미개하고 야만적인 민족이 아니라 그 어떤 백인보다 고귀한 사상을 가졌던 호세 리살과 같은 인물을 낳은 민족이며, 따라서 이들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역설하였다. 그의 이 연설은 일명 ‘쿠퍼법 Cooper Law’으로 불리는 필리핀 조직법 Philippine Organic Act, 1902이 미국의 회를 통과하는 데 기여하였다. 쿠퍼법을 통해 미국의 필리핀 식민정책은 유화적 동화정책 benevolent assimilation policy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필리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의회가 구성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

평가

리살은 오로지 그의 식민지 조국에 대한 인식과 비판적 사상을 표현한 문학 작품만으로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 처형당했다. 필리핀에서 그가 처형된 12월 30일은 ‘리살의 날’로 지정되었고, 그가 처형당한 마닐라의 바굼바얀은 ‘리살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그가 수감되었던 산티에고 요새 감옥과 그 주변 역시 리살을 기리는 기념물과 기념관이 세워져 스페인의 압제에 희생된 사람들과 리살의 정신을 기리는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최초의 필리피노 The First Filipino’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리살은 필리핀의 국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서구 식민통치 아래 신음하던 아시아에 민족주의 사상과 평화주의적 혁명 정신을 널리 퍼뜨린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리살에 대한 필리핀 역사가들의 평가는 시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리살이 필리핀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싹트게 한 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스페인 식민통치를 척결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독립운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그를 독립의 영웅으로서 추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리살은 1892년 필리핀 독립을 위해 결성된 비밀결사 까티푸난의 지도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으며, 무장 독립 투쟁 또한 부정하였다. 대신 스페인이 치루고 있던 쿠바전쟁에 자원함으로써 식민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필리핀 독립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던 리살의 태도는 필리핀의 진보적 역사관을 대변하는 학자들, 특히 아곤실로나 콘스탄티노 Teodore Agoncillo, Renato Constantino에 의해 비판 받았다. 이들은 오히려 가난한 농부출신으로 까티푸난을 조직하여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주도한 보네파쇼야말로 필리핀 독립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리살을 필리핀의 국가영웅으로 부상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세력이 스페인의 뒤를 이어 필리핀을 식민통치한 미국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333년 동안 지속된 스페인 식민통치가 막을 내리고, 이어 미국에 의한 식민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필리핀 역사에 있어 잔인한 시기였다. 1898년부터 1902년까지 이어진 미국과 필리핀 독립군 간의 전쟁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열했고, 이 전쟁으로 인해 필리핀의 저항적 독립정신은 철저히 붕괴되었다. 이후 미국에 의해 실시된 동화정책은 교육과 선교를 통해 필리핀 국민들을 계몽시킨 다음 일정 기간의 훈련을 거쳐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었다. 미국정부의 이러한 식민통치 이념은 리살의 계몽주의적이고 개혁적인 사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미국이 리살을 필리핀의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리살을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이었다.

오늘날의 필리핀에는 식민통치시기 구조화된 사회적 모순이 상당부분 남아 있다. 일부 엘리트가문에 의한 부와 권력의 집중, 극심한 빈부 격차, 그리고 암울한 현실을 스스로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성 등이 오랜 식민통치의 유산으로 남았다. 오늘날의 필리핀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진적 혁명주의자인 보네파쇼를 국가적 영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암울한 식민지 현실을 살아간 지식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했던 리살의 생애가 시대 상황에 따라 평가절하 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리핀 역사 속의 인물들 가운데 리살만큼 필리핀 국민과 국가에 위대한 영향을 남긴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의 생애와 사상 속에는, 현실에 순응하려 한 패배주의적 태도였다고는 감히 평할 수는 없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폭로한 저항의 정신과 실천의지가 담겨 있다.

주요 연표

- 1861년 6월 19일 라구나의 부유층 가정에 11 남매 중 7번째로 출생
- 1872년-1878년 아테네오 대학교에서 수학하여 문학/철학사 학위를 받음
- 1878년-1882년 산토 토마스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학함
- 1882년-1885년 스페인 센트랄 데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수학하여
의사학위를 취득하고 문학/철학 학위 수료
- 1885년-1887년 파리, 하이델베르크, 베를린 등으로 옮겨다니며
『놀이 메 땅에레』 집필 및 출판
- 1887년 8월 5일 어머니의 눈병 치료를 위해 귀국
- 1888년-1891년 식민당국의 압력으로 고국을 떠나 영국에 거주
- 1891년-1892년 영국을 떠나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을 떠돌며
두 번째 소설 『엘 필리부스테리스모』를 집필하고,
홍콩에 와서 안과의사로 활동
- 1892년 6월 26일 조국의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국
- 1892년 7월 3일 필리핀의 개혁을 위한 ‘라 리가 필리피나’ 조직
- 1892년 7월 6일 식민당국에 의해 불법단체 조직과 불온서적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민다나오섬의 다피탄으로 추방
- 1892년-1896년 다피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계몽활동을 함
- 1896년 7월 31일 쿠바 전선에 의료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여 다피탄을 떠남
- 1896년 9월 30일 필리핀에서 무장혁명이 발발하고,
쿠바로 가던 선상에서 체포됨
- 1896년 11월 3일 마닐라로 이송되어 산티에고 요새 감옥에 수감됨
- 1896년 12월 30일 바굼바얀의 루네파 광장으로 이송되어 처형됨



Lee Kuan Yew

16 September 1923 - 23 March 2015

LEE KUAN YEW

Singapore's Founding Father, A Leader with Realistic View and Clear Vision

SHIN Jae Hyeok, Korea University

In 1959 when Lee Kuan Yew first became Prime Minister, Singapore was just a poor harbor city in Southeast Asia. In 2011 when he stepped down as Minister Mentor, however, Singapore had grown to one of the wealthiest countries in the world. In 1964 just one year after Singapore's merger with Malaysia, a series of riots between the Malays and Chinese occurred, which led Singapore to separate from Malaysia in 1965. Another race riot took place and killed 4 people in 1969. For the next 44 years(until the 2013 Little India riot), however, Singapore never experienced any single race riot. It was Lee Kuan Yew—the former Prime Minister, Senior Mentor, and Minister Mentor—who made all those miracles happen in the country. For the economic growth, he focused on improving educational attainments of the people, attract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create jobs, and increasing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For the racial harmony, Lee made English the official language and required all political parties to nominate candidates from diverse ethnic groups. The amazing stories of Singapore are inseparable from the stories of its founding father, Lee Kuan Yew.

리관유, 냉철한 현실 감각과 예지력을 갖춘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신재혁, 고려대학교

작은 거인, 위대한 지도자에서부터 냉혈한, 독재자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리관유 李光耀, Lee Kuan Yew 만큼 다양하고 엇갈린 평가를 받는 정치 지도자는 드물 것이다. 싱가포르에 대한 이미지 역시 그러하다. 부유하고 쾌적한 도시, 부정부패가 없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부터 거리에서 껌만 뱉어도 상당한 처벌을 받고, 태형이 여전히 존재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독재국가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를 생각하면 다양하고 엇갈린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싱가포르를 만든 장본인이 리관유라는 사실이다. 건국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역사는 리관유 개인의 역사와 분리해서 설명될 수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싱가포르는 리관유가 설계하고 건설한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1954년 리관유는 인민행동당 People's Action Party, 이하 PAP을 만들어 1955년 총선에 참여하였고, 1959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집권하였다. 리관유와 그의 후계자들이 이끄는 인민행동당은 이후 치러진 13번의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여 오늘날까지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리관유와 그의 정당 PAP가 지배해 온 나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리관유가 처음 총리가 된 1959년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 400달러 정도의 가난한 도시 국가에 불과했다. 그러나 리관유가 총리직을 사임한 1990년에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000달러를 넘었고, 그가 고문장관 Minister Mentor 직을 사임한 2011년에 싱가포르는 국가경쟁력 세계 2위, 1인당 국민소득이 48,000달러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독립 초기부터 싱가포르에서는 공산주의 계열과의 갈등뿐 아니라 말레이계와 중국계 간의 갈등도 극심했다. 1962년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이듬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 합병되었으나, 1964년 7월과 9월에 일어난 중국계와 말레이계 간의 대규모 폭동으로 인해 1965년 8월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되었다. 1969년에도 중국계-말레이계 간의 충돌로 인하여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3년 리틀 인디아 폭동 때까지 44년 간 단 한 차례의 폭동 없이 민족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달성하였다.

2015년 3월 리관유가 숨을 거두자 수많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했고, 그의 장례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였다.

리관유는 누구인가? 어떻게 그는 총리직에 올라 작고 가난한 항구 도시 싱가포르를 부유한 도시 국가로 변모시켰는가? 또한 그는 어떻게 이념과 민족으로 분열되었던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싱가포르 건국 시기에서 구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만든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 이 시기에 그려졌기 때문이다. 리관유가 태어나 성장하고 정치를 시작한, 이어 국가 지도자가 되어 싱가포르라는 독립 국가를 탄생시키고 건설해간 시기야말로 싱가포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생과 성장

리관유는 1923년 9월 16일 싱가포르의 중국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모두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건너 온 중국계 이민자의 후손이었다. 할아버지는 해운회사에 근무하였고, 외할아버지는 고무농장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가족 배경을 둔 덕분에 리관유는 어린 시절 유복하게 자랄 수 있었다. 1920년대 말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하여 집안의 재산이 크게 줄어들자 리관유의 가족은 1929년,

사정이 좀 더 나았던 외가로 이사했다.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1935년 초등학교 졸업반이었던 리관유는 싱가포르 전체에서 실시되는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1등을 차지하여 싱가포르 최고 명문으로 꼽히던 래플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1940년 실시된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 리관유는 전교 1등을 차지했는데, 이는 싱가포르와 말라야 전체를 통틀어 1등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후 런던에서 법학을 공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그는 2차 대전으로 유럽이 안전하지 않게 되자 싱가포르 래플스대학에 진학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한 일본은 1941년 12월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까지 진격해 왔다. 영국군은 이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3개월 만에 항복을 선언했다. 영국 수상 처칠은 이를 두고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라고 불렀다. 일본의 승리는 리관유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전까지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비하여 아시아는 열등하다고 믿어왔던 그는 처음으로 그러한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 점령기에 리관유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성을 경험하였다. 항복 선언 후 일본군은 잠재적 저항 세력을 없애기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중국계 성인 남성들에 대한 집단 학살을 자행하였다. 중국인이었던 리관유 역시 어느 운동장에 소집되었으나 보초가 보내준 덕에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당시 운동장에 모였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해변으로 끌려가 총살당했는데, 리관유는 훗날 “생과 사의 중대한 갈림길이 어찌면 그토록 아무렇지도 않게 나뉘지게 되었는지 앞으로도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당시의 일을 회고하였다. 일본군 치하에서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0만 명의 싱가포르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이 패망하고 돌아가자 영국이 다시 돌아왔다.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를 환영하였으나 전후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말레이 공산당 계열을 중심으로 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운동도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혼란기에 리관유는 유학을 결심하고 1946년 9월 영국으로 떠났다.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 기간 리관유는 싱가포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으로부터

터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기대와는 달리 영국의 지도자들이 식민지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식민지를 이용하려 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케임브리지 법대에 진학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딴 리관유는 1949년 8월 싱가포르로 돌아왔다.

정치 입문과 집권

싱가포르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리관유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돕는 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영국 식민지하에서 영국인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던 싱가포르인의 불만은 높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의 식민 통치가 다시 시작되자 싱가포르 노동자들은 마침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리관유는 1952년 5월, 집배원과 전화교환수 노조의 파업을 도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비폭력 합법 시위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얻어 영국 식민정부 관료들을 압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일로 명성을 얻은 그는 같은 해 12월의 해군기지 노조 파업, 이듬해 3월의 우체국과 전화통신 노조 파업 등 굵직한 노동운동 사건에서 법률고문직을 맡아 좋은 성과를 냈고,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갔다.

한편 중국계가 다수를 차지하던 싱가포르에서는 공산주의가 인기를 얻고 있었다. 1949년 중국 본토에서는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미국의 지원을 받던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는 해외의 중국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들도 공산당을 중심으로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에서는 공산당이 제시하는 평등한 사회 건설의 구상이 사람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싱가포르의 중국계 노동자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말레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영국을 몰아내고 평등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열기가 고조되었다.

리관유는 공산주의자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현실을 재단한다고 생각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극단적

인 방식의 평등 사회 건설은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믿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과 같이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이 독립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동시에 리관유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온건개혁파가 국가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그는 공산주의자들로 부터 협력을 얻지 못하면 집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여전히 다수 중국계 노동자와 학생들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955년 4월 첫 번째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것을 결심한 리관유는 공산주의 계열의 대표 주자 립친시옹과 손을 잡고 1954년 11월, 인민행동당 *People's Action Party*, 이하 PAP을 창당하였다.

25개 지역구에서 싱가포르 역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을 선출한 1955년 총선에서 리관유의 PAP에서는 4명이 출마하여 3명이 당선되었다. 그 중 한 사람이 리관유 본인이었다고, 다른 2명 중 한 사람은 립친시옹이었다. 이 선거에서 가장 많은 10석을 확보하여 초대 총리에 오른 사람은 노동전선 *Labour Front* 대표 데이비드 마셜이었다. 마셜은 취임 직후부터 공산주의 계열(립친시옹)이 주도하는 거센 노동자 파업과 학생 시위에 시달렸다. 강력한 공권력 사용을 주저했던 마셜은 이듬해 런던에서 열린 싱가포르 자치정부에 관한 회담이 결렬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마셜에 이어 총리가 된 노동전선의 립유혹은 강력한 반공정책을 펴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였다. 각종 시위와 파업을 이끌던 립친시옹 역시 구속되었다.

당내에서 공산주의 계열을 제거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들이 상당수 중국계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까닭에 리관유는 서두르지 않았다. 다가오는 1959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리관유는 총선에서 PAP가 승리하면 립친시옹을 비롯한 공산 계열 지도자들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중도 온건파부터 좌익 급진파에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리관유의 PAP는 1959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전체 51석 가운데 43석을 석권한 것이다. 이 승리로 리관유는 총리에 선출되어 싱가포르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



[사진 1]
선거 유세하는 리관유

말레이시아로의 합병과 분리 독립

총리가 된 리완유 앞에 놓인 과제들은 만만치 않았다. 거의 파탄에 이른 경제를 되살려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총선 직후 석방된 림친시옹 등 공산주의 계열을 제압해야 했다. 석방되자마자 이들이 싱가포르의 공산화를 위해 노동자와 학생들을 다시 선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작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말라야(1963년부터 말레이시아)라는 큰 시장에 편입될 필요가 있었다. 영국 식민지 시절 싱가포르가 무역항으로서 번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석과 고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대한 배후지 말라야가 있었기 때문이다. 말라야와 분리 독립하는 경우, 만약 말라야와의 관계가 나빠져서 교역이 중단되기라도 한다면 싱가포르의 생존은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심지어 싱가포르 사람들이 사용하는 식수마저 인접한 말라야의 조호르바루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다.

리완유는 싱가포르가 말라야 연방에 편입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 믿었다. 그렇게 된다면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말라야 정부의 힘을 빌려 공산주의 계열 또한 제거할 수 있을 것이었다. 많은 중국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공산주의 계열을 자신이 직접 탄압하고 나선다면 자신과 PAP에 대한 지지가 크게 낮아질 위험이 있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리완유는 말라야 총리 툰쿠 [Tunku Abdul Rahman](#)에게 싱가포르를 연방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어렵게 획득한 권력을 툰쿠에게 양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툰쿠를 위시한 말라야 지도부는 싱가포르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했다. 중국계가 다수인 싱가포르가 편입된다면 말라야 인구에서 중국계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중국계 공산주의자들의 문제를 떠안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이었다. 말라야는 크게 세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수는 토착 말레이인들이었고, 영국 식민지시기에 인구가 크게 늘어난 중국계와 인도계가 뒤를 이었다. 인구는 말레이계가 다수였지만 부의 대부분이 중국계에 집중되어 있었던 까닭에 말레이계와 중국계 간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었다.

2차 대전 후 각 종족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을 만들었다. 말레이계는 통일말레이국민조직(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이하 UMNO)을, 중국계는 말레이시아화교협회(Malaysian Chinese Association, 이하 MCA)를, 인도계는 말레이시아인도인회의(Malaysian Indian Congress, 이하 MIC)를 각각 창설하였다. 말레이시아 최초의 총선이 다가오자 말레이계 UMNO는 중국계 MCA, 인도계 MIC와 함께 1952년 동맹당(Alliance Party)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1955년 총선에서 52석 중 51석을 석권하여 집권한 이래, 1973년 국민전선(Barisan Nasional)으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 오늘날까지 집권을 유지하고 있다.

동맹당을 주도하는 UMNO는 말라야에서 말레이인의 우위(Malay supremacy)를 주창하였다. 이를 위해 1957년, 공직과 사업 허가, 장학금과 대학 입시에 쿼터를 부여하여 말레이인을 우대하는 조항(Article 153)을 헌법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그런데 만약 중국계가 다수인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 편입될 경우 중국계 유권자 수가 크게 늘어나 말레이인의 우위가 위협받을 수 있었다. 이에 리관유는 말레이인이 절대 다수인 보르네오 섬의 사바(북보르네오)와 사라왁을 싱가포르와 함께 말라야 연방에 편입시켜 말레이계 인구가 다수를 굳건히 지키도록 하는 안에 동의하였다.

결국 툰구는 사바, 사라왁과 함께 싱가포르를 말라야와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계열은 말라야 정부가 싱가포르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UMNO 등 말라야 지도부가 강력한 반공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립친시옹 등 공산주의 계열은 1961년, 말라야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리관유의 PAP를 떠나 사회주의전선(Barisan Sosialis)을 창설하여 합병 반대운동을 벌였다. 리관유는 국민투표를 통해 합병 반대를 누르기로 결정한다. 1962년 9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싱가포르 유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말라야와의 합병에 찬성했다. 이로써 합병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계열은 명분을 잃었고, 1년 뒤인 1963년 9월 16일, 말라야와 싱가포르, 사바, 사라왁이 합쳐진 말레이시아 연방이 수립되었다.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으로서 싱가포르는 오래 가지 못했다. 리관유와 PAP가 말레이계의 우위를 유지하려던 UMNO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건립 직후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1963년 9월 총선에서

집권 동맹당은 싱가포르동맹당을 결성하여 선거에 참여하였다. 선거 결과는 동맹당 지도부 UMNO에 큰 충격을 주었다. PAP가 51석 중 37석을 차지한 반면 싱가포르동맹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하였고, 심지어 말레이계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UMNO 후보가 PAP 후보에 지고 말았던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의 연방 편입으로 중국계 인구가 말레이계 인구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UMNO 지도부는 PAP의 인기에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동맹당의 중국계 정당 MCA가 있었으나 MCA로는 PAP를 대적하기 어려워 보였다. 툰쿠 총리를 비롯한 UMNO 지도부는 말레이계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MCA와 계속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MCA를 버리고 꺾끄럽긴 하나 중국계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PAP와 손을 잡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UMNO 지도부의 선택은 PAP를 버리는 것이었다. 1964년 4월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PAP는 싱가포르를 넘어 말레이시아 본토(말라야)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선거에서 PAP는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동맹당 소속 MCA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공산계열 사회주의전선에 투표하는 중국계 유권자들에게 MCA나 사회주의전선 대신 PAP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UMNO의 사무총장 알바르 Syed Jaafar Albar는 당 기관지 역할을 하던 <우투산 멜라유>를 통해 리관유와 PAP가 싱가포르에서 중국계를 우대하고 말레이계를 차별한다는 악의적인 모함을 시작하였다.

선거 결과 PAP는 불과 한 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알바르는 종족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모하메드 탄생 기념 일인 1964년 7월 21일, 말레이계와 중국계의 유혈 충돌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기념행진을 벌이던 말레이계 무슬림들이 중국계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중국계가 반격에 나서 말레이계를 공격한 것이다. 8월 2일까지 계속된 이 폭동으로 23명이 사망하고 45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불과 한 달 뒤인 9월 2일 말레이계 삼륜차 운전사의 죽음으로 또다시 폭동이 일어 13명의 사상자와 10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1964년에 일어난 이 두 차례의 폭동으로 말레이계와 중국계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사진 2]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후
기자회견하는 리완유

리완유는 종족 차별 없이 말레이시아인 전체를 위한 말레이시아(Malaysian Malaysia)를 건설할 것을 주창한다. 말레이계가 우위에 있는 말레이시아를 만드려는 UMNO 지도부는 이런 리완유를 중국계를 우대하고 말레이계를 억압하는 인사로 몰아갔다. 리완유와 UMNO 지도부가 화해할 길이 보이지 않자 결국 툰쿠 총리는 리완유와 싱가포르를 연방에서 축출하기로 결심한다. 어렵게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합병되었던 싱가포르는 2년도 채우지 못한 1965년 8월 9일, 연방에서 분리되어 독립하게 되었다.

신생 독립 국가 건설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싱가포르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거대한 배후지를 잃게 되어 경제가 위축될 것도 걱정스러운 일이었지만, 당장 국가 안보가 위태로웠다. 알바르를 비롯한 UMNO 지도부 내에서 싱가포르의 독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말레이시아 정부가 싱가포르를 다시 점령하려고 나설 수도 있었고, 말레이시아 연방 결성을 반대해 온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이 군사를 움직여 공격해 올 수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리완유는 곧 떠나게 될 영국군의 주둔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영국 정부와 협상하여 1971년까지 주둔을 연장하는데 성공한 리완유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한편 이스라엘에 도움을 청하여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신생 국가의 정부는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동시에 경제를 성장시켜 국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다. 리완유는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면 고도성장이 가능하리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그는 교육 기관에 많은 투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고등 교육을 받도록 장려하였다. 또한 결혼과 국적취득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의 인재도 적극적으로 영입하였다. 해외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금 혜택과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Singapore 리관유

[사진 3]
노년의 리관유

그런 한편으로 리완유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벌였다. 법률을 강화하여 반부패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신의 측근과 고위직 인사라도 부패행위가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였다. 또한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여 금품 수수의 유혹을 떨칠 수 있게 하였다.

1964년 폭동 이후 잠잠해졌던 말레이계와 중국계 사이의 갈등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폭발하였다. 1969년 5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프탈링자야에서 발생한 폭동이 5월 31일이 되자 싱가포르에까지 확산된 것이다. 1주일 동안의 폭동으로 4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종족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리완유는 중국어나 말레이어가 아닌 영어를 단일 공용어로 채택하여 모든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 때엔 각 정당들이 의무적으로 여러 종족의 후보를 출마시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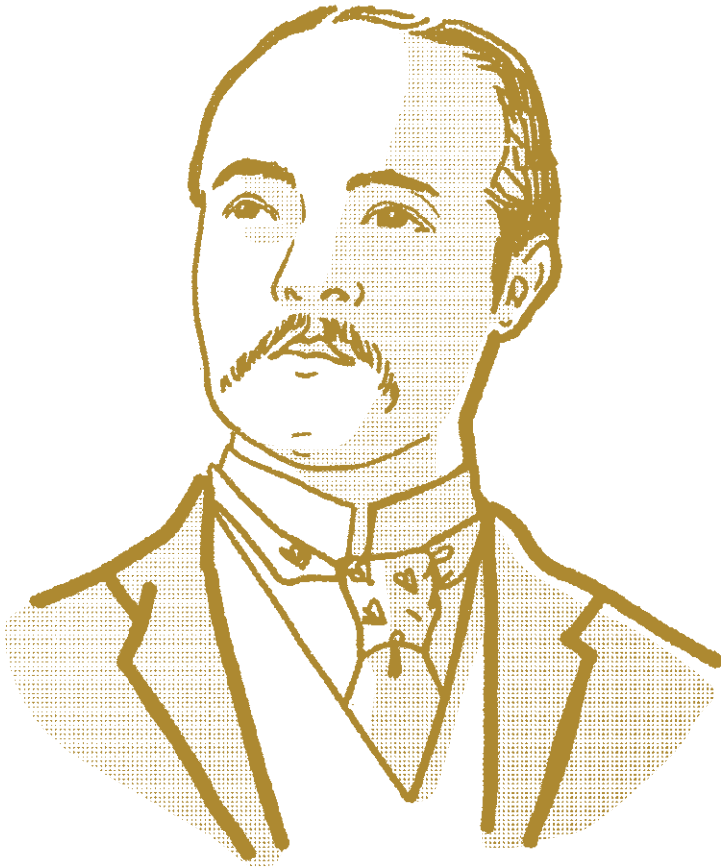
안보와 경제 성장, 폭동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율을 통한 질서와 안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태형과 같은 가혹한 형벌을 유지했고, 외국 인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나친 복지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고 믿은 리완유는 무상 복지를 거부하고 주택과 의료, 교육 부문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는 특히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집 걱정은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여, 1960년 2월 주택개발위원회(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HDB는 1965년까지 54,430채를 건설하여 저소득층에게까지 저가의 주택을 공급하였다.

이처럼 리완유가 설계하고 건설한 싱가포르는 이후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능력 있는 지도자의 헌신이 있다면 열악한 조건을 가진 국가라도 충분히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리완유가 이끈 싱가포르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연표

- 1923년 9월 16일 리관유 출생
- 1929년 대공황으로 가세가 기울자 외가로 이사
- 1935년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싱가포르 전체 수석으로 래플스 중고등학교 입학
- 1940년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 싱가포르, 말라야 전체 수석으로 래플스 대학 입학
- 1941년 12월 일본군 싱가포르 침략
- 1946년 9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남
- 1949년 8월 캠브리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딴 후, 싱가포르로 귀국
- 1952년 5월 집배원과 전화교환수 노조 파업
- 1952년 12월 해군기지 노조 파업
- 1953년 3월 우체국과 전화통신 노조 파업
- 1954년 11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 창당
- 1955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
- 1959년 5월 총선에서 PAP가 압승하여 총리직에 오름
- 1960년 2월 주택개발위원회(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 설립
- 1962년 9월 말라야와의 합병안 국민투표에서 가결됨
- 1963년 9월 16일 말레이시아 연방 수립
- 1963년 9월 21일 싱가포르 총선에서 PAP 압승, 동맹당 참패
- 1964년 4월 말레이시아 총선에 PAP 참여하여 1석 획득
- 1964년 7월 21일 말레이계-중국계 폭동 발생(23명 사망, 454명 부상)
- 1964년 9월 2일 말레이계-중국계 폭동 재발(13명 사망, 106명 부상)
-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
- 1969년 5월 31일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된 말레이계-중국계 폭동
싱가포르로 확산(4명 사망, 80명 부상)
- 1990년 11월 28일 총리직 사임 후 선임장관(Senior Minister)직에 취임
- 2004년 8월 12일 선임장관직 사임 후 고문장관(Minister Mentor)직에 취임
- 2011년 5월 21일 고문장관직 사임
- 2015년 3월 23일 향년 91세로 서거



Chulalongkorn

20 September 1853 - 23 October 1910

KING CHULALONGKHORN THE GREAT

The Source of National Pride among the Thai People

LEE Mij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ulalongkhorn was the fifth king **RamaV** of Chakri Dynasty. Earning the title of “Great King **Maharaj**,” he has enjoyed reverence as the greatest monarch in the history of Thailand. The biggest reason for his high praise among the Thai people is that he maintained the independence of Thailand when all the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became colonies of the European powers. Thailand is, in fact, the only nation in Asia that was not under colonial rule except for Japan. The Thai people have huge national pride in the fact. This paper set out to trace and assess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King Chulalongkhorn the Great most admired by the people of Thailand. Placing a special focus on his reactions to the colonization process, This paper examined how Thailand survived as the only independent nation in Southeast Asia.

Chulalongkhorn left many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Thailand for 43 years in the throne before he passed away on October 23, 1910 at the age of 57. During his reign, Thailand faced a crisis of life or death as a nation. Before the imperialist threats of the Western powers, Thailand decided to promote modernization. Most of its reforms were carried out under the leadership of Chulalongkhorn. There was a shocking reform wave sweeping the entire nation from the mode of dress to administration,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hulalongkhorn implemented a strategy of building Thailand into a modern state itself and incapacitating the cause of colonization touted by the Western powers. That is, he was determined not to give a pretext for invasion, which includes “Thailand as a nation that should be protected and developed,” to

the Western powers. Most of his reform plans became success. In addition, Chulalongkorn exerted his neutral and flexible diplomatic skills between the two powers of the U.K. and France. He ceded the territory of Thailand to France and the U.K. in total five times during his rule, thus keeping the nation from the threat of colonization.

Thailand would not have been able to maintain its independence without his superior diplomatic abilities to take advantage of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the U.K. and France appropriately and his modernization outcomes backed by the people of Thailand. There is no doubt that his achievements of keeping the nation's autonomy intact deserve high praises.

쭈라롱껐 대왕: 태국인의 민족적 자긍심, 그 원천

이미지, 부산외국어대학교

들어가는 말

Shall We Dance? 율 브리너 Yul Brynner와 데보라 커 Deborah Kerr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뮤지컬 영화 ‘왕과 나’ The King and I, 1956의 유명한 테마곡이다. 마가릿 랜든 Margaret Landon의 소설 ‘애나와 싸얌 왕’ Anna and the King of Siam, 1944 이 원작인 이 영화는 19세기 중반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위협에 처한 격동의 싸얌 Siam, 옛 국명 (1939년 태국으로 개명)이 그 무대가 되고 있으며, 짝끄리 왕조 Chakri Dynasty의 라마 4세 몽궂과 영국인 교사 애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1999년에는 주윤발과 조디 포스터 Jodie Foster 주연의 영화 ‘애나 앤드 킹’ Anna and the King으로도 리메이크 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랏따나꼬썬 Rattanakosin 왕조 또는 방콕 Bangkok 왕조라고도 불리는 짝끄리 왕조는 태국의 네 번째 왕조로서, 1782년 초대왕 짜오프라야 짝끄리 Chao Phraya Chakri (정식명칭 Buddha Yodfa Chulaloke)에 의해 새 수도 방콕을 거점으로 건설되어 지금의 라마 10세로 이어지고 있는 현 왕조의 이름이다. 영화 ‘왕과 나’에 등장하는 태국 왕 몽궂 Mongku (정식명칭 Chomkiao, 재위 1851-1868)과 애나 레오노웬스 Anna Leonowens 그리고 몽궂의 아들인 쭈라롱껐 Chulalongkorn은 모두 실존했던 인물이며,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국인 가정교사 애나로부터 교육받는 쭈라롱껐의 유년시절을 엿볼 수 있었다.

영화가 개봉되던 당시 태국은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Bhumibol Adulyadej, 재위 1946-2016의 치세 하에 있었다. 주인공 몽궂과 그의 아들 쭈라롱껐은 푸미폰왕에게는 각각 증조부, 조부가 된다. 실재하는 현 왕실을 무대로 한 이 영화는 해외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아 태국 왕실을 알리는 데 기여했지만, 역설



[사진 1]
영화 The King and I(1956년)와
Anna and the King(1999년)

1 형법 제112조불경죄는 “국왕, 왕비, 왕위계승자 또는 섭정을 비방,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자는 3년에서 15년의 금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어 태국 왕실에 대한 어떤 비난도 허용하지 않는다.

적이게도 태국 내에서는 불경죄¹가 적용되어 현재까지도 상영이 금지되어 있다. 왕실을 비하하고 왜곡, 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쥘라롱껐은 짝끄리 왕조의 다섯 번째 왕라마 5세으로, ‘마하랏’^{Maharaj,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서 존경받고 있다. 그가 태국에서 높이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태국 주변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상황에서 독립을 지켜낸 왕이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이며, 이 사실에 대한 태국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은 매우 크다. 이 글은 태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 쥘라롱껐왕의 생애와 업적을 추적하고 평가한다. 특히 식민화 과정에 대한 그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태국이 어떻게 동남아시아 유일의 독립국으로서 존속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

해외에서 ‘쥘라롱껐’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진 그의 정식 명칭은 프라 бат 솜땃 프라 쥘라썸끌라오 짜오 유 후어^{Phra Bat Somdet Phra Chula Chomklao Chao Yu Hua}이다. ‘쥘라롱껐’은 유년시절 그의 왕자명이다. 쥘라롱껐은 1853년 9월 20일 화요일, 몽꿋왕의 82명의 자녀 중 아들 38명과 딸 44명 가운데 아홉 번째로 태어났다. 일반적으로 태국인은 자신이 태어난 요일을 기억한다. 태국에는 요일별로 행운의 색이 존재하는데, 태국의 현 국왕과 씨리킷^{Sirikit} 왕비의 상징색이 각각 노란색과 하늘색이 된 것은 모두 그들이 태어난 요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노란색은 월요일, 하늘색은 금요일의 색이며, 쥘라롱껐이 태어난 화요일을 상징하는 색은 분홍색이다. 태국 최고의 명문대 쥘라롱껐 대학의 상징색이 분홍색이 된 것은 이 때문이다. 학교명에서 알 수 있듯이 쥘라롱껐 왕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화요일의 행운색이 상징색으로 채택된 것이다.

몽꿋의 두 번째 정식부인인 람퍼이 왕비^{Ramphoei}(정식명칭 Somdet Phra Thepsirinthara)는 4명의 자녀 중 3명의 왕자와 1명의 공주를 남긴 채 1961년,

31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쥘라롱껀은 그녀의 장남으로, 그의 어머니가 서거할 당시 그의 나이는 만 7세였다. 어머니 랍퍼이 왕비가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쥘라롱껀은 어릴 때부터 유력한 왕위계승자로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특히 그는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화 ‘왕과 나’를 통해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아홉 살 때부터 4년 동안 영국인 교사 애나로부터 영어를 배웠고, 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영국인 패터슨 Patterson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태국왕실의 전통에 따라 그는 1866년 7월, 13세의 나이로 사미승으로 출가하여 약 6개월간 승려로서 지내기도 하였다.

쥘라롱껀의 아버지 몽곳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1868년 10월 1일 말라리아로 서거하였다. 쥘라롱껀은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귀족 분낙가문의 추왕분낙 **Chuang Bunnag** (정식명칭 Somdet Chaophraya Sri Suriyawong)의 지지를 받아 1868년 11월 11일, 라마 5세로 즉위하였다. 하지만 추왕분낙은 즉위 당시 만 15세였던 어린 왕이 성인이 된 1873년까지 5년간 섭정했다. 이 섭정 기간 동안 쥘라롱껀은 인도와 싱가포르, 미얀마, 자바 등의 서구 식민지 국가를 방문하면서 식민지배의 실정 및 서구 근대 문명과 국제정세를 눈으로 직접 파악하고 견학하였다. 이때의 경험은 그가 근대적 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세 성인이 된 쥘라롱껀은 1873년 11월 16일, 두 번째 대관식을 거행하면서 비로소 태국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10월 23일, 57세의 나이로 서거하기 전까지 왕으로서 재위한 43년간 쥘라롱껀은 태국 역사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가 재위하던 시기 태국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위협 앞에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 위기와 격동의 시기에 태국이 선택한 것은 근대화였고, 대부분의 개혁이 쥘라롱껀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이로써 그는 태국의 독립을 지켜냈다.

동남아시아 유일의 독립국, 태국

아시아에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면 태국이 유일하



Thailand
쭈라롱껐

[사진 2]
쭈라롱껐(정중앙)과 그의 아들들. 쭈라롱껐은
4명의 정식부인(이복남매)을 포함해
36명의 부인을 두었고, 이들과의 사이에서
32명의 아들과 44명의 딸을 두었다.

다. 태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피하여 자주권을 지킬 수 있었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19세기 후반은 태국에게 있어 국가존망이 걸린 위기의 시대였다. 이처럼 심각한 위기의 시기에 왕으로 즉위한 인물이 쥘라롱껀이었다.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는 산업혁명을 거치고 열강으로 부상한 영국과 프랑스 두 강대국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각축장이었다. 그 결과 결국 캄보디아(1863년)와 베트남(1884년), 라오스(1899년)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그리고 미얀마(1886년)와 말레이시아(1896년)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써 인도차이나 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한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서쪽과 남쪽은 영국의 지배를, 동쪽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태국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화 위협에서 주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과 유연한 외교정책이다. 모두 국왕이 주도하여 전개한 정책이다.

먼저 근대화 달성을 위한 개혁이다. 라마 4세 몽꿋이 근대화의 길을 열어 그 기반을 다진 왕이라면, 근대화를 실현한 것은 라마 5세 쥘라롱껀이었다. 쥘라롱껀은 두 번째 대관식이 거행된 1873년 11월 이후 즉시 개혁에 착수하였다. 의복양식에서부터 행정, 교육, 교통, 통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서 파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쥘라롱껀의 전략은 스스로 근대적



[그림 1]
인도차이나의 식민지화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서구열강의 식민지화 명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즉 서구열강이 ‘보호’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없도록 국왕이 직접 주도하여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태국이 근대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를 서구열강에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쫄라롱껐은 먼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바짝 엮드려 절하는 부복제를 전근대적 인사법이라 하여 폐지하였다. 또한 그는 장기간에 걸쳐 노예 해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1905년 태국에서는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외에도 학교가 설립되고, 전화와 우편 등 통신사업이 개시되었으며, 철도와 도로, 수도 등의 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다방면에 걸친 근대화 개혁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이처럼 쫄라롱껐의 주도 아래 위로부터 이루어진 일련의 개혁을, 현 왕조의 이름을 붙여, ‘짜끄리 개혁’이라 부른다.

1874년이 되자 국정자문위원회와 추밀원이 설치되었고, 관료제가 도입되었다. 물론 이들 행정기구가 제대로 기능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근대적 행정체제로의 개편은 결과적으로 왕권 강화에 기여하여 태국은 서양의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 및 교류가 가능한 국가형태로서 구색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은 거세었다. 반대세력과의 갈등과 대립으로 개혁은 잠시 주춤했지만, 1880년대에 추잉분낙(1882년 서거)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중심세력이 사망하면서 쫄라롱껐의 개혁은 본격화되었다. 근대적 중앙집권국가 건설을 목표로 그는 기존의 권력분산형 정치체제를 중앙집권체제로 전환하였다. 즉 귀족이 각 지방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분권적 통치체제에서 정치권력이 왕으로 집약되도록 통치구조를 재편한 것이다. 이렇게 쫄라롱껐이 전개한 개혁은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근대국가 건설에는 유능한 인재가 필수적이다. 쫄라롱껐은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한편 전문 관료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전까지 태국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곳은 궁정 및 사원 등과 같은 비공식 교육기관이었다. 쫄라롱껐은 학교를 개설하고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공교육을 도입하였다. 1871년 왕궁 내 왕립학교 *the Royal Pages Barrack*, 쫄라롱껐 대학의 전신 설립을 시작으로, 영어학교 및 육군사관학교 *the Army*

Cadet School, 불교학학교 the School for Dharmma Studies, 왕자양성학교 the School for Princes 등 수많은 학교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그는 왕실 자녀들의 해외유학을 적극 장려하여 자신의 대부분의 아들들을 유럽으로 유학 보냈다. 이 시기부터 해외유학이 유행하여, 현대 태국사회 중산층 자녀들의 필수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태국이 식민지화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으로는 유연한 외교정책을 들 수 있다. 태국의 전통적인 외교방식으로 오늘날까지 종종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줄다리기 외교’ 또는 ‘대나무 외교’ bamboo diplomacy 라 불리는 외교방식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채 양쪽이 팽팽히 균형을 유지하는 줄다리기와 같은,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기는 하나 꺾이지는 않는 대나무와 같은 중립적이면서 유연한 외교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쫄라롱군은 영국과 프랑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처럼 중립적이면서 유연성 있는 외교술을 발휘하였다.

영국과 프랑스의 본격적인 통상관계는 몽곳의 재위기간에 시작되었다. 1851년 47세 나이에 라마 4세로 즉위한 몽곳은 1854년,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온 대중국 조공을 중단하여 중국에 대한 종속관계를 끝냈다. 대신 그는 서구와의 교역을 중시하여, 1855년 4월에는 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영국측 대표자 존 바우링 John Bowring의 이름을 따 이른바 ‘바우링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영국의 치외법권과 방콕 거주권, 태국 내 모든 항구에서의 교역권 등을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태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의 불평등조약이었다. 이어 태국은 1870년까지 프랑스와 미국 등 12개국 과도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왕실독점무역이 붕괴되고, 아편을 제외한 모든 물자의 교역이 자유무역체제로 전환되어 태국은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지만, 대신 당장의 식민지화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거세지는 식민지화 압박으로부터 태국이 계속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강제적인 것이었긴 하나, 태국의 선택은 영토 할양이었다. 태국은 총 6차례에 걸쳐 프랑스—5차례—와 영국—1차례—에 영토를 할양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을 지켰다. 영국에게는 말레이반도의 일부를 할양하였고,



[사진 3] 두셋(Dusit)
구역의 쫄라롱껐 기마상
©이미지2017



[사진 4] 두셋 구역에 위치한 아난따 싸마콤 궁전(Ananta Smakhom Throne Hall). 쫄라롱껐에 의해 1908년에 건축되기 시작하여 그의 사후 5년이 지난 후 1951년에 완공된 근대식 건물이다.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두셋은 쫄라롱껐이 유럽 방문 후 유럽풍 건축물에서 영향을 받아 새롭게 정비한 공간이다. 그는 1897년과 1907년 두 차례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미지2017

프랑스에게는 지금의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을 할양하였다. 최초의 영토 할양은 쾨라롱건의 즉위 전인 1867년에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5차례는 모두 쾨라롱건의 재위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주목할 지점은, 프랑스와 영국을 상대로 이루어진 1907년과 1909년의 영토 할양이 이전까지와는 달리 두 강대국의 요구를 일방적이고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할양의 대가로 태국은 프랑스로부터 영토 일부를 반환받았고, 영국으로부터는 철도건설자금을 확보하였다. 영사재판권 폐지 등 양국 간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1909년 태국 남부의 말레이반도 4개 주를 영국에 할양하는 것을 끝으로 태국을 둘러싼 오늘날의 국경이 확정되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이라는 국가의 영토가 정해지는 순간이었다.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쾨라롱건의 적극적인 영토 할양 결과 영토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지만 대신 태국은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직접 통치가 아닌 조공을 통한 간접 통치라는 동남아의 전통적 지배방식에서는 오늘날처럼 영토 의식이 뚜렷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영토 할양의 중대성이 인지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후 태국에서도 영토 및 국경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이 시기 이루어진 영토 상실은 피분 정권기^{1938-1944년} 타이 민족주의에 기초한 실지회 복운동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평가

쾨라롱건이 서거한 지 한 세기가 지났다. 그에 대한 태국 내 평가는 단연 높다. 2017년 10월 26일 치러진 라마 9세 푸미폰 국왕의 다비식에서 슬픔에 빠져 애도하는 수많은 태국 국민들의 모습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었는데, 푸미폰왕 만큼이나 국민들의 절대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왕은 아마도 쾨라롱건왕일 것이다. 쾨라롱건은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의 근대화에 큰 업적을 남겼다. 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위대한 쾨라롱건 대왕을 기념하고 있다.



[사진 5]
현재 통용되고 있는 1000바트 뒷면



[사진 6]
2017년 9월 28일 쭈라롱껀 대학
학위수여식. 라마 5세와 라마 6세 동상
앞에서 졸업생들이 인사를 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쭈라롱껀의
상징색인 분홍색 교기가 휘날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미지2017

태국 역사에서 ‘마하랏’이라는 칭호를 받는 대왕은 세 명이다. 태국 문자를 고안한 쑤코타이 왕조의 람캄행 대왕, 버마현 미얀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획득해 아유타야 왕조를 재건한 나레쑤언 대왕, 그리고 현 왕조의 쫘라롱껀 대왕이다². 쫘라롱껀이 서거한 날짜인 10월 23일은 ‘완빠야마하랏’^{Wan Piyamaharaj 또는 King Chulalongkorn Day}이라는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태국 지폐 가운데 가장 큰 단위인 1000바트의 뒷면에서도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쫘라롱껀 대학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인 라마 6세 와치라웃 Vajiravudh, 재위 1910-1925이 1917년에 설립한, 태국 최초의 근대 대학이자 태국을 대표하는 최고 대학이다.

쫘라롱껀에 대한 해외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는 1999년 미국 뉴스잡지 타임 TIME지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인 20명’ 중 한 사람으로 오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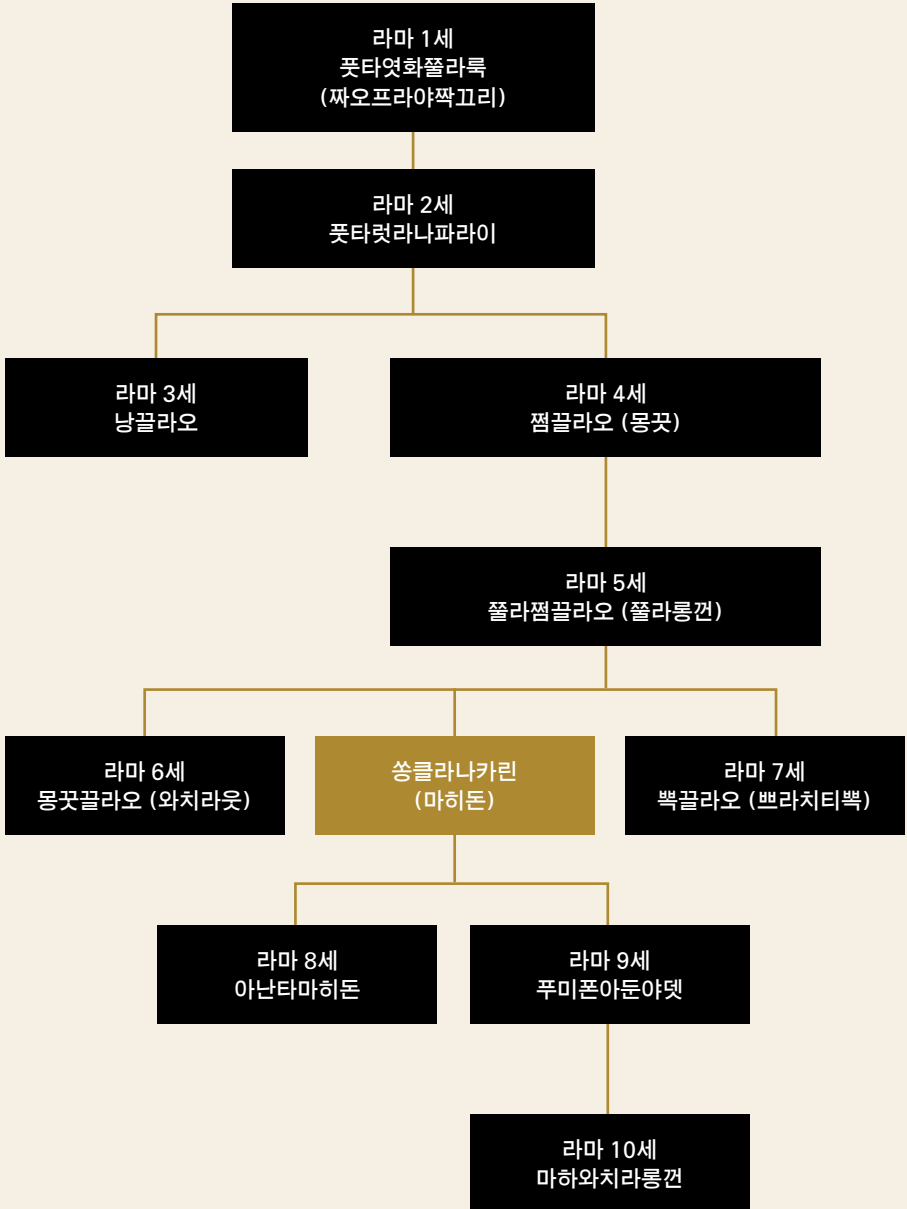
물론 태국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쫘라롱껀의 리더십이 아닌,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태국을 중립국으로 두자는 영국의 제안에 프랑스가 합의한 결과 태국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 서쪽에서 진출해온 영국과 동쪽에서 진출해온 프랑스가 태국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1896년 1월 짜오프라야 강 유역에는 군사를 주둔시키지 않고 특권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불선언이 발표되었고, 1904년 4월 양국은 태국의 독립 유지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태국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을 당시의 지정학적 요인과 강대국 간의 합의로만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점들이 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합의한 ‘짜오프라야 강 유역’이 동북부와 남부를 포함하지 않는 일부 지역일 뿐 지금의 태국 영토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태국 영토의 분할을 원했던 프랑스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 또한 있었다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양국의 대립과 긴장을 적절히 이용한 쫘라롱껀의

² 태국에는 이들 왕의 이름을 붙인 대학이 존재한다. 쫘라롱껀 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 람캄행 대학(Ramkhamhaeng University), 나레쑤언 대학(Naresuan University)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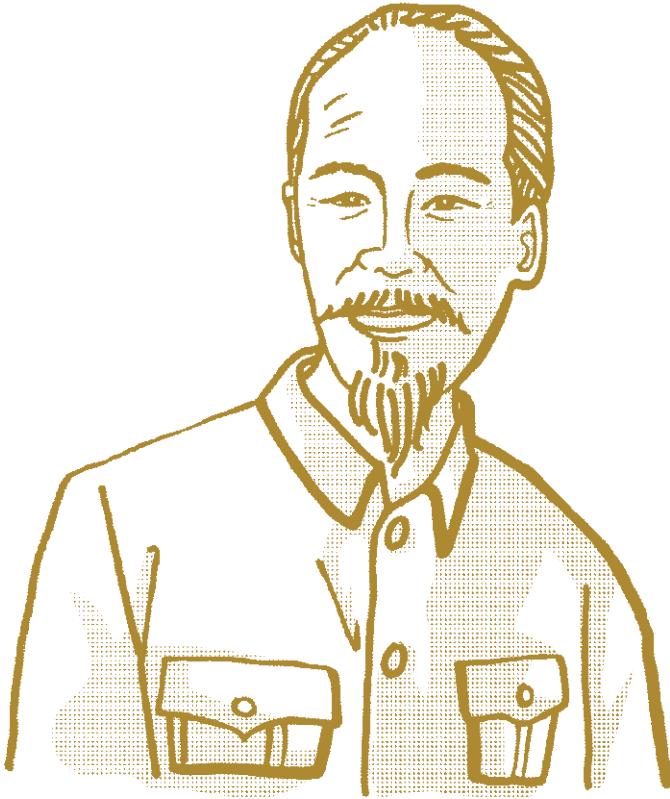
탁월한 외교적 수완과 자력에 의한 근대화 성과가 없었다면 태국의 독립은 불가능했으리라는 분석이 타당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합의된 영역 이외의 영토에 대한 자주권까지 지켜낸 쥘라롱겐의 업적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짜끄리왕조 왕계도



주요 연표

- 1853년 9월 20일 쯔라롱껐 출생
- 1855년 4월 18일 영국과 바우링조약 체결
- 1863년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지로 전락
- 1867년 프랑스에 영토 할양
- 1868년 10월 1일 몽곳 서거
- 1868년 11월 11일 쯔라롱껐이 라마5세로 즉위
- 1868년-1873년 추잉분낙의 섭정
- 1873년 11월 16일 쯔라롱껐의 두 번째 대관식, 근대화 개혁에 착수
- 1884년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로 전락
- 1886년 미얀마가 영국 식민지로 전락
- 1888년 프랑스에 영토 할양
- 1893년 프랑스에 영토 할양
- 1896년 말레이반도 전역이 영국 식민지로 전락
- 1896년 1월 “짜오프라야 강 유역을 완충지대로 한다”는 영불선언이 발표됨
- 1899년 라오스가 프랑스 식민지로 전락
- 1904년 4월 8일 영불협상, 태국의 독립 유지 결정
- 1904년 영국과 프랑스에 영토 할양
- 1905년 노예제 폐지
- 1907년 3월 27일- 11월 17일 쯔라롱껐의 유럽 체류
- 1907년 프랑스에 영토 할양
- 1909년 영국에 영토 할양(현재의 태국 영토 확정)
- 1910년 10월 23일 쯔라롱껐 서거



Ho Chi Minh

19 May 1890 - 2 September 1969

HO CHI MINH

Extraordinary in mediocrity

BAE Yangsoo,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o Chi Minh was born on May 19, 1890, in a village in central Vietnam(then part of French Indochina). In 1911, he found work as a cook on a French steamer and spent the next several years at sea, traveling to Africa,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among other locations. By 1919, he was living in France, where he organized a group of Vietnamese immigrants and petitioned delegates at the Versailles Peace Conference to demand that the French colonial government in Indochina grant the same rights to its subjects as it did to its rulers.

Inspired by the success of Vladimir Lenin's Bolshevik Revolution, he joined the new French Communist Party in 1920 and traveled to Moscow three years later. He soon began recruiting members of a Vietnamese nationalist movement that would form the basis of the Indochinese Communist Party(founded in Hong Kong in 1930) and traveled the world, including Brussels, Paris and Siam(now Thailand), where he work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Ho returned to Vietnam in January 1941 and organized the Viet Minh, or League for the Independence of Vietnam. Forced to seek China's aid for the new organization, Ho was imprisoned for 18 months by Chiang Kai-Shek's anti-Communist government.

With the Allied victory in 1945, Viet Minh forces seized the northern city of Hanoi and declared a Democratic State of Vietnam (known commonly as North Vietnam) with Ho as president.

In October 1946, a French cruiser opened fire on the town of Haiphong after a clash between French and Vietnamese soldiers. Armed conflict between the two states continued until a decisive battle

at Dien Bien Phu ended in French defeat by Viet Minh forces. The subsequent treaty negotiations at Geneva (at which Ho was represented by his associate Pham Van Dong) partitioned Indochina and called for elections for reunification in 1956.

Backed by the United States, the strongly anti-Communist South Vietnamese government of Ngo Dinh Diem refused to support the Geneva accords, and put off elections indefinitely. In 1959, armed conflict broke out again, the Viet Cong (Communist guerrillas) appealed to North Vietnam for help, and that July the central committee of Ho's Lao Dong Party (Worker's Party) voted to link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m in the North to the cause of unification with the South.

At this same meeting, Ho ceded his position as party secretary-general to Le Duan. He would remain nominally as North Vietnam's head of state during the Vietnam War, but would take a more behind-the-scenes role. To his people, "Uncle Ho" also remained an important symbol of Vietnam's unification. The U.S. continued to increase its support of South Vietnam, sending economic aid and—beginning in December 1961—military troops. American air strikes against North Vietnam began in 1965, and in July 1966, Ho sent a message to the country's people that "nothing is as dear to the heart of the Vietnamese as independence and liberation." This became the motto of the North Vietnamese cause.

The conflict was still ongoing by September 2, 1969, when Ho Chi Minh died in Hanoi at the age of 79.

호찌민, 평범함 속의 비범함

배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생애

1858년 여름, 프랑스 함대가 다낭 *Dà Nẵng*에 상륙한 이래 베트남은 점차 프랑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미 오래 전 중국과 몽고를 물리쳤던, 외침에 대항한 불굴의 역사를 간직한 베트남인들은 이에 맞서 싸웠지만 근대식 함대와 대포로 무장한 프랑스를 물리치지는 못하였다. 이후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전락하였고, 프랑스는 베트남을 세 지역—통킹 *Tonkin*, 안남 *An Nam*, 코친차이나 *Cochinchine*—으로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베트남에서 반-프랑스 저항운동의 핵심지역은 응에안 *Nghê An* 성으로 알려져 왔다. 동쪽으로 험준한 쓰엉선 *Trương Sơn*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이 지역은 척박한 땅이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구름이 산맥에 부딪혀 서쪽(라오스)에 한바탕 비를 쏟아내고 나면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여 응에안성으로 불어와 농작물에 큰 해를 입히곤 한다. 뽕현상이다. 이외에도 이 지역에는 바닷물에 의한 침수,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까지 빈번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한층 궁핍하고 고단하게 만들곤 하였다. 응에안성 사람들은 이러한 기후에 맞서 싸우며 단련되었고, 고난이 덮칠 때마다 강인한 생존능력을 발휘해 왔다. 이러한 전통으로 응에안성에서는 많은 애국자와 학자, 군인들이 배출되었다. 베트남에서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 바로 응에안성이다.

응에안성이 길러낸 ‘의지의 베트남인’ 중 한 사람이 호찌민 *Hồ Chí Minh*이다. 1890년 5월 19일, 호찌민은 이곳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응웬싱삭 *Nguyễn Sinh Sắc*은 1차 과거시험인 향시에 합격한 유학자였다. 이후 조정에서 주관하는 2차 시험인 회시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그는 당시 수도였던 후에 *Hu*에 머물기로 결심하고, 얼마 후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와 이곳에 정착하였

다. 호찌민이 다섯 살 되던 해의 일이다.

응웬싱삭은 1898년에 치러진 두 번째 과거에도 낙방하여, 이후 1901년이 되어서야 회시에 합격하였다. 이처럼 쉽지 않게 얻은 관직이었지만, 그의 관운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다. 1909년까지 예부에 근무한 후 지방관으로 근무하던 어느 날, 부하를 시켜 곤장을 때린 죄수가 두 달 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일로 그는 곤장 100대의 징계를 받았다. 4등급 강등과 면직에 해당되는 형벌로, 응웬싱삭은 1910년 9월, 곤장을 맞는 대신 면직되고 만다. 이후 그는 남부 지역을 돌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주민들에게 약을 지어 주는 등의 일로 말년을 보내다 1929년에 사망하였다.

응웬싱삭은 첫 번째 부인 호앙티로안과의 사이에 1녀 3남을 두었다. 장녀인 응웬티타잉 아래 장남 응웬싱키엠, 그리고 차남 응웬싱공, 마지막 3남으로 응웬싱뉴언을 두었는데, 그 중 차남인 응웬싱공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호찌민이다. 첫 부인이자 호찌민의 어머니인 호앙티로안이 1901년에 사망하고 난 후, 말년에 응웬싱삭은 남부에서 새 부인을 맞아 브영찌응이라는 아들을 두기도 하였다.

호찌민이 11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마을 등록부에 차남 응웬싱공의 이름을 “틀림없이 성공할 사람”이라는 의미의 ‘응웬땃타잉 阮必成’으로 개명하여 등록하였다. 한 역사학자가 20세기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호찌민만큼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호찌민은 수십 개의 이름을 가졌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인 호찌민 하나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응웬땃타잉으로 개명한 이때부터 호찌민은 아버지의 친구 밑에서 본격적으로 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스승 브영푼꾸 [Vương Thúc Quý\(1862-1907\)](#)는 프랑스에 대항하여 봉기한 근왕운동의 의병대를 만든 브영푼머우 [Vương Thúc Mậu](#)의 아들이었다. 스승의 영향으로 이 시기 호찌민은 근왕운동과의 독립투쟁에 관한 이야기와 전사한 독립투사들에 관한 이야기 등을 들으며 성장하였다. 동네 친구들에게 베트남 역사를 들려주기 위해 고향 마을에서 성도인 빙 [Vinh](#)까지 걸아가 책을 읽고 난 후 주요 구절을 외워와



위 [사진 1]
응에안성에 있는 호찌민 생가

아래 [사진 2]
후에(Huế)에 있는 국학(國學) 정문

친구들에게 들려줄 정도로 이 시기 호찌민은 자주독립국 베트남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열망을 가슴 가득 품은 청년이었다.

후에 살 때 호찌민은 유럽인들에게 절을 하는 베트남 관리들의 모습에 의문을 갖는 한편 철교를 건설하는 프랑스 기술자들을 낮을 잃고 바라보곤 하였다. 또한 라오스로 진입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데 징발된 노동자들이 죽고, 돌아오더라도 병에 걸리거나 영양실조 등으로 몸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았다. 이 죽음의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호찌민은 식민체제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하였다.

1907년에 호찌민은 그의 형과 함께 당시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국학^{國學}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이 학교에 다니면서 호찌민은 프랑스에 대하여, 그리고 식민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었다. 1908년, 조세저항운동이 거세게 일자 호찌민도 여기에 참여했는데, 이로 인해 그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된다. 프랑스 식민지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호찌민의 행방은 이즈음에 잠시 묘연해진다. 고향이 아닌 어딘가 친구 집에 얹혀살았거나 시골 농장 등지에서 일하며 지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가 베트남을 떠날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이때부터였을 것이다. 사이공에 가기로 마음먹은 그는 신분을 위장하여 계속하여 남쪽을 향해 내려갔다.

사이공은 응에안성의 시골 청년에게는 신세계와도 같은 곳이었다. 프랑스가 코친차이나를 직접 통치하면서 고무 플랜테이션이 즐비하고 들어섰고, 메콩 강 늪지를 간척한 땅에서는 엄청난 쌀이 생산되고 있었다. 고무와 쌀 교역이 활발해지자 유럽의 장사꾼들이 대거 몰려 들어왔다. 이전까지 농민과 귀족 두 계층만 있었던 사이공에는 이 시기 농민, 임금노동자, 상인, 인력거꾼, 선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직업이 분화되었고, 도시 전체에 생동감이 넘쳤다.

사이공의 부둣가에 거처를 마련하고 서양으로 나갈 궁리를 하던 호찌민은 프랑스와 베트남을 오가던 정기선의 주방 보조 자리를 얻어 1911년 사이공 항구, 조국 베트남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40여일 후인 1911년 7월 6일, 호찌민은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하였다. 프랑스 식민지의 공무원을 양성하는 식민지학교에 들어가고 싶었던 호찌민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입학



[사진 3]
호찌민이 승선했던 프랑스 상선



[사진 4]
호찌민이 머물렀던
보스턴의 파커호텔

을 청원하는 편지를 썼지만 거절당하였다.

그로부터 약 2년 동안 호찌민은 배를 타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이 시기 그는 항구를 통제하고 있는 백인들의 모습과, 그 아래서 유색인종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뉴욕 항에 내려 미국에 몇 달간 머무는 동안에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에게 린치를 가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그가 베트남으로 돌아가 혁명을 주도하는 데 초석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3년경 호찌민은 미국을 떠나 영국으로 갔다. 이곳에서 그는 영어를 배우고 외국인들과 교분을 나누는 한편 먹고살기 위해 온갖 험한 일을 하며 최하층의 삶을 버텼다. 이후 그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 것은 대략 1917년 말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프랑스 노동단체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에 그는 급진적 좌파로서 후에 역사학자가 된 보리 수바린 *Boris Souvarine* 을 만났고, 그의 소개로 레오 폴데스라는 포부르크클럽의 창시자를 알게 되었다. 호찌민은 이곳에서 처음 연설을 했는데, 이때 그의 연설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 노동허가증이 없었던 호찌민은 파리에서도 최하층의 삶을 살았지만, 프랑스의 급진좌파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점차 정치 활동을 개시하였다.

활동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평화회담에서 유럽의 새로운 민족국인들이 탄생할 무렵 호찌민은 <안남애국인회 *Hội những người An Nam yêu nước*> 명의로 <안남 인민의 요구서 *bản Yêu sách của nhân dân An Nam*>를 프랑스 대통령과 각국 대표단에 보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프랑스 경찰 당국의 눈에 띄어 사찰을 받게 된다. 청원서 사건 이후 호찌민은 프랑스 사회당의 정식 당원으로 받아들여졌다. 호찌민은 “억압받는 민족에게 동정심”을 보여준 사회당에 끌렸다고 한다. 사회당 내에서도 온건파와 급진파가 있었는데 호찌민은 급진파에 속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애국 지식인들이 민족 독립의 요구가 좌절된 후 급진적으로 바뀌었듯이 호찌민도 그랬던 것 같다.

호찌민은 레닌이 만든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comintern}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프랑스 사회당 대표자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사용하는 큰 망치와 낫이라는 단어는 물론 행동강령이나 전략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제3인터내셔널이 식민지 문제에 대해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에 이끌렸다. 제3인터내셔널 대표들은 피압박 식민지 민족들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일을 도울 것이다. 제2인터내셔널은 식민지의 운명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3인터내셔널 협력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을 위원으로 받아들라고 요청하였고, 그의 요청은 수락되었다.

호찌민이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은 그 자신이 생생하게 경험한 최하층 노동자의 삶을 바탕으로 레닌주의의 핵심을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불안을 몸소 체험한 그에게는 레닌이 주장하는 폭력 혁명의 필요성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매력적인 것이었다.

호찌민이 처음 모스크바에 간 것은 1922년 개최된 국제공산당 제4차 전당대회였다. 이곳에서 그는 레닌을 만났고, 국제공산당 동남아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 1923년 6월, 모스크바에 있는 동방공산노동대학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호찌민은, 이후 제1차 국제농민회의에서 의장단,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또한 제3인터내셔널 5차 대회에서는 동방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되어 남방국^{南方局}을 담당하게 되었다. 1924년 모스크바에서 호찌민은 제3인터내셔널에 베트남의 북부, 중부, 남부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그는 당시 서양에서의 계급투쟁과 베트남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그의 지적은 민족주의에 의지하여 공산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레닌의 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와도 모순되지 않는 것이었다.

1924년 말, 소련에서 학업을 마친 호찌민은 중국 장개석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소련 대표단의 통역으로 광저우에 갔다. 동방에 혁명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그가 맡은 임무였다. 1925년 그는 광저우에서 베트남 교포들을 모아서 ‘베트남 청년혁명동지회’를 결성하여 마르크스-레닌 사상을 베트

남에 전파하는 한편, <혁명의 길>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장개석의 군사학교에 베트남 사람들을 입학시키기도 했는데, 이후 장개석이 중국과 베트남 공산주의자에 대한 테러를 시작하자 중국을 떠나 홍콩을 경유하여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이후 프랑스로 파견된 그는 1927년 12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반제국주의연맹대회에 참석하였다.

1928년 가을, 호찌민은 사발한 승려로 위장하여 태국에 입국하였다. 그는 당시 태국에 있던 베트남 교포들에게 혁명사상을 전파하였고, 이듬해인 1929년 말에 되자 다시 중국으로 잠입하였다. 1930년 2월 3일, 홍콩에서 베트남 공산당(당시 베트남 노동당)을 창당한 그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잠시 머물다 홍콩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에서 홍콩당국에 체포되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그는 상해를 거쳐 모스크바로 갔는데, 1934년 봄 모스크바의 레닌국제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홍콩에서 체포되었다 풀려난 일과 베트남 혁명청년회 당원 100여명이 체포된 일과 관련하여 이심을 받아 1938년까지 연금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계림의 팔로군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귀양^{貴陽}과 쿤밍을 거쳐 중국공산당의 핵심 근거지인 연안에 1941년까지 머물렀다.

1941년 1월 28일, 호찌민은 30년간의 망명생활을 접고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까오방^{Cao Bang}으로 돌아왔다. 만년필 한 개와 작은 등나무로 짠 옷가방 하나가 그가 가진 짐의 전부였다고 한다. 이곳에서 그는 간부를 교육시키고 신문을 발간하는 등의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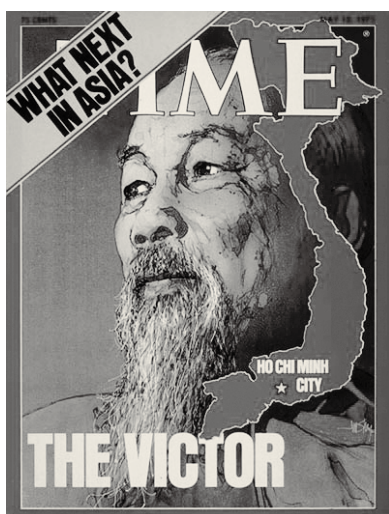
이후 호찌민은 1942년 8월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붙잡혀 거의 1년 동안 30여 곳의 교도소를 전전하는 옥살이를 하였다. 1943년 10월 인도차이나의 반침략국제회 ^{Hội Quốc tế chống xâm lược}가 중국 주재 미국대사와 장개석 총통에게 편지를 보내어 호찌민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중국 공산당 대표 또한 미국의 OSS 장교와 접촉하여 그의 석방을 요청하였다. 호찌민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43년 9월 10일 석방되었다. 그리고 1944년 9월 말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 베트남 독립을 위한 계렬라전을 전개하

1 그의 사망일은 베트남 독립기념일인 9월 2일과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9월 3일에 운명한 것으로 발표되었다가 1989년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9월 2일에 운명한 것으로 수정되었다.

던 그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다음날 뚜옌꽁(Tuyên Quang) 성 뒀짜오(Tân Trào)에서 국민대회를 열어 민족해방위원회, 즉 임시정부를 결성하여 주석에 취임하였다. 이후 그는 전국에 걸친 봉기를 성공시켰는데, 이를 베트남 역사에서는 ‘8월 혁명’으로 칭한다. 호찌민은 1945년 9월 2일, 하노이의 바딩 광장에서 수십만 명의 베트남 인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8월 혁명의 성과를 공포하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다시 프랑스와의 전쟁이 발발했지만,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푸 전투에서의 승리로 프랑스가 물러나면서 베트남에는 독립된 국가가 수립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개입으로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결국 미국과 역사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엄청난 희생이 따랐지만, 호찌민이 이끄는 북베트남에 의해 베트남은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다.

대불항전과 대미항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으로서,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인 호찌민 자신은 정작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한 채 1969년 9월 2일, 7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¹ 세계 121개국에서 22,000통의 조전을 보내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당시 한 영국인 기자는 “호찌민은 베트남의 조지 워싱턴이며 링컨”이라고 적기도 하였다.



[사진 5]
베트남 통일 후 타임지 표지 인물로 인쇄된 호찌민(1975년)

평가

베트남의 국부로서 추앙받는 호찌민에 관한 일화는 무수히 많다. 여기서는 그에 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호찌민은 생전에 담배를 아주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찌민 주석의 개인비서였으며, 호찌민박물관장을 맡기도 했던 부끼에 따르면, 호찌민 주석은 담배를 아주 많이 피웠다고 한다. 그가 담배를 피우게 된 것은 1920년대, 그의 이름이 응웬아이꾸옥 阮愛國이던 시절부터였다. 당시 프랑스에 대항하는 청년이었던 그에게는 비밀경찰이 항상 따라다녔다고 한다. 미행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지만 뒤를 돌아다볼 수는 없었던 호찌민은 자신의 뒤를 밟는 미행자를 관찰하고 싶었다. 그 묘책으로 그는 담배 피우는 것을 생각해냈다고 한다. 길을 가다 멈추고 담뱃불을 붙인 다음, 성냥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서 몸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주변을 살피면서 미행에 대응할 방법으로 그는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이렇게 자신을 미행하는 자를 살피기 위해 시작된 흡연이 결국 그를 애연가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1957년, 러시아 10월 혁명 4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은 필터 담배를 생산하였고, 이를 기념식에 참석한 대표자들에게 선물하였다. 마오쩌둥 주석과 호찌민 주석이 애용했던 담배라고 소개되었다. 미국 담배보다 연한 이 담배는 본래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전용 담배였는데, 중국 지도자들은 호찌민에게 이 담배를 선물하곤 했다고 한다. 호찌민은 이 담배를 다 피우고 난 다음에도 그 케이스를 버리지 않고 다른 담배를 그 안에 넣어 다닐 정도로 이 담배를 각별히 좋아했는데, 후에 중국이 이 담배를 많이 생산하면서 호찌민에게도 제공했고, 이때부터 호찌민은 너구리 상표의 이 담배를 즐겨 피웠다고 한다.

1967년, 호찌민은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기침을 자주 하였다. 정치국에서는 의사들을 불러 그의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의사들은 그에게 금연을 권하였다. 호찌민은 “내가 담배를 50년 넘게 피웠다. 끊을 수 있어. 그러나 끊어도 기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침이 나.”라며, “어떤 사람이 담배를 50번이나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 끊었다가 다시



[사진 6]
휴식을 취하는
호찌민의 모습(1969년)

피는 일이 다반사다.”라는 프랑스의 우스개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사가 끊으라고 하니 자네가 보관하게.”라면서 담배를 비서에게 건네주었고, 비서는 이따금 그에게 담배를 내주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결심은 한 번, 계획은 열 번, 방법은 스무 가지가 있어야 실천할 수 있으며, 담배 끊는 것도 그러하다.”고 말하고는 시차를 두고 천천히 담배를 줄여 나가, 마침내 그 좋아하던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술 끊고 담배 끊은 지 3년 되어
 절망이 도망가고 병이 없으니 기쁨이 배가 된다.
 남쪽의 큰 승리를 보니 기쁘고
 일 년 사계절이 다 봄이구나.

지도자로서 그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일화도 전해진다. 프랑스와의 전쟁 초기, 외국으로 가는 호찌민을 위해 교통로를 만드는 일을 맡은 한 대대장이 있었는데, 늘 부하들에게 큰소리로 호통을 치고 심지어 따귀를 때리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호찌민이 어느 날 그를 불렀다.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그가 도착한 시각은 정오가 다 되어서였다. 호찌민 앞에 도착하자 탁자 위에 두 개의 물 잔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찬물이었다. 인사를 마치자 호찌민은 대대장에게 뜨거운 물이 담긴 잔을 가리키며 마시라고 했다. 이에 대대장은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뜨거운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까?”라고 물었고, 호찌민은 이 말에 미소를 지으며, “그래? 자네도 식은 물, 시원한 것을 원한다는 거지?”라고 묻자 그는 “예.”라고 대답했다.

이에 호찌민은 정색하며, “뜨거운 물은 자네나 나나 모두 마실 수 없네. 자네가 열을 내면 자네 부하나 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네. 식은 물처럼 부드럽고 담백해야 쉽게 마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네.”라고 말했다. 의미를 알아차린 대대장은 잘못을 시인하며 부하들에 대한 행동을 고치겠



[사진 7]
하장성의 소수종족을 접견하는
호찌민(19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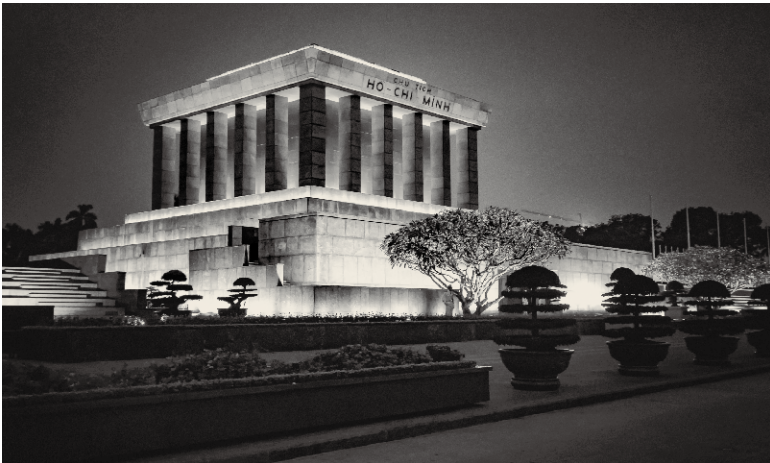
노라 약속했다고 한다.

식사와 관련된 호찌민의 일화 하나도 전해진다. 호찌민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한 인사에 따르면 호찌민은 절대 이 음식을 준비해라, 저 음식을 준비하라는 등의 말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늘 소박한 음식을 먹었고, 음식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지방을 순시할 때면 그는 간부들이 음식을 남기는 경우 모두 먹도록 하였고, 특히 맛있는 음식은 절대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한 번은 호찌민이 업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의 경호원이 식사를 준비하는 여성에게 오늘은 어르신이 피곤하니 죽을 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누워 있던 호찌민은 그 말을 듣고는 일어나 “밥을 새로 짓지 말고 찬밥으로 죽을 끓이면 빨리 먹을 수도 있고 쌀도 절약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1914년, 영국의 호텔에서 주방장 보조로 일했을 때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당시 호찌민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 중 깨끗한 것을 골라 다시 잘 포장하여 주방장에게 주었다고 한다. 프랑스인 주방장이 “왜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쓰레기통에 그것을 버리지 않느냐?”고 묻자 호찌민은, “이 음식을 버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주방장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그의 근검절약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일화들이다.

국어 사용에 대한 호찌민의 관심을 보여주는 일화도 전해진다. 호찌민은 한자어 대신 베트남어 사용을 권장하여, ‘미속 *mĩ tục* 美俗’이라는 글자를 ‘아름다운 풍속 *tục lệ tốt đẹp*’으로 바꾸어 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한번은 산업미술전문대에서 주최한 도자기 전시회를 관람한 일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가?”라는 그의 질문에 학장이 “대부분 국내산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왜 원료의 상당 부분 *phần lớn*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đại bộ phận*이라는 말을 쓰나?”라고 반문하며, “우리말 우리 글자가 아주 예쁘고 풍부하다. 우리말에 없을 때만 외래어를 들여와야 한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1969년은 베트남 공산당 창당 40주년,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 25주년, 호찌민의 79회 생일이 되는 해였다. 당시 호찌민은 건강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정치국에서 결정한 후 그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베트남 정치국은 호찌민의 생일 축하를 겸하여 이



[사진 8]
하노이에 있는 호찌민 주석릉

해의 중요 행사를 성대히 치르기로 결정하고, 며칠 후 이를 신문에 공표하였다. 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호찌민은 정치국원들을 불러 “다른 결정은 다 좋은데 어찌하여 국가와 당의 중요한 행사와 내 생일을 같은 반열에 놓는단 말인가?”라고 말하며 생일 축하 행사를 빼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어 각 지방에서 혁명박물관, 기념관을 수리한다는 기사를 가리키며,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은 전쟁 중이고 국민들의 집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니 학교와 주택을 짓는 일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가 위기를 관리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그가 얼마나 공과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인물이었으며, 또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사적으로 전유되는 것을 그가 얼마나 철저히 경계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이다.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화려하게 해서 국민들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는 그의 엄중한 당부를 담은 유언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호찌민의 사후 이 유언은 지켜지지 않아,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그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하노이의 호찌민 능에 안치하고 참배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사후에 이루어진 이 일로 인해 그가 일생을 통해 추구한 사람됨의 완성을 향한 의지마저 폄훼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만민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가 추구한 사람됨이란 무엇이었는지를, 그가 남긴 7언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땅에는 동서남북의 4방이 있고
 하늘에는 춘하추동의 4계절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근검염정(勤儉廉正)의 4덕이 있어야 한다.
 한 방향만 없어도 땅이 아니고
 한 계절만 없어도 하늘이 아니며
 한 덕만 부족해도 사람이 안 된다.

주요 연표

- 1890년 5월 19일 중부 응에안성에서 출생
- 1901년 모친 사망
- 1907년 후에(Hué) 소재 국학에 합격
- 1908년 퇴학당함
- 1911년 프랑스 상선에 취업하여 세계를 다님
- 1912년 미국에서 생활
- 1914년 영국에서 생활하며 노동운동에 참가
- 1917년 프랑스로 귀환. 선정활동 참여
- 1920년 제3인터내셔널 협력위원회 위원
- 1922년 르 빠리아(Le Paria) 창간
- 1923년 모스크바로 탈출, 스탈린학교에서 교육받음
- 1925년 팡쩌우에서 ‘베트남혁명청년회’ 결성
- 1926년 베트남 혁명교과서인 <혁명의 길> 집필
- 1928년 7월 태국 도착
- 1930년 베트남공산당 창당
- 1931년 홍콩에서 영국경찰에 체포됨
- 1932년 12월 석방
- 1938년 중국으로 잠입
- 1940년 쿤밍에서 팜반동과 보웬웬지압을 만남
- 1941년 베트남 해방구로 돌아옴
- 1942년 8월 중국 방문 중 중국경찰에 체포됨
- 1943년 9월 석방됨
- 1945년 9월 2일 독립선언과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
-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푸 전투 승리
- 1964년 8월 톡킹만 사건과 미군의 개입
- 1965년 베트남전 발발
- 1969년 9월 2일 사망

참고문헌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 브루나이 '근대 왕실의 설립자'

양승윤. 2010. 『동티모르·브루나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윤진표. 2016. 『현대 동남아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De Vienne, M. S. 2015. *Brunei: From the Age of Commerce to the 21st Century*.
Singapore: NUS Press.

Funston, N. J., ed. 2001. *Government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Hussainmiya, B. A. 1995. *Sultan Omar Ali Saifuddin III and Britain: The Making of Brunei Darussalam*,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Neher, C. 2002. *Southeast Asia In The New International Era*. Fourth Edition.
New York: Avalon Publishing.

Kingsbury, D. 2016. *Politics i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uthority, Democracy and Political Change*.
London: Taylor & Francis.

짜오아누웁 라오스 위양짠의 마지막 국왕, 태국과의 독립항쟁의 영웅

김영애. 2001. 『태국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안중량. 2017. 『기초라오어』(디지털교재).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학부
(<http://edu.dseas.kr>).

양승윤 외. 2008. 『라오스-캄보디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조홍국. 2012.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 인도, 동남아시아』.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근대 태국의 형성』.
서울: 소나무.

최병욱. 2015. 『동남아시아사-전통시대』,
서울: 산인.

Evans, Grant. 2002. *A Short History of Laos, The Land in Between*.
London: Allen & Unwin.

Hall, D. G. E. 1958. *History of South East Asia*. London: Macmillan.

Stuart-Fox, Martin. 1997. *A History of Lao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enk, Klaus. 1968. *The Restoration of Thailand under Rama I 1782-1809*.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https://lo.wikipedia.org> “ເຈົ້າອານຸວົງ”

<https://th.wikipedia.org> “สยาม(สยาม)”

<https://th.wikipedia.org> “เจ้าอนุวงศ์”

<https://en.wikipedia.org>
“Chao Anouvong”

<http://www.asiaessencetours.com/destinations/laos/vientiane/wat-sisaket.htm>(사진 2)

툰쿠 압둘 라만
말레이시아 독립의 영웅,
건국의 아버지

“Tunku Abdul Rahman, 87, Dead;
First Prime Minister of Malaysia”
New York Times 7 December 1990.
Retrieved 25 June 2015.

Cheah, Boon Kheng. 2002.
“The Tunku as “Founding Father of the
Nation” *Malaysia: The Making of a Nation*.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p. 109–110 (ISBN 9812301542).

Hoiberg, Dale H. Ed. 2010.
“Abdul Rahman Putra Alhaj, Tunku”
Encyclopædia Britannica. I: A-ak Bayes
(15th ed.). Chicago, Illinois: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p. 21 (ISBN 978-1-59339837-8).

Michael Leifer, Joseph Liow. (20 November
2014). *Dictionary of the Modern Politics
of Southeast Asia*. Revised edition p. 59.
Routledge (ISBN 9781-317-62233-8).

Biography.com. “Tunku Abdul Rahman
biography” Retrieved on 5 May 2012.

Ooi, J. 2007. “Merdeka... 50 years of Islamic
State?” Available from: http://www.jefffooi.com/2007/07/merdeka_50_years_of_islamic_st.php. Accessed on 21 July 2007.

Hall of Fame. Olympic.org.my. Retrieved
on 27 September 2013.

Weinberg, Ben. 2015, *Asia and the Future
of Football: The Role of the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Routledge (ISBN 978-1-
317-57632-7).

“Asian Icons: Tunku Abdul Rahman Putra
Al Haj”.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Retrieved on 27 June 2016.

[http://www.thinkbigstud.com.au/
DatoTan-Chin-Nam.asp](http://www.thinkbigstud.com.au/DatoTan-Chin-Nam.asp)

“From playboy to Prime Minister of
Malaya”. The Straits Times. 31 August 1957
(Reprinted on 31 August 2007 by the New
Straits Times).

“Memori indah bersama Tunku”(in
Malay), Kosmo Online

“Senarai Penuh Penerima Darjah
Kebesaran, Bintang dan Pingat
Persekutuan Tahun 1970” (PDF)

아웅산 장군
혜성 같았던 미얀마의
민족주의자, 독립의 영웅

Aung San Suu Kyi. 1984. *Aung San*.
Queensland: University of Queensland.

Bogyoke Aung San Akhtoukpakhti
Pyusuyehpwe [아웅산장군 전기
편집위원회] 편. 2013. *Amyodha
Gauzaungyi Bogyoke Aung San(1915-
1947)* [미얀마어, 위대한 국민의 지도자,
아웅산 장군]. Yangon: Panwayway Sapay.

Silverstein, Josef. 1993. *The Political
Legacy of Aung San*, Revised Edition,
Ithaca: SEAP, Cornell University.

Taylor, Robert H. 1980. “Burma in the
Anti-Fascist War”. In *Southeast Asia
Under Japanese Occupation*. Alfred W. Mc
Coy(ed.) pp. 132-157, New Haven:
Yale University Southeast Asia Studies.

Wintle, Justin. 2007. *Perfect Hostage: Aung San Suu Kyi, Burma and the Generals*. London: Arrow.

Woodman, Dorothy. 1962. *The Making of Burma*. London: The Cresset Press.

호세 리살 필리핀 국민 영웅, 아시아 민족주의 선구자

김동엽. 2010. “호세 리살의 삶과 문학 그리고 필리핀”. 『수완나부미』 2(2): 83-90.

리살, 호세. 2015. 『나를 만지지 마라 (Noli Me Tangere)』(1·2권) 김동엽 옮김. 서울: 도서출판 눌민.

Agoncillo, Teodoro A. 2002. *The Revolt of The Masses: The Story of Bonifacio and the Katipunan*.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 Press[First Edition 1956].

Guerrero, Neon Ma. 2012. *The First Filipino*. Makati City: Guerrero Publishing Inc.

리관유 냉철한 현실 감각과 예지력을 갖춘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리관유. 2001. 『내가 걸어온 일류국가의 길』 류지호 옮김. 서울: 문학사상사.
———. 2002. 『리관유 자서전』, 류지호 옮김. [원본초간 1999]. 서울: 문학사상사.

플레이트, 톰. 2013. 『리관유와의 대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입각한 강력한 리더십의 정체를 묻다』 박세연 옮김.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http://web.asiaone.com/rememberinglky/gallery/lee_gallery2.jpg (사진 1)

http://web.asiaone.com/rememberinglky/gallery/lee_gallery4.jpg (사진 2)

http://i.telegraph.co.uk/multimedia/archive/03241/Lee-Kuan-Yew_3241554b.jpg (사진 3)

쫄라롱껀 대왕 태국인의 민족적 자긍심, 그 원천

김영애. 2001. 『태국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桐山 昇·栗原 浩英·根本 敬. 2003. 『東南アジアの歴史』. 東京: 有斐閣アルマ.

柿崎 一郎. 2007. 『物語タイの歴史』. 東京: 中公新書 1913.

Reungnarong, Prapon, ed. 2016. พระบาทสมเด็จพระจุลจอมเกล้าเจ้าอยู่หัว, Satapornbooks.

Understanding ASEAN through Its Great Leaders

위대한 지도자를 통한 아세안의 이해

펴낸날

2017.12.14

펴낸곳

한-아세안센터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8층)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트리니티홀 D423호)

전화

02.2287.1140
051.509.6636

팩스

02.2287.1160
051.509.6435

이메일

info@aseankorea.org
admin@iseas.kr

홈페이지

www.aseankorea.org
www.iseas.kr

디자인

고투워크

인쇄

청산인쇄

ISBN 979-11-88409-13-6

이 저서는 2009년도 정부재원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62-B00016).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EST)
(NRF-2009-362-B00016).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이 책의 글이나 이미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아세안센터 및
동남아지역원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It is the 'people' that make economic developments and cultural achievements. Therefore, to take a step closer to ASEAN, we aim to focus on 'people'. As the first stepping stone to understanding ASEAN 'people', we have shed light on the great figures of ASEAN, and hence present to you *Understanding ASEAN through Its Great Leaders*.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이룩해온 주체는 사람입니다. 아세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사람'에 주목해보고자 했습니다. 아세안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로, 아세안의 위인들을 조명하여 <위대한 지도자를 통한 아세안의 이해>를 펴냅니다.

